2026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합동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설명회

중국 ·일본 · 동남아 · 서남아를 중심으로

★ 현지에서 날아온 '진짜 수출' 이야기 ★

2026. 10.20. (화) 10:00-18:00
IKP 오영교실 및 중강의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중국

베이징·광저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베이징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신송옥 대리 (shensy23@kotra.or.kr)
광저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황기 대리 (kikihuang@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중국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중국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및 주요 수출입 품목

양국 간 교역액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으로 '25년 2 ,727억 3,200만 달러 기록

- **수 출** '26년 1월~7월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711억 2,900만 달러 기록, 그외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기초유분 등
- **수 입** 반도체 품목 246억 1,300만 달러 기록, 그 외 컴퓨터, 축전지 및 소재, 정밀화학 원료 및 산업용 전기기기 제품 등

한국-중국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	2023	2024	2025
수출	155,789 (-4.4)	124,818 (-19.9)	133,011 (6.6)	130,781 (-1.7)
수입	154,576 (11.5)	142,857 (-7.6)	139,878 (-2.1)	141,951 (1.5)
교역	310,365 (2.9)	267,675 (-13.8)	272,889 (2.0)	272,732 (-0.1)
무역수지	1,213	-18,039	-6,867	-11,170

'26년 1월~7월 한국의 對**중국** 수출입 상위 품목(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품목	금액(증감률)	순위	품목	금액(증감률)
1	반도체	71,129 (190.0)	1	반도체	24,613 (91.7)
2	무선통신기기	3,870 (13.2)	2	컴퓨터	4,299 (9.9)
3	합성수지	3,293 (-5.3)	3	축전지 및 소재	4,133 (40.2)
4	기초유분	2,539 (-24.3)	4	정밀화학원료	3,340 (22.3)
5	석유화학중간원료	2,505 (26.3)	5	산업용 전기기기	3,268 (2.4)
15	화장품	1,194 (-2.6)	6	의류	2,941 (12.0)
38	의료기기	326 (1.7)	11	의약품	1,772 (12.4)
42	의약품	288 (22.6)	19	기계요소	1,202 (9.6)

자료: KITA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현황

중국은 한국 등 국가와 양자간 FTA / 다자간 RCEP 협정 체결



24개 체결 FTA

31개 국가·지역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협정

한·중 FTA '15.12.20 발효

RCEP '22.2.1 한국 발효

APTA '02.1.1 중국 가입 후 발효

→ 품목별 세율 비교 후 유리한 협정 선택

체결 현황 (서명 연도 기준, 24개)

'02	아세안(10개국)
'03	홍콩, 마카오(CEPA)
'05	칠레
'06	파키스탄
'08	뉴질랜드, 싱가포르
'09	페루
'10	코스타리카, 대만(ECFA)
'13	아이슬란드, 스위스
'15	한국('15.12.20 발효, 2단계 협상 중), 호주
'17	조지아, 몰디브
'19	모리셔스
'20	RCEP(한국 '22.2.1 발효), 캄보디아
'23	니카라과, 에콰도르, 세르비아
'24	벨라루스(서비스·투자)
'25	콩고(브라자빌)(조기수확협정)

협상 진행 중

신규 FTA

한·중·일	GCC(걸프협력회의)
노르웨이	이스라엘
스리랑카	몰도바
온두라스	파나마
팔레스타인	엘살바도르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국가

업그레이드

한국 서비스·투자 2단계 협상

스위스 업그레이드 협상('24 개시)

※ 업그레이드 서명: 페루('24), 아세안 3.0('25)

자료: 중국 상무부 FTA 서비스망

한-중 FTA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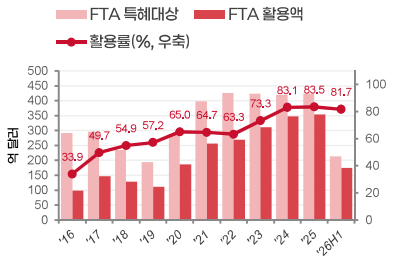
한-중 FTA 수출 활용률 확대, 수출 경쟁력 강화

▸ **FTA 활용률** 수출활용률 '16년 33.9% → '25년 **83.5%**로 약 2.5배 상승, '26년 상반기 **81.7%** 유지

▸ **FTA 활용액** 특혜대상 수출은 연 400억 달러대 정체 → **활용률 상승으로 실제 활용액 확대** ('21년 257억 → '25년 35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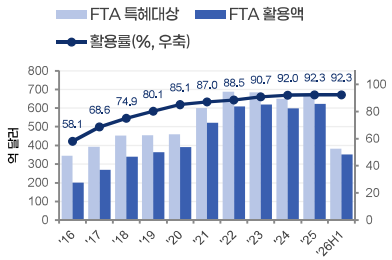
1 한-중 FTA 수출 활용 추이

83.5% '25년 수출활용률
'16년(33.9%) 대비 +49.6%p



2 한-중 FTA 수입 활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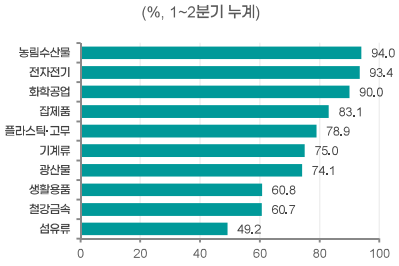
92.3% '25년 수입활용률
수출과 격차 25.2→8.8%p 축소



3 '26년 상반기 산업별 수출활용률

활용 우수 농림수산 94.0 · 전자전기 93.4 · 화학 90.0

활용 저조 섬유 49.2 · 철강금속 60.7 · 생활용품 60.8



자료: 한국 관세청 FTA 포털

주: '26H1은 1~2분기 누계, FTA 활용액 = 특혜대상액 × 활용률로 산출

02

중국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중국 소비자 · 기업의 최신 구매 수요와 시장 변화

소비구조 전환 상품 중심 · 양적 확대 → **고품질 · 서비스 · 체험 중심**

46.1% 1인당 소비지출 중 서비스 소비 비중('25)

+5.5% 서비스 소매액 증가율('25) ※ 상품 소매액 +3.8%

01 시장 여건

소비 둔화 속 정책 초점이 서비스·신유형 소비로 이동

-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딤
- 정책 방향이 소비 여력 확충과 서비스·신유형 소비 육성으로 전환
- 고용·소득·사회보장 강화와 함께 서비스·AI+·녹색·체험형 소비를 육성하고 고품질 상품 공급 확대

02 구조 변화

스마트·서비스·체험·가치소비 중심으로 재편

- **스마트화** AI·IoT·로봇 결합 제품이 교체 수요를 촉진, 신에너지차·스마트카 등 신시장 형성
- **체험·융합** 문화·관광·외식·스포츠·엔터테인먼트 체험 소비와 O2O·즉시배송·팝업스토어·몰입형 매장 확산
- **가치소비** 프리미엄화와 실용성 중시가 공존, 성능·품질·디자인·서비스를 두루 갖춘 제품 선호

03 기회 요인

신유형 소비 제품·서비스의 진출 기회 확대

- AI·스마트·친환경·개인화·콘텐츠를 결합한 융합형 제품·서비스 수요 증가
- 해외 우수 소비재 수입·신제품 출시·유통 지원 확대로 고품질 한국 소비재의 진입 기회
- K-콘텐츠·체험·서비스를 결합한 소비경험 모델과 현지 맞춤 제품으로 내수시장 공략

04 리스크 요인

중국 로컬 기업의 제품·브랜드 경쟁력 향상

- 중국 기업의 기술·디자인·품질·브랜드·신제품 출시 역량이 높아져 품질·디자인 우위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움
- 수요 불확실성, 플랫폼 입점·마케팅 비용, 데이터 규제 대응 등 현지화 비용이 늘어 수익성 악화 우려

시사점 차별화 포인트를 '품질'에서 '경험·서비스·콘텐츠'로 확장하고, 플랫폼·데이터 규제 등 현지화 비용을 사전에 점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wind, 현지 기업발표, 언론보도

8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중국시장 수출 유망 품목 및 신규 수출 기회



첨단 제조 설비·기술

신흥·미래산업 육성 → 스마트 제조·로봇 부품 수요 확대

- **산업정책** 신흥·미래산업이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
- **AI·디지털 전환** 제조·물류·의료 현장 자동화 확산 → 산업특화 솔루션 진출 기회
- **핵심부품** 스마트 제조·로봇 수요 확대 → 감속기·센서·서보모터 등 B2B 공급망 진입

정책 유망 분야

신에너지 | 신소재 | 첨단장비 | 커넥티드 | 항공우주 | 신에너지차 | 로봇 | 바이오의약 | 차세대IT | 체화지능 | 양자기술 | 수소·핵융합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 6G

77.3만 세트
산업용 로봇 생산 (+28.0%, '25)



소비재

간편·건강·프리미엄 중심으로 소비가 세분화

- **수입 수요** 한국산 가공식품·면역 관련 제품·담배·스포츠용품 수입 증가세
- **화장품** 대중 스킨케어 → 세대별 맞춤·프리미엄·안티에이징·천연유기농
- **식품·생활·유아** 도시화·고령화·라이프스타일 변화 → 간편·건강·프리미엄화, 스마트화·친환경 제품 확대

유망 품목

청소년 스킨케어 | 향노화 에센스 | 오일 케어 | 밀키트 | 건강식품 | 무첨가 음료 | 악식등원 차음료 | 영유아 기저귀 | 스마트·멀티기능 가전 | 스포츠·아웃도어 용품

+15.7%
체육·오락용품 소매액 증가율 ('25)



의료·바이오

고령화·건강의식 강화 → 의약품·헬스케어 소비 확대

- **수요 동인** 만성질환 치료제, 면역력 증진 의약품, 건강식품, 수면보조제 수요 증가
- **트렌드** 여성 건강식품, 헬스케어형 수면관리 영양제, 건강 모니터링용 소형·스마트 기기

유망 품목

크랜베리 여성 프로바이오틱스 | 멜라토닌 영양제 | 수면보조 음료 | 혈압계 | 혈당측정기 | AI 건강관리기기

3억 2,338만 명
60세 이상 인구, 총인구의 23.0% ('25말)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wind, 현지 기업발표, 언론보도

9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분야별 진출 포인트와 비관세장벽 체크리스트

첨단 제조 설비·기술

+28.0%

산업용 로봇 생산 증가율 ('25)
고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4% · 서비스 로봇 생산 +16.1%

진출 포인트

로봇·장비 완성품 업체 대상 핵심부품 B2B 공급, 산업 특화 AI·자동화 솔루션의 현지 파트너 연계

비관세장벽 체크포인트

- CCC 등 강제인증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한국 측 전략물자(이중용도) 수출통제 해당 여부
- 중국 부품 국산화 가속 → 가격·납기 경쟁 대비

소비재

+15.7%

체육·오락용품 소매액 증가율 ('25)
식품류 소매 +9.3% · 화장품 소매 +5.1%

진출 포인트

세대·기능별로 좁힌 타깃 제품 기획, 온라인 채널 중심 진입 후 오프라인 확대

비관세장벽 체크포인트

- 화장품: NMPA 등록·비안(备案) 및 효능 표시 근거 자료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해관총서령 제280호)
- 중문 라벨 표시 기준(GB 7718 등) 준수

의료·바이오

23.0%

60세 이상 인구 비중 ('25말)
60세 이상 3억 2,338만 명, 전년 대비 1,307만 명 증가

진출 포인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수요 검증 후 일반무역 전환, 수면·여성건강 등 특화 카테고리 공략

비관세장벽 체크포인트

- 보건식품: 등록(注册)·비안(备案) 및 기능성 표시 범위
- 의료기기: 등급별 NMPA 등록·비안
- 일반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시 금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wind, 현지 기업발표, 언론보도

10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식품의 중국 수출 유의사항

수산물 신규 수출: GACC(중국 해관총서) 해외생산기업 등록, 중국어 라벨, 성분 사전 검토가 필수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변경(기존 '22.1.1. 시행 → 변경 '26.6.1 시행)

Q A사는 수산물(자숙 꼬막)을 중국에 처음 수출하면서 GACC 등록 절차부터 원료수정, 중문 라벨 작성까지 지원을 요청

A GACC 등록 절차, 원료 수정, 중문 라벨 작성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GACC 등록 절차 안내

- 해외생산기업 등록은 '인터넷 해관'과 '국제무역 단일창구' 플랫폼에서 모두 가능
- **꼬막은 수산물**로 분류되어 '주관당국 추천 등록' 대상 → 한국 주관부처가 생산기업을 GACC에 추천 등록
- 시스템상 등록 완료 후 원료 수정 관련 절차·기한 안내

기업 유의사항
- 중국은 익힌(자숙) 수산물도 수산물로 분류
- 중국어 라벨에 제품 학명, 채집 수역 표기 의무 준수 필수

해관총서령 제280호 이어, 제 27호 '26.3.18.공포

✓ 정부 관리 대상 식품군 축소
- 기존 18개 → 17개 축소
- 제외: 미가공 농산물 일부 (곡물, 채소, 커피·카카오 등)
- 저위험 식품 등록 규제 완화

✓ 자동 연장 제도 도입
- 육류 및 육제품, 제비집을 제외 품목은 자동연장가능

✓ 해외 보관시설(냉동창고) 등록 의무화 (신규)
- 육류, 수산물 저장용 **냉동/냉장 창고**
- 기존 "생산공장 중심" → '유통(콜드체인)까지 관리확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식품 신규 규제 유의사항(라벨 기준 개편)

예포장식품 라벨통칙 (GB 7718) 기존 2011년 → 변경 2025년 ('27.3.16 시행)
예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 (GB 28050) 기존 2013년 → 변경 2025년 ('27.3.16 시행)

예포장 식품 라벨 통칙

유통기한 표시 방식 변경

- 생산일+보존기간 → 유통기한(Expiration date) 표시
  * 연-월-일 순서 의무화
  * 소비자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

8대 알레르겐 표시 의무 (기존 선택사항)

-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어류, 계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 원재료 목록 내 표시 또는 별도 강조 표시 가능

금지표현 명확화

- '무첨가', '제로 첨가', '미 사용' 등 표현 금지
- 첨가물/오염물질 '없음', '미 함유' 등의 표현 금지

예포장 식품 영양 라벨 통칙

필수표시 영양성분 확대

- 1 + 4 → 1 + 6
  * 기존: 열량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변경: 당류(Sugar), 포화지방(Saturated fat) 2종 추가
  👉 건강 리스크 성분 중심으로 확대

영양성분 참고량(NRV) 병기 의무화

어린이 청소년 경고 문구 의무화

! 儿童青少年应避免过量摄入盐油糖
어린이 · 청소년은 소금 · 기름 · 설탕 과다섭취를 피해야 함

👉 영양성분 하단에 의무적 표시

자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화장품 중국 수출 유의사항

화장품 원료 서류 부담 완화에 따른 기업의 일반무역 진출 가능성 검토

신규 정책에 따른 기업 이슈 발생	FTA 센터를 통한 정책 설명	기업 유의사항
▪ 신원료 판단 및 원료 서류 간소화 여부 -> 기업에서 DKMEX 특허원료를 IECIC (기 사용원료목록) 와 배합 사용시 일반화장품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 동물실험 면제 적용여부 -> 제조소의 CGMP, ISO22716 인증 및 안전성평가서, 자체 선언문 제출 시, 동물실험 완전 면제 여부 문의 ▪ 이번 규제 개혁으로 역직구->일반무역 전환 타당성 검토 의뢰 NMPA 2026년 제70호 공고에 따른 원료 등록 간소화 문의	◗ 원료서류 간소화 -> 원료 안전정보·원료보고 코드 제출·기재 부담 완화 ◗ 동물실험 면제 확대 ->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원료 사용 일반화장품도 독성학 시험보고서 면제 ◗ 일반무역 전환 가능성-> 원료코드 부담 및 동물실험 자료 부담 완화로 일반무역 비안 진출 여건 개선 ◗ 다만 신원료로 판정될 경우 -> 등록 · 비안 기준 여전히 존재	✓ 신원료 판단 기준은 종전과 동일 → DKMEX의 IECIC 등재 여부·제조공정 확인 필수 ✓ 정부 발급 GMP 증명 + 안전성평가 필요 ISO22716 단독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DKMEX 신원료 여부, 경내책임자·중문 라벨·검사·효능자료 등 사전 검토 필요 ✓ 신원료로 판정될 경우 등록·비안 및 3년 안전성 모니터링 부담이 남아 있어, 일반무역 전환 전 신원료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제 유의사항

중국 화장품의 안전성평가보고서 및 신규 원료목록 규정 전면 강화 · 의무화 (2025년 시행)
원료 등록 및 안전성 평가 의무 확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화됨

안전성평가보고서, 화장품 원료목록 규정

▹ **안전성평가보고서 ('25.05)**

-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강화)버전 의무화
  2025년 5월 1일 시행 (1년 유예된 것임)
  화장품안전평가관리최적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 ('24.4월 제50호)
- 완전판 이후 3대 추가 시험
  화장품 안정성 · 방부력 · 포장재 호환성 평가 보고서
- '25년 5월 1일 이전 - 기존 간소화 버전 '평가보고서' 제출

▹ **화장품 원료목록 규정 ('25.06)**

- 화장품 원료 목록을 I·II로 구분해 관리하며, 신원료는 3년 안전 모니터링 후 문제 없을 경우 목록에 포함
- 목록은 동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향후 공식 플랫폼을 해 공개
-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목록》I로 관리하고,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신원료는 《목록》II로 관리

화장품 안전 통용 요구사항 의견수렴

▹ **검측 기준 변경 (GB 7916-202X)**

- 눈 화장품, 립 화장품 및 어린이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 보다 미생물 한도 엄격

2027년 1월 1일	미생물, PFAS, 1,4-다이옥산
2028년 1월 1일	Lilial, D4, 방부·항균제,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대부분 사용금지

► **2026년~2027년이 실제 준비 마감 시점**
중국 화장품 규제가 EU·글로벌 기준과 본격적으로 정합
기존에 "중국에서는 가능했던 성분"이 단계적으로 불가/강화

▹ **현 시행 특수화장품(5종)**
염모, 퍼머/미백(기미 제거)/자외선 차단/탈모 방지/신규 효능 제품

자료: 중국 국가의약감독관리국

중국 의료기기 인증 유의사항

고주파 미용기기 중국 진출, 핵심은 '미용기기' 명칭이 아닌 실제 작용원리·사용목적에 따른 제품 분류

신규 진출에 따른 기업 이슈 발생

- 중국내 제품 분류 필요성 →
  NMES·RF·Plasma가 결합된 3-in-1 제품으로, 구조·작용원리·사용목적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필요
- RF 기능의 의료기기 해당 가능성 →
  피부·피하조직에 RF 에너지를 작용시켜 주름·리프팅·피부탄력·지방감소 등을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
- 중국 내 의료기기 등록 여부 확인 →
  의료기기 제 3등급에 해당 시 중국 수입 전 NMPA 등록 필요





FTA 센터를 통한 정책 설명

- **의료기기 분류 기준** → 제품 구조·구성, 작용원리, 사용목적 및 원산국 허가·승인 내용 등을 종합해 의료기기 여부 및 등급 판단
- **RF 미용기기 관리** → 일부 RF 제품은 제3류 의료기기로 관리, 복합기능 제품은 기능별 위험도 중 가장 높은 등급 적용
- **제3등급 등록 절차** → 제품 분류 → 시험 → 임상평가/임상시험(필요 시) → NMPA 등록심사 → 등록증 발급

* 참고자료: 「고주파 치료기 및 고주파 피부치료기 제품의 분류·등급 지정 해설」(중국 약품검정연구원 '24.3.27.)

기업 유의사항

- 단순 '미용기기' 명칭만으로 비의료기기 판매 불가 → 실제 기능·효능·광고·설명서까지 종합 검토 필요
- RF 기능의 작용원리·사용목적 사전 확인 → 의료 목적의 효능·치료 표현이 있으면 의료기기 분류 가능성 존재
- 등록 기간·비용 사전 검토 → 임상시험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제품 분류와 임상 필요 여부 우선 확인 필요

자료: 중국 약품검정연구원

중국 의료기기 인증 유의사항

중국 의료기기는 1-3 등급 체계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임상시험 품목 또는 면제 품목으로 나누어짐.
중국 의료기기 법정 대리인 제도 및 NMPA 등록 · 변경 수수료

중국 의료기기 등급 분류

◎ 중국 1-3등급 체계

- 제품 위험도에 따라 등급, 임상시험 여부 결정

분 류	제품 구분	임상시험	NMPA
1등급	**낮은 위험도** 일반관리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면제	신고
2등급	**중등 위험도** 엄격한 통제관리를 통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면제	등록 승인
		임상	
3등급	**높은 위험도** 특별 조치로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	면제	
		임상	

◎ 중국 NMPA 등록을 위해 「법정대리인」(중국소재 법인) 지정 필수임.

- (지정 권고) 韓회사의 자회사 > 신뢰기관(등록기간 임시 KTR 등) > 수입·유통회사

의료기기 등록 기관 및 수수료

◎ NMPA 등록 · 변경 수수료

- 수입산 의료기기에 대해 과도한 행정등록비(무역기술장벽)를 부과

항목 분류		중국산 제품	수입산 제품
II등급	최초 등록	省별 별도 제정	RMB 210,900
	등록 변경	省별 별도 제정	RMB 42,000
	등록 연장(매 5년)	省별 별도 제정	RMB 40,800
III등급	최초 등록	RMB 153,600	RMB 308,800
	등록 변경	RMB 50,400	
	등록 연장(매5년)	RMB 40,800	
	임상시험심사 비준(高리스크)	RMB 43,200	

자료: 중국 국가의약감독관리국

중국 CCC 강제인증 유의사항

반려동물 드라이기 중국 수출·CCC 인증 시료 통관 애로

시료 통관 따른 기업 이슈

- CCC 인증용 시료 통관 신고 반려 → CCC 인증 신청을 위해 시료 4대를 중국으로 발송했으나 개인물품 방식 신고 및 CCC 면제 증명 미비 등으로 통관 불가 통보 받음.



FTA 센터를 통한 애로 해소

- CCC 인증 시료 통관 애로 해소-> 현지 인증기관·관세전문가·통관회사와 긴급 협의, 통관방식 및 CCC 면제증명 구비사항 확인
- CCC 인증서 미비 관련-> 해당 제품은 시료 샘플이므로 CCC 면제증명서 발급하여 해결
- 일반화물 전환 통관 지원→ 개인물품이 아닌 일반화물 방식으로 통관 자격을 보유한 현지 통관회사를 연계하여 통관 완료 지원

기업 유의사항

- CCC 인증용 시료는 사전 준비 필수 → CCC 인증 시험용 샘플은 CCC 면제 증명서를 사전에 신청·취득하고 관련 증빙 구비 필요
- 개인물품과 상업성 시료 구분 → 상업성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화물 방식으로 통관해야 하며, 개인우편물 한도 초과 시 화물통관 또는 반송 필요
- 통관방식·인증요건 사전 확인 → 시료 발송 전 수취인 유형·물품가격·CCC 적용 여부·면제증명을 사전 점검

중국 CCC 강제 인증 유의사항

CCC 강제인증 개요 및 대상 제품군 (전기전자제품 등 17개 제품군)

CCC 강제인증 개요

CCC 강제인증 대상: 어린이 완구, 조명기기, 전기전자제품 등

-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한국 KC, EU CE 인증과 유사
- 전기전자제품 등 **17개 제품군**에 대한 중국의 품질·안전 강제인증 제도
-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내수 생산·수입)되는 대상 품목은 반드시 중국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CCC 인증서를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해야 함
- 중국 국가표준 GB(国家标准) 규격에 따라 시험·심사·평가 후 인증서 발급
- CCC 인증서 유효기간 5년 (기한 만료 전 연장 신청)

전기전자제품 등 17개 제품군

01	전선·케이블	02	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기장치
03	저압전기	04	소출력 전동기
05	전동공구	06	전기용접기
07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08	전자제품 및 안전부속품
09	조명전기	10	차량 및 안전부속품
11	농기계 제품	12	소방제품
13	안전방범제품	14	건축자재 제품
15	아동용품	16	방폭전기
17	가정용 가스기기	총 17개 제품군 (세부 품목은 목록 개정 시 조정)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최근 중국 CCC 강제 인증 유의사항

보조배터리 등 11종 : CCC 인증마크에 추적 QR코드 의무화 → '26.3.1 단계 시행 / '27.3.1 전면 시행
자동차부품·용접기 등 16종 : 자가적합선언 → 제3자 CCC 인증 전환 → '26년 말까지 전환 필수

보조배터리 등 11종 CCC 표시제도 개편

핵심 변경
- CCC 인증마크 오른쪽에 「추적 QR코드」 추가 의무화
  - QR코드 스캔 시 인증 정보 즉시 조회 가능

대상 품목 (3개 분야, 11종 제품)
- 충전 보조배터리
- 전기자전거 및 관련 안전부품
- 가스 연소기구 및 관련 안전부품 등

시행 일정
- **2026.3.1**~ 신규 CCC 인증 취득 제품부터 단계 적용
- **2027.3.1**~ 모든 11종 대상 제품에 전면 의무 적용
  미부착 제품 출고·판매·수입 전면 금지

QR코드 조회 정보
- 인증서 번호·유효기간 / 생산자·제품 규격·모델 / 인증기관 등

기대 효과
- 인증마크 위조·변조 방지 및 제품 품질·안전 관리 강화

자동차부품·용접기 등 16종 인증방식 강화

핵심 변경
- 기존 「자가적합선언」 방식 → 지정 인증기관 「제3자 인증」으로 상향
- CCC 인증서 취득 + CCC 마크 표시 의무화

대상 품목 (2개 분야, 16종)

전기·용접 분야 (7종):
- 퓨즈, 소형 전동기, 전동드릴·그라인더·헤머
- 직류·TIG/MIG/MAG 아크용접기, 플라스마 절단기

자동차 분야 (9종):
- 안전유리·안전벨트 / 외부 조명 및 광신호장치
- 간접시야장치 / 좌석 및 헤드레스트 / 운행기록장치 / 차체 반사표지

전환 일정
- 2026.7.1~ 지정 인증기관의 CCC 인증 신청 접수 개시
- 2026.12.31~ 기존 제품 CCC 인증서 전환 완료
- 2027.1.1~ CCC 미인증 제품 출고·판매·수입 금지
  기존 자가선언 제품도 2026년 내 전환 준비 완료 필수

자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 비관세 장벽 주요 인증

중국 수출 주요 품목별 인증 내용

구분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보건식품 '블루햇' 비안·등록	화장품 비안·등록	의료기기 비안·등록	전기·전자 CCC 인증
허가기관	해관총서(GACC)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CNCA 지정인증기관 (CQC 등)
관리방식	해관총서령 제280호 기준 (2026.6.1 시행)	비안(备案) 등록(注册)	일반: 비안 특수: 등록	1등급: 비안 2·3등급: 등록	강제성 제품인증 (CCC 목록 대상)
성격·마크	의무	의무 保健食品	의무	의무	의무
주요 적용제품	수입식품 전반 (식품첨가물·관련제품 제외)	영양보충제(비안) 기능성 제품(등록)	일반·특수 화장품	의료기기(1~3등급)	전기·전자 등 목록 지정 품목
신청주체	해외 제조업체 (17개 식품군 소재국 당국 추천)	해외 제조업체 (중국 내 대리인 경유)	해외 등록인·비안인 → 중국 내 책임자 대행	해외 제조업체 → 중국 내 대리인	제조업체·수입업체· 판매업체
획득 소요기간	민간 품목: 약 1개월 좌우 정부추천 품목: 수개월	**비안: 약 1년 좌우** **등록: 1년 6개월~3년**	일반: 3~7개월 특수: 10~12개월	1등급: 4~6개월 2·3등급: 2~3년	공식 60~90일 실무 4~6개월
정부 수수료	행정 비용 없음	행정 비용 없음	행정 비용 없음	2등급: 21.09만 위안 (약 4,556만원) 3등급: 30.88만 위안 (약 6,670만원)	신청비: 500위안(약 10.8만원) 공장심사: 2,500위안/인·일 (약 54만원) 등록비: 800위안(약 17.3만원), *시험비 별도
유효기간	5년 (요건 충족 시 자동연장)	등록증 5년 (비안은 해당 없음)	특수 5년 (비안은 해당 없음)	2·3등급 5년 (1등급 비안은 해당 없음)	5년

자료: 중국 중국 해관총서 · SMAR·NMPA ·CQC 등

21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적용 가능 여부

» 한중 FTA는 특혜관세 적용 대상 원산지 상품을 당사국 간 직접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제3.14조)

- 상품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그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홍콩은 별도 관세영역으로 비당사국에 해당)

·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이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가능 여부

구분	한중 FTA	RCEP	APTA
발급 시기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 근무일 이내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 내
소급 발급	선적일부터 1년 이내		소급 발급 불가

* 자료: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사이트(https://fta.mofcom.gov.cn/)

홍콩 경유 수출 시 FTA 활용 애로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자무역 RCEP 활용 애로사례

기업개요 필기구업체 B사

1 중국산 필기구 제품 수입 후 창고에 보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재수출 시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2 중국업체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거부 사유: 기존 수출시 이미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현재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

기업은 사실 여부 불확실로 광저우FTA센터 지원 요청

수출 애로 사항

RCEP 소급 발급



» RCEP 원산지증명서 규정 안내

-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 소급 발급 가능
-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영향 없음

FT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RCEP 0% 적용

무역 구조 안정화

» RCEP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성공

» RCEP 협정세율 0% 적용

» 3자무역 구조 안정화

성과

25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담당기관: 중국 해관총서
» 비용: 무료
» 신청시기: 화물 예상 수출입 3개월 전까지 신청
*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권자:
- 수입 화물 수취인 또는 수출 화물 발송인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린강신구 포함) 내 수취인과 화물 판매계약을 체결한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
* 해외 신청인은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 접수 여부 판단: 신청서 및 자료 접수 후 10일 내
- 결정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 유효기간: 결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신청 자료: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기업 수출입 계약서
» 상품 설명서(상품명, 규격/모델, 원리, 기능, 용도 등)
» 필요 시 해관에서 추가 요청하는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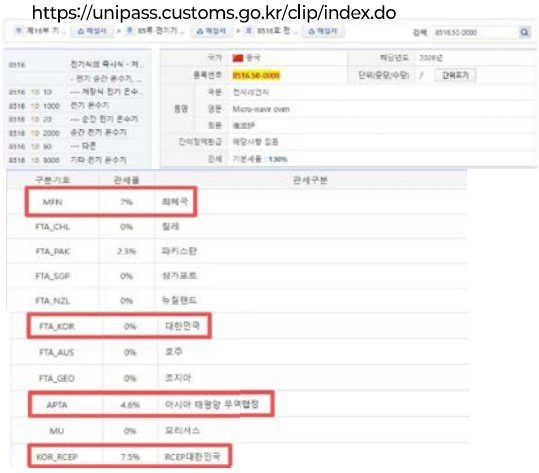
* 자료: 중국 해관총서(https://online.customs.gov.cn/treeGuid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중국 수입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중국 수입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방법①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관세청 FTA포털



중국 수입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중국 수입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방법②

»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사이트

https://ftatax.mofcom.gov.cn/wmsw/tariffSearch



»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https://www.singlewindow.cn/#/vcdServerDetail?id=pi1



06 참고사항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중국 현지 주요 기관 참고 사이트

» 중국 상무부: 무역정책 수립, 대외무역 관리, FTA 협정 관리
https://www.mofcom.gov.cn/index.html

»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 관리, 관세 징수, 원산지 관리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index.html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록 및 감독 관리
https://www.nmpa.gov.cn/index.html

» 중국 시장감독관리국: 시장 관리, 품질 감독
https://www.samr.gov.cn:8085/

» 중국 국가표준위원회: 국가표준 제정
https://www.sac.gov.cn/

»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사이트: FTA 협정 정보, 관세율 조회,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https://fta.mofcom.gov.cn/

31

감사합니다

베이징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신송옥 대리 (shensy23@kotra.or.kr)
광저우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황기 대리 (kikihuang@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

도쿄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의종 계장
(ej.lee@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일본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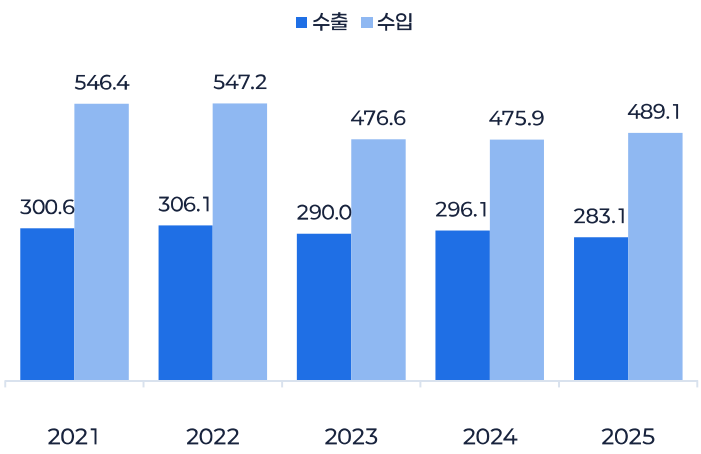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일 교역 동향

'26년 수출 회복세 전환, 對日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 구조

한국의 對일본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① 2025년 실적

수출 **283.1억$** △4.4%　수입 **489.1억$** +2.8%

석유제품·철강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 반도체·장비 수입은 증가

② 2026년 1~8월 누계 NEW

수출 **214.2억$** +14.2%　수입 **364.4억$** +13.2%

- 3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 : 3월 +35.2% → 4월 +29.4% → 6월 +14.6% → 8월 +12.9%
- 품목별 : 반도체 +113%, 금은·백금 +81%, 합성수지 +26%, 석유제품 +10%, 화장품 +9% / 철강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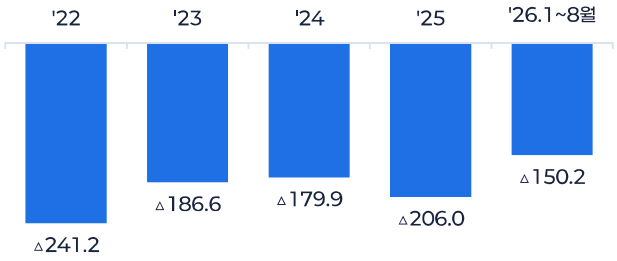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연간 및 2026년 8월 누계, 2026.9. 조회), 산업통상부「2026년 8월 수출입동향」(월별 증감률),「일본 경제 주요지표」/ 수입은 한국의 對일 수입 기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일 교역 동향

'26년 수출 회복세 전환, 對日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 구조

무역수지(수출-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무역수지(수출-수입) : '22 △241.2 → '23 △186.6 → '24 △179.9 → '25 △206.0 → '26.1~8월 △150.2억 달러

교역 규모('25) 772.2억 달러 · 일본은 우리 총수출(7,094억 달러)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시장

③ 교역 구조의 특징

01 對日 **고의존 품목** - 반도체·제조장비·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구조가 만성 적자의 원인

02 수출은 석유·철강·화학 등 산업재 중심이지만,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가 새로운 성장축**

03 관세보다 **통관·인증·표시 요건**이 소비재 확대의 관건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연간 및 2026년 8월 누계, 2026.9. 조회), 산업통상부「2026년 8월 수출입동향」(월별 증감률),「일본 경제 주요지표」/ 수입은 한국의 對일 수입 기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對일본 주요 수출입 품목

'26년 반도체 +113%로 2위 부상, 소재·소비재도 증가세

'26 순위	품목명	'25년 수출액	증감률	'26.1~8 수출액	증감률	'25 순위
1	석유제품	5,384	△21.7	4,031	9.7	1 –
2	반도체	1,275	12.2	1,709	113.2	3 ▲
3	철강판	2,118	△15.4	1,321	△9.8	2 ▼
4	금은 및 백금	982	△5.6	1,024	80.5	5 ▲
5	비누·치약 및 화장품	1,093	4.8	779	8.7	4 ▼
6	합성수지	881	6.5	741	25.7	6 –
7	정밀화학원료	682	0.9	609	36.1	9 ▲
8	반도체 제조용 장비	723	33.5	577	13.5	8 –
9	플라스틱 제품	597	0.7	493	22.7	10 ▲
10	컴퓨터(SSD 등) 신규	489	20.2	416	20.5	13 ▲

총수출 '24년 29,607(+2.1%) → '25년 28,308(△4.4%) → '26.1~8월 21,423(+14.2%) 백만 달러 · 의약품('25년 7위)은 '26.1~8월 404(+9.9%)로 11위
對日 수입('26.1~8월) 36,440(+13.2%) : 반도체 6,738(+22.0%) · 반도체 제조용 장비 5,300(+27.9%) 등 AI 투자에 따른 장비·소재 수입 증가 → 무역수지 △15,017

5대 유망 소비재의 對日 수출 변화 (억 달러)

품목	2015	2025	증감
농수산식품	17.8	16.4	△8%
화장품	1.4	10.9	+679%
생활·유아용품	6.5	6.1	△6%
의약품	3.9	7.4	+90%
패션의류	4.6	2.6	△44%
합계	34.2	43.4	+27%

'식품 중심'에서 '뷰티·헬스 중심'으로 수출 구조 재편

시사점

- **반도체**는 AI 메모리 수요로 '26.1~8월 +113%, 3위→2위. **금은·백금**도 금값 상승으로 +81%(4위)
- **화장품**은 '22년부터 일본 수입화장품 1위, '26년에도 +8.7% 증가세(순위 4→5위는 금은 급증 영향). 합성수지·정밀화학 등 소재도 두 자릿수 증가
- **철강판**은 2위→3위(△9.8%), '26.8부터 일본 측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중(III-4) · **컴퓨터(SSD)** 10위 신규 진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품목별 국가 수출입」(MTI 3단위·일본, 2025년 12월 누계 및 2026년 8월 누계, 2026.9. 조회 / 2026.5. 개정 MTI 체계 기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일 FTA 현황

RCEP이 유일한 특혜협정, 일본은 '저관세·고요건' 시장

83% 일본의 RCEP 양허 대상 9,091개 품목 중 관세철폐(즉시~20년) 비중 (품목수 기준)

81.2% 對일본 RCEP 특혜대상 수출의 RCEP 활용률('26.2분기) 화학 90.1 · 플라스틱 84.7 · 철강금속 82.5% / 전체 FTA 85.4%

0% 화장품(HS 3304) 등 다수 소비재의 실행관세율 →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불필요

한-일 통상협정 현황

RCEP	한-일 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협정** · 한-일 발효 2022.2.1.(15개국 서명) 일본은 매년 **4월 1일** 단계 인하('26.4.1. 인하분 적용 중), 2025.1.1.부터 한-일 간 **수출자·생산자 자기신고** 시행
한-일 양자 FTA	2003~04년 6차 협상 후 **중단** · 이후 실무협의만 진행, 재개 미정
한중일 FTA	2012.11 협상 개시 → '19.11 16차 이후 공식 협상 미개최(**정체**), '24.5 정상회의·'25.3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가속화 논의만 지속
CPTPP	한국 **가입 검토 —** '26.1 한일 정상회담(나라)에서 논의, 산업통상부 '26.9 농어업계 자문회의 등 업종별 의견수렴 진행 → 가입 시 사실상 한일 FTA 효과

일본의 EPA/FTA 네트워크 — 제3국 수출 시 고려

'26.9 기준

- **22개 협정 · 51개 국가·지역**과 EPA/FTA 발효·서명 — 일본 교역의 **78.5%** 커버(협상 중 포함 86.9%, 외무성 '26.7) ※ 한국은 23건 60개국
- **주요 협정 :** CPTPP(12개국, '24.12 영국 가입·'26.5 코스타리카 가입협상 실질 타결) · 일-EU EPA · 일-영 EPA · RCEP · 일-미 무역협정 · 일-ASEAN·인도·호주·스위스·몽골 EPA 등
- **'26년 동향 :** 2월 일-방글라데시 EPA 서명(첫 LDC 양자 EPA) · 3월 일-UAE CEPA 타결(중동 첫 양자 EPA 전망) · 6월 일-메르코수르 협상 개시 합의 · GCC·튀르키예 협상 가속 · 8월 일-인니 EPA 개정 의정서 발효 — 자원국·글로벌사우스로 확대

- **활용 포인트 :**

① 일본 내 생산·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일-EU EPA·CPTPP 등 일본 협정망 활용
② RCEP **누적 원산지로** 한일 분업 설계
③ 일본 바이어 재수출 수요에 대응한 원산지 서류 관리
④ 일본산 소재 수입의 RCEP 활용률은 41.9%에 불과 → 일본 공급사에 원산지증명 요청 시 관세 절감 여지

→ 일본 시장의 실질적 장벽은 '관세율'보다 **신고가격(관세평가) · 원산지증명 · 쿼터 · 인증·성분 · 표시 요건**입니다. 관세가 0%인 화장품도 서류 한 장, 라벨 한 줄로 세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자료 :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2026년 2분기 FTA 활용지도」(RCEP 양허·활용률), 「일본의 통상협정 체결 현황」(일본 외무성 자료 기준), 일본 실행관세율표, 재무성 관세국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 시장 트렌드

넓게 열린 문,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

26.1 조 엔

일본 BtoC 전자상거래(EC) 시장 규모('24)

- 전년비 +5.1%, 물판 분야만 15.2조 엔
- 역직구·현지 EC 입점 등 진출 경로 다양

30.8%

일본 수입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점유율('25) — 4년 연속 1위

- 수입액 1,418억 엔 · 2위 프랑스 22.8%
- '22년 프랑스 추월, '26.1분기 33.5%(약 400억 엔)로 격차 확대

9.5 조 엔

방일 외국인 소비액('25, 역대 최대)

- 방일객 4,268만 명(+15.8%) 첫 4,000만 돌파
- 방일객 1위는 한국(946만 명)

기회의 이면 엔저·물가 상승으로 일본 바이어와 소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격에 민감 → **RCEP 관세혜택 + 트러블 없는 통관·납기**가 곧 가격경쟁력이자 신뢰입니다.

자료 : 경제산업성「전자상거래 시장조사」(2025.8.), 일본수입화장품협회(2025년 수입실적), JNTO·관광청(2026.1.),「음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대강」(2026.9.15. 각의결정), 일본성장전략회의(2026.6.)

41

02 중국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 시장 트렌드

넓게 열린 문,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

01 소비의 이원화

- **가성비 실속형** vs **자기만족 프리미엄**으로 분리, 특징 없는 중간가격대는 양쪽에서 외면
- '25년 CPI +3.2%, 식료품 물가 +6%(2만여 품목 인상), 실질임금 지속 하락 추세 → PB · 대용량·저가로 이동

→ 명확한 포지셔닝 없이는 생존 어려움

02 1인 가구·초고령화

- '50년 1인 가구 비중 **약 44%**, 65세 이상 인구 29%('25) — 세계 최고 수준
- 소포장·소용량·프리미엄 간편식, 만성질환 관리·면역 등 **건강기능식품·OTC** 수요 구조적 증가

→ '프리미엄 혼밥'(500~800엔 원플레이트 냉동식품)·PB 상품 시장 급성장

자료 : 경제산업성「전자상거래 시장조사」(2025.8.), 일본수입화장품협회(2025년 수입실적), JNTO·관광청(2026.1.),「음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대강」(2026.9.15. 각의결정), 일본성장전략회의(2026.6.)

42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 시장 트렌드

넓게 열린 문,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

03 디지털 유입 → 오프라인 안착

- Qoo10·라쿠텐·아마존에서 **랭킹·리뷰로 검증** 후 드럭스토어·LOFT·돈키호테 등 오프라인 매대로 확산하는 O2O가 표준 경로
- 성분·함량·근거자료가 구매 키워드(나이아신아마이드·세라마이드 등) — 광고 이미지의 설득력 약화

→ 온라인 성과지표를 만드는 마케팅 설계가 선행되어야

04 정책 변수 (2026~28) NEW

- **식료품 소비세 8% → 1%** : '27.4.1~'29.3.31 한시 인하 예정('26.9.15「음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대강」 각의결정, 10월 임시국회 법안) → 수입소비세 동반 인하 전망
- 17대 전략분야 관민투자 누계 370조 엔 초과 (~'40) : AI·반도체 68조, 데이터센터 32.7조, 콘텐츠(게임) 24.5조 엔
- 소액수입(1만엔 이하) 면세 재검토('28.4 목표), 제품안전4법 개정 시행('25.12) →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중

자료 : 경제산업성「전자상거래 시장조사」(2025.8.), 일본수입화장품협회(2025년 수입실적), JNTO·관광청(2026.1.),「음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대강」(2026.9.15. 각의결정), 일본성장전략회의(2026.6.)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진출 유망 품목

소비재는 '성분·기능·가성비', 산업재는 '17대 전략분야'

K-뷰티 (화장품)

對日 수출 1.4→10.9억$ ('15→'25, +688%) · 일본 수입화장품 1위

- 성분 특화 스킨케어(나이아신아마이드·세라마이드), 색조·베이스·립 등 메이크업 확장
- 선케어·시트마스크(부적합 사례 多 — 사전 성분검사)
- 인디 브랜드 → Qoo10 메가와리 → 드럭스토어 확산 경로

유의 규제 약기법(제조판매업·성분·라벨) · 의약부외품 구분 → III-6·7

K-푸드 (식품·주류)

對日 수출 16.5억$ ('25) · 정체 속 '한국산' 프리미엄화 과제

- 냉동·간편식·원플레이트, 소포장(1인 가구), 소스·장류·김·라면
- 기능성표시식품 중 정제·캡슐 등 서플리먼트 형상 제품은 일본 GMP 요건 확인, 무알콜·저당 등 건강 지향
- 3대 편의점 '한국 미식 페어' 정례화, 한식 외식 프랜차이즈 동반 진출

유의 규제 식품위생법·식품표시법 · 김 IQ · 소비세 8→1% → III-4·8

생활용품 · 패션

생활·유아용품 6.9억$ · 패션의류 2.6억$ ('25) — 가격보다 '가치'

- 기능성 의류(UV·냉감·흡습속건) 일상화, 리세일 가치 있는 브랜드
- 위생·편의·'귀찮음 제거' 생활용품, IRIS 오야마 등 OEM·PB 협업
- 히어로 상품 1~2개 집중, 반복 구매 설계

유의 규제 가정용품품질표시법 · 제품안전4법(PS마크) · 경품표시법 → III-5

의약품 · 바이오

對日 수출 3.9→7.8억$ ('15→'25, +102%)

- 바이오시밀러·제네릭 : 日 정부 '29년 제네릭 수량 80%·금액 65% 목표
- OTC : 한방·허브 성분, 1회분 포장 등 '간편성'
- 폐쇄적 도매 구조 → 日 제약사 파트너십(메디포스트-제국제약 사례)

유의 규제 약기법 승인·약가제도 → 파트너 필수

소부장 · 산업재

17대 전략분야 관민투자 370조 엔(~'40) · 반도체 68조 · 데이터센터 32.7조 엔

- 반도체 장비·소재·후공정(對日 장비 수출 '25년 +33.5% → '26.1~8 +13.5%)
- 데이터센터 전력·냉각·축전지, GX(수소·페로브스카이트·그린철)
- AI 로봇 부품(감속기·모터·센서), 조선(LNG선) 기자재

유의 규제 JIS·PSE·기술적합 · 철강 반덤핑 잠정관세·조사 · ETS('26) → III-4·5

디지털 · 콘텐츠 · 서비스

게임·콘텐츠 24.5조 엔 투자(~'33) · K-웹툰 플랫폼 日 상위권

- 웹툰·게임·OTT 연계 IP 상품(캐릭터 로열티 → 과세가격 유의)
- 미용의료 플랫폼·헤어·K-라이프스타일 서비스
- 디지털 서비스는 '25.4 플랫폼 소비세 과세 대상

유의 규제 소비세 플랫폼 과세 · 개인정보보호법(APPI) · 저작권

자료 :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 수입통관의 흐름과 수입허가 6대 요건

3대 리스크는 '가격·원산지·타법령'

화물 도착 →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NACCS) → 세관 심사·검사 → 관세·소비세 납부 → 수입허가 ·인수 → 국내시장 유통

† 세관은 '수입허가' 전에 아래 6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67조·제70조·제71조 등)

①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
신고 자격·절차·시기 등 형식 요건

② **신고 내용과 화물이 동일할 것**
과세표준·세번(HS)·적용세율·세액의 적정성 포함 → 관세평가·품목분류 [III-2]

③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 화물이 아닐 것**
브랜드 본사 국가명·외국어 문구도 점검 대상 → 원산지 규정·표시 [IV-2]

④ **관세법 이외 법령의 증명·확인 완료**
식품위생법·약기법·전안법 등 '타법령 확인' = 인증·검역 [III-5~8]

⑤ **수출·수입이 금지된 화물이 아닐 것**
마약·위조품·특정 수산물(IQ 미승인) 등 [III-4]

⑥ **관세 등을 납부하였을 것**
관세·소비세(10%, 식료품 8%) 납부 후 허가

붉게 표시한 ② 신고가격 · ③ 원산지 · ④ 타법령 확인 — 이 세 가지가 오늘 다룰 리스크의 전부입니다.

비관세장벽(NTB)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막거나 늦추는** 제도와 절차의 총칭

- 통관절차 · 관세평가 · 원산지규정 · 쿼터(수량제한) → III-1~4
- 기술규제(TBT) · 위생검역(SPS) · 표시 규제 → III-5~8

일본의 특징은 규제의 '개수'가 아니라 촘촘한 요건과 엄격한 운용

통관 지연의 실제 비용

보세창고 보관료 발생 → 납기 지연 → 최악의 경우 **반송(Ship-back)** · 특급운송비 · 전시회 납품 실패

→ **사전교시 한 번의 비용 ≪ 반송 한 번의 비용 [V-2]**

관세가 0%인 화장품도 서류 한 장, 라벨 한 줄에서 화물이 멈춥니다. 우리 기업을 막는 것은 관세율이 아니라 '절차와 요건'입니다.

자료 : 일본 관세법 제67조·제70조·제71조, 일본세관「輸入通関手続の概要」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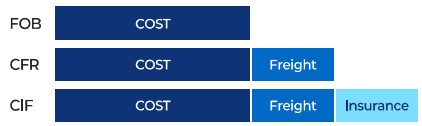
과세가격(관세평가)

인보이스 가격 ≠ 과세가격, 통관 후 사후조사까지 이어집니다

원칙 : 일본 수입신고가격 = CIF 기준

- 관세정률법 제4조에 따라 인보이스 가격에 가산·공제를 반영한 '현실지급가격'이 과세가격
- FOB·CFR 계약이면 운임·보험료를 더해 신고, 외화는 세관 공시환율로 엔화 환산
- 소비세(10%, 식료품 8%)도 '과세가격 + 관세'를 기준으로 부과

무역조건별 신고가격 구성



COST = 원재료비 + 제조비용 + 인건비 + 수출자 이익 → 일본은 CIF 기준

과세가격에 가산(+)
- 운임·보험료(FOB·CFR)
- 매수인 무상·저가 제공 원재료·금형·공구
- 기술·디자인 비용(어시스트)
- 수입거래 조건인 상표권·특허 로열티

과세가격에서 공제(−)
- 수입 후 일본 국내 운송비
- 수입 후 건설·설치·정비 비용
- 일본에서 납부하는 관세·소비세

1	**운임·보험료 미가산** FOB 계약인데 운임·보험료 없이 신고 → 세관 지적 → 정정 후 허가	계약 인코텀즈와 신고가격 구성 대조, 운임·보험료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2	**무상 제공 원재료·금형 누락 (OEM·임가공)** 日 수입자가 금형 무상 제공, 공장은 '상품대금+가공비'만 인보이스	유·무상 불문 매수인 제공 원재료·금형·기술·디자인은 해당 시 가산 대상 — 제공 사실·금액을 사전 공유
3	**별도 지급 로열티 누락 (IP 상품)** 판매액 연동 상표사용료를 따로 지급, 인보이스 미기재	수입거래의 조건인 로열티는 가산 — 아티스트·캐릭터 IP 상품 특히 주의
4	**특수관계(모자회사) 저가 인보이스** 그룹 내부 할인가 → 세관, 특수관계 영향 지적·가격 부인 → 재신고	특수관계 자체는 무방 — '통상 거래가격과 동등' 증빙(원가계산서·제3자 판매실적) 준비
5	**샘플을 '$1 For Customs Purpose Only'로 신고** 세관, 가격 부적절 판단 → 통관 보류(유치)·증빙 요구 → 인수 대폭 지연	무상 샘플도 정당 가격 신고 + 산출 근거 보관 → 면세가 필요하면 견본 면세(관세정률법 §14⑯) 신청
6	**완제품급 샘플을 '제조원가'로 신고** 검사에서 시판 가능 완제품 판명 → 통상 판매가격 기준 정정	포장·라벨이 제품판과 같으면 완제품 — 원가 신고는 합리적 증빙과 법정 평가순서에 따라 과세가격 산정미완성품·판매 불가 시작품에 한정

사후조사(事後調査)에서 적발되면 **부족 관세 +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통관 시점에 넘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 **계약 단계에서 '인보이스 금액 외에 오가는 돈이나 물건이 있는가' 이것만 점검해도 대부분 예방됩니다.**

자료 :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제4조의3·제14조, 도쿄세관「関税評価に関する事例」, 일본세관「輸入貨物の課税価格の決定」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전자상거래(EC) 통관

ACP · 풀필먼트 창고 신고가격 · 2025~28년 제도 변경

① 세관사무관리인(ACP) 지정 의무

- 일본에 주소·거소·본점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입자**가 되는 경우 ACP 지정·신고 필수(관세법 §95) — EC 직판이 대표 사례
- ACP의 업무 : 수출입 신고, 세관 조사 입회, 관세 등 납부, 서류 수령·제출, 환급금 수령 등 (통관업자·물류사·회계법인 등이 수임)
- 2023.10.1. 제도 재검토 : 신고항목 추가, 위임계약 관계서류 첨부, 세관장의 직권 지정제도 신설
- 단, **화장품·식품 등 타법령 규제 품목은 ACP가 수입자 자격을 대체할 수 없음** → 일본 내 허가 보유 수입 주체 필요 [III-5]

② 풀필먼트(FS) 창고 재고의 신고가격

- 해외 판매자가 일본 FS 창고(아마존 FBA 등)에 재고를 먼저 보내는 구조 → 수입 시점에 **'매매계약'이 없어** 통상 거래가격 적용 제한
- → **공제가격법(역산방식, 관세정률법 §4의3①)** 적용 *— 국내 판매가격에서 역산

* 법정 평가순서에 따라 판단하며,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공제가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과세가격 = 일본 국내 판매가격 − ① − ② − ③
① 국내 통상 이윤·일반경비 ② 국내 운임·보험료 ③ 수입 시 관세 등 조세

적용 전 관세평가 사전교시 + 평가신고 절차 필요 — 출하 전 세관과 협의

→ B2C 크로스보더만으로는 한계. **소량 테스트(B2C) → ACP 전환 → 본격 진출(B2B)**의 단계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일본 EC 플랫폼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판매 개시 전에 ACP·FS 구조와 신고가격 산정방식을 먼저 확정하십시오.

자주 받는 질문 — "ACP만 세우면 되나요?"

- 아닙니다. ACP는 세관 절차의 대리인일 뿐,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식품 수입신고 주체 등 **타법령상 수입자 자격은 대체 불가**
- EC 판매도 화물이 일본 국경을 넘는 순간 '**수입**' — 라벨·성분·PS마크 요건은 오프라인 수출과 동일하게 적용 (개인수입 특례는 수량·용도 제한)

제도 변경 타임라인 NEW

2025.10.12. 시행
수입신고 항목 추가
① 수입허가 후 화물의 운송처 소재지·명칭 ② 통신판매화물 해당 여부 ③ 해당 시 플랫폼 명칭 등 — ①·②는 모든 수입화물 대상

2025.12.25. 시행
제품안전4법 개정
PS마크 대상 제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사업자 = 특정수입사업자 → 사업신고·국내관리인 선임 의무 [III-5]

2028.4.1. 시행 예정
소액수입(1만 엔 이하) 면세 재검토
2026년도 세제·관세개정('25.12 대강)으로 결정 : 통판수입 1만 엔 이하 물품 소비세 과세(플랫폼 과세), 개인수입 과세가격 0.6 특례 폐지, 해외 판매사업자 등록·납세 — 세부 통관실무는 시행 전 정비 예정

자료 : 일본 관세법 제95조, 재무성「令和5年度 関税改正」(2023.10./2025.10. 시행),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 자민당·공명당「令和8年度 税制改正大綱」(2025.12.)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쿼터와 무역구제

IQ·TRQ, 그리고 일본의 한국산 대상 반덤핑 조사·조치 7건

수입할당(IQ) — 수량 자체를 제한

-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위법)** 근거 — 경산성「수입공표 제1호」 품목은 할당·수입승인 없이는 **수입 자체가 불가** (초과분 우회로 없음)
- **대상 :** 고등어·전갱이·정어리·꽁치·방어·오징어·가리비·다시마·김 등 수산물 +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
- **한국산 김 :** 한일 정부 합의로 할당 매년 확대('15년 12억 장 → '25년 27억 장). '26.1.19. 수입발표 기준 무당 조미김 6억 4,200만 장, 마른김·김조제품 한국실적할당은 한도 도달·마감
- 할당·승인 주체는 **일본 수입자** → **수산물 계약 전 바이어의 IQ 보유 여부부터 확인**
- 신청 시기·배분(실적할당·선착순)은 매년 수입발표로 공표 → 연초 일정 확인, 초과 물량 이월 불가

관세할당(TRQ) — 세율을 이원화

- 할당 수량 내는 무세·저율(**1차세율**), 초과분은 고율(**2차세율**) — 수입은 가능하나 관세 부담 급증
- **경산성 소관 4품목 :** 피혁 3종(우마혁 염색/기타 · 양·염소혁) + 혁제 신발(스포츠화·슬리퍼 제외)
- 농산물(버터·잡두 등) TRQ는 **농림수산성** 소관 — 품목별 소관 부처·할당 일정 확인

예) 혁제 신발(革靴)의 세율 구조
① 1차세율(할당 내) : 저율 ② 2차세율(할당 외) : 30% 또는 4,300엔/족 중 높은 쪽 ③ 할당 신청 : 일본 수입자가 경산성에 신청(연도별 공표)

품목분류 주의 — 쿼터 해당 여부는 HS 분류가 좌우. 수산물 원료 가공품(펫푸드 등)이 제03류로 오분류되면 IQ에 걸려 통관이 막힘 → **사전교시로 세번 확정 [V-2]**

무역구제(AD) — 일본의 한국산 대상 조사·조치 '26.9 기준

규제 중 3건 + 잠정관세 1건 + 조사 중 3건 = **7건** (철강판은 鋼材 3위 품목, '26.1~8 △9.8%)

규제 중	수산화칼륨 (韓·中) 韓 49.5% · '16.8~'26.8.12 일몰재심 중('25.12~)으로 종료 시까지 관세 **계속 부과**
규제 중	탄산칼륨 (韓) · 아연도금철선 (韓·中) 30.8%('26.7 5년 연장, ~'31.7.7) · 韓 9.8~24.5%(~'27.12.7)
잠정관세	용융아연도금 강판·강대 (韓·中) '25.8.13 조사개시 → '26.7.24 가결정(덤핑차액률 韓 32.5~42.7%) → **'26.8.8~12.7 잠정 AD관세 韓 29.2~38.0%**(POSCO 29.2%, 세아씨엠·동국씨엠 30.6%, 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 등 기타 38.0%), 中 50.1~55.3% · 본조사 ~'26.12.12 → 연내 최종판정 예정
조사 중	열연 / 냉연 강판·강대 (韓·中·台) '26.6.1 조사개시(원칙 1년) · 대상은 탄소·붕소 함량, 도금·피복, 두께 등 물품 요건 충족분에 한정(HS 7226.99 전체가 대상은 아님)
조사 중	비스페놀A (韓·台) '25.8.20 조사개시 · 조사기간 '27.2.19까지 6개월 연장
참고	Ni계 스테인리스 냉연 (中·台, 韓 미대상) 잠정 3.6~42.1%('26.7.9~11.8) — 경유 수출분도 부과 대상

→ 대상 HS·물품요건 해당 여부 확인 · 질문서 성실 대응(비협력 시 최고세율) · 수출가격·정상가격 자료 관리 · 잠정관세 담보·환급 규정 확인
※ '26.6.1 시행 반덤핑관세 우회방지제도 (제3국 경유·사양 변경 시 주의)
※ RCEP 무세 품목이라도 반덤핑관세는 별도로 추가 부과

쿼터는 '수량', 무역구제는 '가격'의 장벽 — 둘 다 **HS 분류와 서류(할당·가격 증빙)**가 좌우합니다. 애매한 품목은 선적 전에 세번을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자료 : 경제산업성「輸入公表」(2026.1.19.), 재무성 관세국 실행관세율표, 재무성 고시 제210·211·220호, 경제산업성 무역구제 보도자료(2026.6.1.·7.24.·8.4.)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증·기술규제의 구조

'타법령 확인'이 곧 통관 요건,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수입허가 요건 ④「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른 증명·확인이 이루어졌을 것」→ **인증은 별개 절차가 아니라 통관의 일부**
(세관사무관리인은 이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없음. 화장품·식품처럼 수입자 자격에 조건이 붙는 품목은 일본 내에 허가를 보유한 수입 주체 필요.)

품목군	소관 법령 · 기관	주요 요건 · 유의점
화장품 · 의약부외품	약기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 후생노동성 · 도도부현 · PMDA	제조판매업·제조업 허가, 외국제조업자 신고, 품목별 제조판매 신고(부외품은 승인), 성분 기준, 일본어 라벨·56향목 효능표현 → [III-6·7]
식품 · 건강식품 · 주류	식품위생법 · 식품표시법 후생노동성 검역소 · 소비자청 · 국세청	검역소 수입신고(§27), 첨가물·잔류농약·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식품표시기준, 기능성표시식품 GMP('26.9), 주류판매업 면허 → [III-8]
전기제품	전기용품안전법(PSE) 경제산업성	특정(◇PSE, 제3자 적합성검사) / 비특정(○PSE) 구분, 기술기준 적합·자주검사, 사업신고 → 일본 내 신고사업자(수입자·특정수입사업자) 필요
무선기기 · IoT	전파법(기술기준적합증명) 총무성	기술기준적합증명(技適) 마크 없는 무선기기는 원칙적으로 일본 내 사용 불가(시험·시연 등 특례 별도) — Bluetooth·Wi-Fi 탑재 제품 포함
소비생활용 제품 · 완구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PSC) 등 제품안전4법 경제산업성	특정제품 PSC 마크, 3세 미만 완구 등 어린이용 특정제품('25.12 신설), 해외사업자 국내관리인 선임 → [우측]
에어로졸 (스프레이·미스트)	고압가스보안법 경제산업성 · 도도부현	적용 제외 요건(내용적 1L 이하 + 35℃에서 0.8MPa 이하 등) 해당 시 통관 확인서류(시험성적서) 준비, 미해당 시 도도부현 수입검사(§22)
동식물 유래 성분 · 검역	CITES(워싱턴조약) ·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경제산업성 · 농림수산성	규제 대상 성분(사향·난초과 추출물 등) 포함 시 수출 건별 CITES PERMIT(환경부 발급, 평균 10영업일), 식물·육류 성분은 동식물 검역 병행

제품안전4법 개정 '25.12.25 시행

대상 4법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 전기용품안전법 · 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법(液石法) ※ 고압가스보안법은 별개

- PS마크 대상 제품을 온라인몰 등으로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사업자** = 「**특정수입사업자**」로 규제 대상 명확화
- 경산성 사업신고 · 기술기준 적합 확인·자주검사 · **국내관리인(일본 내 주소·일본어 대응) 선임·신고 의무** → 국내관리인 명칭을 표시
- 3세 미만 완구·유아용 침대 등 **어린이용 특정제품** 규제 신설(대상 연령·경고 표시)

우리 기업의 대응 순서

- ① 자사가 특정수입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직판 여부·PS 대상 여부)
- ② 국내관리인 선임 계획 수립(행정서사·물류사 등 대행 서비스 활용 가능)
- ③ 기술기준 적합 확인 및 PS마크 표시 체계 정비

배경 : 안전성 미확인 해외 제품의 온라인 유입 증가 → 일본 정부의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흐름의 상징적 사례

모든 품목은 **'분류 → 허가·신고 → 성분·규격 → 표시'** 구조가 동일 — 다음 3장에서 상담이 가장 많은 화장품·식품을 대표 사례로 살펴봅니다.

자료 : 경제산업성 제품안전과「製品安全4法改正の概要」(2025.12.25. 시행), 후생노동성, 총무성 전파이용 홈페이지, 고압가스보안법 시행령 제2조,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화장품 ① 분류와 인허가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은 일본에서 의약부외품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 — 화장품 / 의약부외품 분류 오류

구분	화장품 (化粧品)	의약부외품 (医薬部外品)
정의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약기법 §2③)	특정 목적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약기법 §2②)
예시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자외선차단 ('햇볕에 타는 것을 방지'는 화장품 56항목에 포함)	미백(멜라닌 생성 억제), 여드름 예방, 주름 개선, 제한제· 데오도란트 — **한국 '기능성화장품'의 상당수가 해당**
품목 승인	품목별 승인 불요 — 신고제	품목별 **후생노동대신 승인** 필요 (PMDA 심사, 수개월 소요)
HS · 주의	HS 3304 / 3305 / 3307 — 실행관세 0%	트라넥사민산·나이아신아마이드(미백 표방) 등 유효성분 함유 시 필수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4가지 허가·신고

1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化粧品製造販売業許可
일본 내 최종 책임 주체. 도도부현 약무 소관 부서에서 취득, 총괄제조판매책임자 상근 배치(약기법 §17)

2 화장품 제조업 허가
化粧品製造業許可
포장·표시·보관 구분. 일본어 라벨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제조'에 해당하므로 필수

3 외국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 신고
外国製造販売業者届 등
제출 주체는 일본 국내 제조판매업자(PMDA 경유). 한국 제조사 정보 등록, 제조사 변경 시 사전 변경신고

4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
化粧品製造販売届
품목별 도도부현 신고(승인 아님). 실제 판매 제품 기준, 사양·성분 변경 시 변경신고

분류 오류의 대가
통관 보류 → 보세창고 보관료 → 최악의 경우 반송(Ship-back). 한국에서 '화장품'이라도 일본에서는 화장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기법상 분류는 세관 '사전교시'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교시는 HS 품목분류·원산지·관세평가 등)
출하 전 **도도부현 약무주관과** 또는 일본 내 제조판매업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통관 시점의 실무

- 통관 전에 **제조판매업 허가증 사본 + 제조판매신고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 → 미비 시 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 장치 상태에서 자료 제출 후 재진행
- 허가 취득에는 인적 요건(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구조설비 요건과 유지 비용이 따르므로 진출 초기에 **자체 취득 vs 허가 보유 파트너(수입대행·총판·MAH) 활용**의 비용 편익을 함께 검토
- 통상 일반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 등 4~6개월, 의약부외품 승인 12~18개월 소요 → 출시 일정에 반영

자료 : 의약품의료기기등법(약기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17조, 후생노동성「化粧品の製造販売業許可」안내, PMD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화장품 ② 성분·라벨·광고

통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것은 '라벨 한 줄'

성분 규제 — 한국에서 되는 성분이 일본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 **후생노동성「화장품기준」**에 배합금지(네거티브)·배합제한 성분 규정
- 방부제·자외선흡수제·타르색소는 **포지티브리스트 등재 성분만 사용 가능** — 한국 허가 UV필터 중 일본 미등록 성분 주의(선케어)
- **포르말린** : 설비 세척 과정에서 미량 잔류 가능 → 배합금지 성분이므로 검출 시 행정조치·전량 회수
- **시트마스크** : 수입 화장품 성분 부적합 사례 다수 발생 원료가 많고 방부제 관리가 까다로움
- **성분표(Formula Sheet)** : 제조공장·상품명, INCI명, 배합량(%), CAS No., 사용 목적 — 배합량 기재 원본 PDF 보존, JCIA DB(약 16,800개 성분) 대조
- 개별 기업 단위의 규제 변경 청원은 불가(업계 차원 개정만 가능) — 처방 단계에서 일본 기준 대조

→ **수출 전 사전 성분검사 필수. 샘플과 실제 수출품의 성분·패키지·용기가 다르면 통관 문제 발생**

일본어 라벨 필수 기재사항과 자주 하는 실수

필수 기재 항목	근거	내용 · 자주 하는 실수
판매명(명칭)	약기법 §61	제조판매 신고 시 명칭 그대로 — 약칭·별칭 사용 불가
제조판매업자	약기법 §61	일본 내 허가 보유 업체명·주소 — **한국 제조사를 기재하는 오류**
전성분 표시	약기법 §61+고시	JCIA 표준 일본어 성분명, 배합량 순 — **한국 성분명 직역 → 명칭 불일치**
제조번호/기호	약기법 §61	로트번호(LOT) — 누락 빈번
사용기한	약기법 §61	후생노동대신 지정 제품에 한함 — 해당 여부 미확인
내용량	공정경쟁규약	g·mL 등 단위 표시 — 누락 빈번
원산국명	공정경쟁규약	제조 사업소 소재 국가명 — 누락 시 **원산지 오인표시**로 인결
사용상 주의·문의처	약기법 §62/규약	일본 소비자용 경고 문구 + 상담 연락처 — 한국 문구 번역만으로는 불충분

모든 법정 기재사항은 일본어로 표기 · 플라스틱·종이 등 대상 용기포장의 식별마크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資源有効利用促進法)에 따라 별도 표시의무가 있으므로 대상·면제 요건 확인

- A사 샘플용 제품을 라벨 미부착으로 발송 → 세관 검사 적발 → 통관 지연·추가 수수료 (샘플도 일정 수량을 넘으면 정식 수입)
- B사 전시회 납품분(증정용)을 미부착 출하 → 세관 검사 → 전시회까지 2영업일, 특급비용 발생 (전시회 출품도 일본어 라벨 필수)

광고 표현 규제 (약기법 §66) — 통관 뒤 판매 단계의 장벽

'25.3 특기표시 통지 개정

-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효과는 **56항목 범위 내** '주름 제거'·'여드름 치료'·'미백' 등은 금지(의약부외품·의약품 영역)
- 위반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 벌금(§85) + 대가 합계액의 4.5% 과징금** (산정액 225만 엔 미만은 부과 제외)
- 규제 대상은 '누구든지' — EC 셀러·인플루언서 등 포함, 상세페이지·SNS·리뷰 인용까지
- **2025.3. 특기표시 규칙 대개정**(후생노동성 의약감마발 0310 제3호) → 패키지·라벨·광고 문구 전면 재검토 필요
- 경품표시법(우량오인·유리오인)·건강증진법도 병행 적용 — 비교광고·'No.1' 표현은 근거자료 필수

→ **한국어 카피를 그대로 번역하면 대부분 위반**
일본용 광고 문구는 처음부터 제작 권장

자료 : 약기법 제61조·제62조·제66조·제85조, 후생노동성「化粧品基準」·「化粧品の効能の範囲(56項目)」,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JCIA) 성분표시명칭 DB, 화장품 공정경쟁규약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식품·건강식품

검역소 수입신고와 3중 포지티브리스트, 2026~27년 변경 사항

1 분류 · 수입 주체

食品衛生法 第27条 輸入届出

- 판매·영업 목적 식품은 **전량 검역소 수입신고** 대상 — 신고 주체는 일본 내 수입자(ACP 대체 불가)
- 건강식품은 성분의 **'의약품 해당성'** 선확인(전문성분·의약품 성분 리스트)
- 김·수산물은 IQ [III-4], 육류·유제품 성분은 동물검역, 신선 농산물은 식물검역 병행

2 신고 · 검사 (통관 전)

検疫所 審査 → モニタリング・命令検査 → 届出済証

- 수입신고서 + **원재료표·제조공정표**(필요 시 시험성적서) → 검역소 심사·검사 → 신고제증 → 세관 수입허가
- 도착 7일 전부터 사전신고 가능 · **첫 수입은 검역소의 수입사전상담(輸入相談) 권장**
- 위반 이력 품목은 명령검사(전 로트 검사, 비용 수입자 부담) 대상 →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

3 성분 · 규격 — 3중 포지티브리스트

添加物・残留農薬・器具容器包装

- **첨가물 :** 지정첨가물·기존첨가물·천연향료·일반음식물첨가물 사용 가능 — 한국 허용·일본 미지정 성분 주의(예: TBHQ)
- **잔류농약 :** 기준 미설정 시 일률 0.01ppm
- **기구·용기포장 PL :** 경과조치 '25.5.31 종료 → 포장재(합성수지) 적합 확인서 필요
- 소관 : 규격기준은 소비자청, 수입신고·감시는 후생노동성 검역소

4 표시 (식품표시법 · 소비자청)

食品表示基準 — 義務表示・アレルゲン8品目

- 명칭·원재료명·첨가물(용도명 병기)·내용량·기한·보존방법·원산국명·수입자·영양성분 5항목·알레르기 특정원재료 9품목(호두 '25.4~ 의무) 일본어 표시
- **잦은 실수 :** 첨가물명 직역, 무첨가·인공 오인 표시, 수입자란에 한국 제조사 기재
- 효능 표현은 건강증진법·경품표시법 — 화장품 56항목과 유사 구조

2026~27년 변경 사항 NEW

2026.9.1. 시행

기능성표시식품 GMP 완전 의무화

정제·캡슐 등 서플리먼트 형상 기능성표시식품의 GMP 제조·품질관리가 의무 ('24.9 건강피해 정보 보고 의무 선행, 고바야시제약 홍국 사건 계기). 한국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만으로는 부족 → 일본 GMP 지침·소비자청 자기점검표 기준으로 대조·문서화

2027.4.1.~2029.3.31. 예정

식료품 소비세 8% → 1% 한시 인하 예정

'26.9.15「음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및 취업자부담경감지원금 도입 대강」 각의결정, 10월 임시국회 법안 심의(연내 성립 목표). 수입 시 부과되는 소비세도 동반 인하 전망 → K-푸드 가격경쟁력 기회. 시행 전후 통관 시점·정기배송 계약·가격 표시 특례 확인

성분과 포장재는 통관 단계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검역소 사전상담 + 일본 기준 대조(성분표·포장재 적합 확인)를 선적 전에 끝내십시오.

자료 : 후생노동성「食品等の輸入手続」, 소비자청「食品表示基準」·「食品用器具・容器包装のポジティブリスト制度」·기능성표시식품 GMP 지침, 「음식료품 소비세율 한시 인하 대강」(2026.9.15. 각의결정)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RCEP 원산지증명서

통관 현장에서 반복되는 오류 5가지

1	상품과 HS코드 불일치	**트러블** 원산지증명서 기재 HS코드와 일본 수입신고 세번이 달라 심사 지연	**대응** 일본 측 수입자와 HS코드를 먼저 합의한 뒤 증명서 신청, 취득 후 재확인. 애매하면 일본세관 사전교시로 세번 확정
2	원산지 기준 기호 오류 (WO / PE / CTC / RVC)	**트러블** 완전생산품(WO)인데 발급기관이 PE로 발급, 역외 재료를 썼는데 PE로 기재된 사례 등	**대응**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확인하고 실제 생산 방식에 맞는 기준 기호를 기재. 발급 후 기호 재검토
3	규정 문구 · 필수 기재항목 누락	**트러블** 협정 부속서 3B가 정한 신고문(Origin Declaration) 문구· 필수항목 누락 → 일본세관 불인정	**대응** 문구는 정확히, 반드시 영어로. 발급 전 체크리스트로 항목 대조
4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 지연 제출	**트러블** 일본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에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 원칙 → B/L·인보이스와 함께 송부하지 않으면 RCEP 세율 적용 불가	**대응** 선적 서류 세트에 원산지증명서 포함. 부득이 지연 시 세관에 사전 상담
5	품명 · 수량 · 가격 등 불일치	**트러블** 인보이스 품명·수량·가격과 증명서·자기신고 대상 품명이 불일치 → 형식요건 심사에서 먼저 걸림	**대응** 동일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합성 확보, 차이는 사유·증빙 준비

자료 : RCEP 협정 제3장·부속서 3B, 재무성 관세국「RCEP協定 フォローアップセミナー ― よくある申告誤り」, 일본세관 원산지규칙 포털, 도쿄무역관 FTA센터 상담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세관 적발 사례

원산지기준 불충족, 원산지 오인표시, 협정 오적용

사례 1 · 원산지기준(CTC) 불충족 ― 손톱 다듬기용 파일

- **HS · 신고** 제68.05호 · 특혜부호 CTC(관세분류변경기준) · 품목별 규정 CTH 또는 RVC40
- **적발** RCEP 비체약국에서 조달한 연마재(제68.05호)를 사용 ― 재료와 완제품의 HS 4단위가 동일하여 CTH 미충족
- **결과** 특혜세율 미적용, 부족세액 납부 + 가산세

사례 2 · 원산지기준(RVC) 불충족 ― 에폭시화 대두유

- **HS · 신고** 제15.18호 · 특혜부호 RVC(부가가치기준) · 품목별 규정 CC 또는 RVC40
- **적발** 제품 FOB 가격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두유(제15.07호)가 비체약국산으로 확인 → RVC40 미충족
- **결과** 특혜세율 미적용, 부족세액 납부 + 가산세

사례 3 · 원산지 오인표시 ― 낚싯대·케이스 세트 (한국산)

- **문제** 케이스에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브랜드 본사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었고, 낚싯대를 케이스에 넣어 판매할 예정이었음
- **판단** 일본세관은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그 자체로 허가 거부 사유로 봄(관세법 §71)
- **결과** 오인을 유발하는 국가명 표시 근처에 「MADE IN KOREA」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허가

사례 4 · EPA 오적용 ― 테킬라 (멕시코산 · 파나마 선적)

- **문제** 일-멕시코 협정 적용 신고. 협정 적용에는 조약이 정한 원산지증명서와 직송(積送) 요건 충족 서류가 필요하나 제출하지 못함
- **판단** 제3국 경유 시 비가공·세관 관리하 증명(통과 B/L 등)이 없으면 협정세율 부인
- **결과** 수입자 신청에 따라 협정 미적용 · WTO 협정세율로 정정 후 통관

실무 시사점

①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품(WO)·원산재료만으로 생산(PE)은 트러블이 적고, 문제는 대부분 **CTC(세번변경)·RVC(부가가치)**에서 발생
- 역외 조달 재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재료의 HS 4·6단위와 완제품 HS를 대조하고, **FOB 가격 내 비중을 계산**해 문서로 남길 것

② 원산지 표시

-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 자체가 허가 거부 사유 ― 패키지의 **외국 국가명·외국어 문구·브랜드 본사 소재지** 사전 점검
- 일본어 라벨의 원산국명(제조 사업소 소재국)과 일치시킬 것

③ 협정 적용

- 특혜세율 = **유효한 원산지증명 + 직송 요건 서류**가 한 세트 제3국 경유·환적 시 통과 선하증권·비가공 증명 확보
- 협정 적용이 불확실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지연 시, 수입허가 전에 일본세관과 상담하고 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유예·BP(수입허가 전 인수) 등 이용 가능 절차 검토

※ RCEP 특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허가를 받은 뒤 사후에 단순히 특혜세율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자료 : 도쿄세관「原産地規則 · 原産地表示 事例集」, 재무성 관세국 RCEP 사후확인 사례, 관세법 제71조(원산지 허위·오인표시 화물), RCEP 협정 제3.15조(직접 운송)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도쿄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지원 우수사례

애로가 수출 성과로 바뀐 4건

A사 · 펫푸드 — 품목분류 오류로 반송된 사례

애로 항공에서 해상운송으로 전환 후 세관이 '원재료가 수산물'이라며 제03류로 분류 → 통관 거부·반송(Ship-back)

지원 일본세관 공개 사전교시 사례 분석 · 라벨/서류 표현을 '펫푸드'로 통일 · 문서 사전교시 재접수 전략 제시

성과 펫푸드(HS 2309.10) 정상 분류 기반 마련 · RCEP 적용 시 관세 8.4% → 0%

교훈 **같은 제품도 운송수단·서류 표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 서류 일관성 + 사전교시(회신 3년 존중)가 답**

B사 · 소비재 — 오버밸류 신고로 과다 납세한 사례

애로 전시회 일정에 쫓겨 시장 고가 기준으로 과대 신고 → 관세·소비세 과다 납부, RCEP 미인지로 특혜 놓침

지원 수정신고·경정청구(C-1030) 절차와 증빙 수준 안내(관세사 자문 연계) · BP(수입허가 전 인수)제도 · RCEP 활용 안내

성과 정상가 신고 체계 정비, 환급(경정청구) 여지 확인 · 향후 수출분 RCEP 무관세(2.6% → 0%) 적용 예정

교훈 **급해도 가격을 임의 조정하면 안 됨 — 정상가 신고 + 유효 원산지증명서 '수입신고 시점 소지'가 원칙**

C사 · 생활용품(가정용 필터) — 표시·광고 규제로 입점이 막힌 사례

애로 관세 0% 품목인데도 아마존 재팬 상세페이지 표현의 약기법·경품표시법 저촉 우려로 입점·표기 방향을 정하지 못함

지원 광고 해당성 기준 · 안전/부적절 표현 구분 · 경품류 한도 · 최신 단속 동향 등 표기 가이드 자문

성과 아마존 재팬 입점 성공 · '26년 상반기 對일본 신규 수출 US$ 17,743 창출

교훈 **관세 0% 품목도 표시규제가 실질 장벽 — 효능 표현과의 '결합'이 위반을 만듭니다**

D사 · 구강케어(치약·가글) — 역직구 규제가 막막했던 사례

애로 화장품·의약부외품 개인수입 면제 기준, 성분·라벨, 판매명 규칙 등 단계별 불확실성으로 수출 지연

지원 후생노동성 등 공식자료 기반 총 5회 종합 자문 + 인허가(MAH) 파트너 연계 · RCEP 활용 안내

성과 규제 시행착오 없이 일본 시장 안착 · '26년 상반기 對일본 수출 US$ 330,564 달성

교훈 **역직구는 통상 '개인수입' 제도 틀로 통관 — 품목 분류에 따라 수량·성분·표시 기준이 전부 달라집니다**

핵심 : 네 기업 모두 사고 '이후' 제도(사전교시·경정청구·BP·개인수입)로 복구했지만 치른 비용은 예방의 몇 배 — 통관·인증은 아는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료 : KOTRA 도쿄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상담·지원 실적(2025~2026, 기업명 익명 처리), 수출 실적은 기업 제공 자료 기준

57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RCEP 원산지증명 3가지 방식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입증 서류'는 우리 몫입니다

제출 의무 과세가격 총액 **20만 엔 초과** 화물은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 시 「원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원산품임을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요건 증빙(통과 B/L 등) 추가. 20만 엔 이하도 인보이스 등으로 원산지 확인 필요.

A 기관증명 (제3자 증명)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대한상공회의소·세관(관세청) 발급 — 가장 보편적인 방식
- 발급 기간·비용 소요, 발급일로부터 1년 유효
- 신청 전 HS코드를 일본 측 수입자와 합의, 원산지기준 기호(WO/PE/CTC/RVC) 확인

사전 준비 서류
원산지소명서·BOM·제조공정도 · 원산지(포괄)확인서(재료 공급사)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B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의 원산지신고

- 세관 인증(업체별·품목별) 필요 — 인증번호·인증기간(5년)·인증품목 유효성 매번 확인
-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협정 문구로 원산지신고 기재
- 반복 수출 기업에 유리 — 발급 시간·비용 절감

사전 준비 서류
인증서 사본 ·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록 · 서류 보관 체계

C 수출자·생산자 자기신고

한-일 간 2025.1.1. 신규 도입

- 인증 자격 없는 수출자·생산자가 스스로 작성 — 발급 부담 대폭 완화
- 증명 책임이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 일본세관의 엄격한 검증 대상
- 부속서 3B 신고문을 정확히(영어·자유 양식)

사전 준비 서류
원산성 입증 서류(원가·재료 원산지·공정) 별도 구비 → 세관 요구 시 제출 · 최소 3년(협정)/5년(한국 FTA특례법) 보관

자기신고(C)를 이용하더라도 **원산성 입증 서류는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자료 : RCEP 협정 제3.16조~제3.18조·부속서 3B, 일본세관 「RCEP協定 原産地手続」(customs.go.jp/roo/origin/rcep.html), 관세청 FTA 포털,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59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사전에 막고, 사후에 대비하는 3가지 장치

사전교시 · 사후확인 · 서류보관

사전교시 (事前教示)

Advance Ruling

- 수입 전에 세관에 **품목분류(세번)·원산지·관세평가·감면세**를 조회하고 서면 회신을 받는 제도
- 회신기간 : 품목분류·원산지·감면세는 원칙 **30일** 이내, 관세평가는 원칙 **90일** 이내
- 회신 내용은 발출일로부터 원칙 **3년간** 통관심사에서 존중됨
- 전화·구두 확인은 통관심사상 존중 대상이 아님 → **반드시 서면(문서 회답)**
- 일본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통관업자)이 신청 — 한국 수출자는 자료 제공으로 협조

문의 : 일본세관 사전교시 안내 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202_e.htm

사후확인 (事後確認 · 검증)

Post-clearance Verification

- EPA 세율로 신고된 화물에 대해 통관 후 원산품 여부를 확인(RCEP 제3.24조)
- ① 수입자에 대한 서면 정보요청 → ②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서면 정보요청 → ③ 수출 체약국 발급기관·권한 당국 조회 → ④ 필요 시 **수출자·생산자 시설 방문 검증**
- 확인되지 않으면 **특혜세율 미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 일본 수입자와의 신뢰 문제로 직결
- 회신 기한(통상 30~90일)을 넘기면 불인정 → 수출자 측 담당자·연락체계를 사전에 정해 둘 것

일본세관 원산지규칙 포털(사후확인 안내) customs.go.jp/roo/

서류 보관 의무 (記録保管)

Record Keeping

- [협정] 원산품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생산자는 작성일부터 **최소 3년** (RCEP 제3.27조)
- [한국]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 보관 (FTA특례법)
- [일본] 일본 수입자는 수입허가일 다음 날부터 서류 5년 · 장부 7년 보관
- 대상 : 계약서·거래명세서·가격표·총부품표(BOM)·제조공정표·원산지(포괄)확인서 — **재료 생산자까지 거슬러 올라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전자 보관 가능 — 품목·로트별로 검색 가능한 체계 권장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customs.go.kr/ftaportal|kor

사전교시 한 번을 받는 비용이 반송 한 번의 비용보다 훨씬 낮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선적 전에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 두십시오.

자료 : 일본 관세법 제7조 제3항(사전교시), RCEP 협정 제3.24조·제3.27조, FTA특례법 제16조, 일본세관·관세청 FTA 포털

6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 수출 전 체크리스트

여섯 항목만 점검하십시오

✓ 신고가격
PART 1 · 통관

- ☐ 인코텀즈(FOB/CFR/CIF)와 신고가격 구성 대조
- ☐ 무상 제공 원재료·금형·기술, 로열티, 특수관계 가격 점검
- ☐ 샘플·시제품은 정당 가격 신고 + 견본 면세 신청

✓ 원산지
PART 1 · 통관

- ☐ HS코드를 일본 수입자와 사전 합의(애매하면 사전교시)
- ☐ 원산지기준(WO/PE/CTC/RVC) 검증, 역외 재료 HS·FOB 비중 계산
- ☐ 패키지의 외국 국가명·외국어 문구 → 오인표시 점검

✓ 증명서류
PART 1 · 통관

- ☐ RCEP 증명방식(기관/인증수출자/자기신고) 선택
- ☐ 협정 문구·필수항목 정확 기재, 인보이스와 품명·수량 일치
- ☐ 수입신고 시점 소지 → 선적서류 세트에 포함, 3~5년 보관

✓ 분류 · 허가
PART 2 · 인증

- ☐ 화장품/의약부외품 분류 사전 확인(도도부현 약무주관과)
- ☐ 4대 허가·신고 완비, 허가증·신고서 사본 통관 전 세관 제출
- ☐ 식품은 검역소 수입상담 → 수입신고, 건강식품 GMP 대조

✓ 성분 · 표시
PART 2 · 인증

- ☐ 일본 화장품기준·첨가물 PL 대조, 사전 성분검사
- ☐ 일본어 라벨 출하 전 부착(샘플·전시회분 포함)
- ☐ 광고 표현 56항목·경품표시법 점검 — 한국어 카피 직역 금지

✓ EC · 기타
PART 2 · 인증

- ☐ ACP 지정, FS창고 신고가격(공제가격법) 사전교시
- ☐ 쿼터(IQ/TRQ)·무역구제(AD) 해당 여부, CITES 퍼밋
- ☐ 제품안전4법(국내관리인)·PSE·기술적합 등 PS 대상 확인

수출 준비 단계에서 이 여섯 개만 한 번씩 짚어 보셔도 오늘 말씀드린 리스크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KOTRA 도쿄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자료 : KOTRA 도쿄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정리 (본 발표자료 III·IV·V장 요약)

61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참고 기관 및 사이트

기관	활용 내용	URL
일본세관 (Japan Customs)	사전교시 · 실행관세율표 · RCEP 원산지절차 · 사후확인 · 통관 Q&A(カスタムスアンサー)	www.customs.go.jp / 사전교시(영문) 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202_e.htm / RCEP customs.go.jp/roo/origin/rcep.html
재무성 관세국	관세제도 · 관세개정 · 무역구제(반덤핑) 조사 공고	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
경제산업성 (METI)	수입공표(IQ·TRQ) · 제품안전4법(PSE·PSC·국내관리인) · EPA/FTA · 무역구제	www.meti.go.jp/policy/trade_policy/epa/ / 제품안전 www.meti.go.jp/product_safety/
후생노동성 (MHLW) · 검역소	식품 수입절차(食品等の輸入手続) · 약기법(화장품·의약부외품) · 화장품기준	www.mhlw.go.jp
소비자청 (CAA)	식품표시기준 · 기구용기포장 포지티브리스트 · 기능성표시식품(GMP) · 경품표시법	www.caa.go.jp
PMDA · 총무성 전파이용	외국제조업자 신고 · 의약부외품 승인심사 / 기술기준적합증명(技適)	www.pmda.go.jp / www.tele.soumu.go.jp
JETRO	일본 수입 제도·규제·인증 정보(품목별 輸入手続き), 각국 관세율	www.jetro.go.jp
관세청 FTA 포털 (YES FTA) · 한국원산지정보원	RCEP 협정문·양허표 · 원산지증명서 발급(세관) · 인증수출자 · FTA 활용지도	www.customs.go.kr/ftaportalkor / www.origin.or.kr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FTA통상종합지원센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 FTA 콜센터 1380 · 관세사 컨설팅 · 해외 FTA센터 연계	cert.korcham.net / okfta.kita.net
KOTRA 도쿄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RCEP 활용·원산지증명 실무 상담, 일본 통관·인증·표시 애로 해소, 현지 세관·유관기관 연계	okfta.kita.net/ftaOverseasUSC?mnSn=58

※ 현지 법령·제도는 개정이 잦으므로 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시행일·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쿄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의종 계장 (ej.lee@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FTA해외활용지원센터

구형률 컨설턴트
(jason1119@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말레이시아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對말레이시아 3대 수출입 품목 :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 **수출은 반도체 및 관련 장비** 58%, **석유화학제품**(휘발유, 제트유및등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13% 차지
- **수입은 천연가스+석유제품**(중유, 나프타, 윤활유 등) 31%, **반도체 및 관련 장비** 34% 차지

<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액 2개년 ($백만, %), MTI 4단위 >

품목명		'25년		'26년(1~8월)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총 계		12,366	-	15,533	-
1	메모리반도체	3,264	26	7,011	45
2	시스템반도체	1,643	13	1,437	9
3	휘발유	955	8	1,159	7
⋮					
6	합성고무	333	3	259	2
7	축전지 소재	188	2	243	2
8	인쇄회로	271	2	213	1
9	항공기부품	168	1	207	1
10	반도체제조용장비	76	1	201	1

<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입액 2개년 ($백만, %), MTI 4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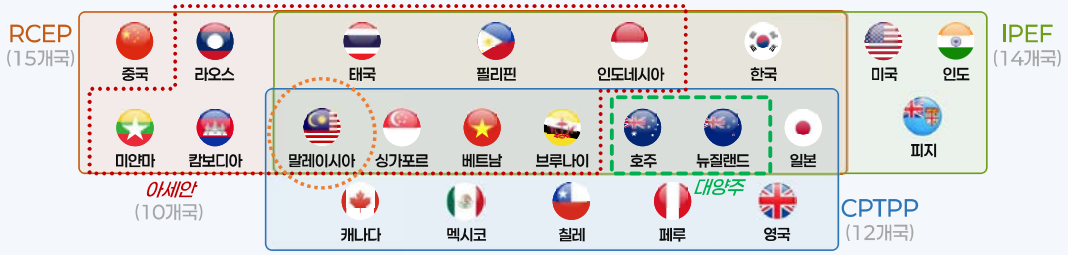
품목명		'25년		'26년(1~8월)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총 계		15,513	-	13,163	30
1	천연가스	3,912	25	2,715	21
2	반도체제조용장비	1,875	12	2,559	19
3	시스템반도체	1,984	13	1,280	10
⋮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334	2	502	4
7	원유	365	2	492	4
8	식물성유지	452	3	318	2
9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93	1	241	2
10	개별소자반도체	289	2	216	2

[자료: 대한민국 관세청(2026.1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말레이시아, 메가 FTA로 기회 확대

- 동남아 · 대양주 중심의 메가 FTA 출범 및 통상저변 확대
- 가파른 경제성장과 GVC 영향력 확대에 따른 통상 파트너로 매력 확대



RCEP

- GDP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대 메가 FTA (세계 GDP 및 인구의 약 30% 해당)
- 기존 양자 FTA 가 체결된 아시아 국가들 간 통일적인 무역 규범 제공(원산지 결정기준 단일화를 통한 수출피로도 완화)
- 누적기준 활용을 통한 참여국 간 공급망 활성화 기여 예상

CPTPP

-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로써, 재료·가치·공정의 누적 원산지 규정 반영
- 기존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회원국간에 18개의 신규 양자 FTA가 체결되는 효과 발생
- 포괄적인 다자 규범 및 경제 협력 조항 등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FTA

IPEF

- 관세 철폐 및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FTA 와 달리 참여국간의 새로운 규범 작성 및 규제의 개선 및 조화 중심의 경제협력체제
- 무역, 경제 회복력, 청정에너지, 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 제시를 통한 새로운 통상질서 수립 목적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말레이시아의 FTA 체결 현황

- 현재 8개의 양자간 FTA와 9개의 지역 FTA 발효 중
- **양자간 FTA**(3건):△ EU△ 한국△ GCC / **지역 FTA**(1건):△ 인도-ASEAN FTA 협상 중

순번	양자간 FTA	발효일
1	말레이시아-일본 경제동반자 협정(MJEPA)	'06년 7월 13일
2	말레이시아-파키스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MPCEPA)	'08년 1월 1일
3	말레이시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MNZFTA)	'10년 8월 1일
4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경제협정(MICECA)	'11년 7월 1일
5	말레이시아-칠레 자유무역협정(MCFTA)	'12년 2월 25일
6	말레이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MAFTA)	'13년 1월 1일
7	말레이시아-터키 자유무역협정(MTFTA)	'15년 8월 1일
8	말레이시아-UAE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MY-UAE CEPA)	'25년 10월 1일

순번	지역 FTA	발효일
1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93년
2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03년 7월 1일
3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06년 7월 1일**
4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09년 2월 1일
5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10년 1월 1일
6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10년 1월 1일
7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19년 10월 13일
8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년 3월 18일**
9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22년 11월 29일

[자료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참고: 말레이시아-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경제동반자 협정(MEEPA) '25년 6월 23일 체결, 발효일 미정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현지 소비자/기업의 최신 구매 수요 및 시장 변화

다민족 소비시장

- 말레이계(69.4%), 중국계(23.2%), 인도계(6.7%), 기타(0.7%) 등 소비층별 구매 특성 차이 뚜렷
- 가격대·취향·종교를 고려한 목표 고객과 유통채널 설정

디지털 중심 구매환경

- 2025년 개인 인터넷 이용률 98.3%로 높은 온라인 접근성
- 온라인 판매와 현지 유통망을 연계한 제품 인지도 확보

한류와 한국 소비재

-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 3위
- 한류 경험 → 소비 연결
  - 화장품, 뷰티, 한식 분야 소비 확대
  - 말레이시아 응답자의 70% 이상, 한류 콘텐츠 경험 후 한국 제품 구매의향 표명

* 2025 해외 한류 실태조사 기준

GCC-아세안 진출 교두보

- OIC(이슬람협력기구) 국가 중 '글로벌 할랄 경쟁력 지수' 1위
- 세계적 물류 허브로 부상 중
  - Port Klang: 세계 10위
  - Port of Johor: 세계 11위

* Lloyd's list, '26년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첨단 제조업 고도화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정책 추진 중
  - 신산업마스터플랜 2030
  - 국가반도체전략
- 반도체·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부품과 공정 개선 기회 검토

→ 반도체, 전자·ICT,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수요 증가

데이터센터 관련 공급 기회

-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냉각 등 연관 공급망 형성
- 에너지 효율·물 관리 등 운영 효율 개선 분야 진출 검토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현지 소비여건과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 방향

01 정치안정과 반부패 노력

정권 교체기('22년) 이후 정치 안정 지속
- 안와르 총리, '22년 11월 취임 후 약 4년간 연합정부 체제 유지
- 주요 연합 정당의 참여 지속

→ 정책적 연속성 확보

MACC를 통한 반부패 척결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 운영
- 국가 반부패전략 2024~2028 추진중
- '25년 부패인식지수 아세안 3위·세계 54위

* '22년 47점→'25년 52점으로 상승 세계 순위도 61위에서 54위로 7계단 개선

02 생각보다 높은 소비부담

높은 가계부채와 상환 부담
- 1인당 GDP 아세안 3위 (1위: 싱가포르, 2위: 브루나이)
- '25년 가계부채 GDP 대비 84.8%
- 차입자의 중위 원리금 상환비율 33%

→ 대출상환을 고려한 지출여력 확인 필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 구매 결정요인 중 '가격 ' 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

→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가격 설정 매우 중요

03 주요 도시권 집중공략

전국보다 높은 소득·임금 수준
- '26년 3월 월 중위 임금
  * 전국: MYR 3,027(USD 741)
  * KL: MYR 4,527(USD 1,108)

☆ KL은 전국 대비 가처분 소득 약 39%↑ 중위임금은 약 50% ↑의 높은 구매력

주요 지역의 중상류층 선별 공략
- KL(207만), 조호바루(180만), 페낭(180만), 말라카(105만), 이포(92만) 등 약 764만 명의 대도시 인구

→ 대도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의 실질 구매층 집중 공략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주요 인증

구분	ST·SIRIM	NPRA	MDA	Halal
인증마크	SIRIM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Medical Device Authority MALAYSIA	
허가기관	에너지위원회(ST) 승인 SIRIM 시험·인증 (SIRIM, 말련 국가 표준기구)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 말련 식약청)	Medical Device Authority (MDA, 말련 의료기기청)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JAKIM, 말련 이슬람개발부)
성격	의무	화장품: 수입·판매 전 등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의무	의무	일부 의무화(육류·유제품·육가공품)
주요 적용제품	철강, 전자·통신기기 등 *전기제품은 ST 규제대상 34개 품목군('26)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 등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전반
신청주체	ST 등록된 현지 수입자·제조자	화장품:현지등지 책임자(CNHI) 의약품등:현지등록책임자(PRHI)	현지 제조자 또는 해외 제조자가 지정한 현지 대리인(AR)	해외공장 JAKIM 직접인증 현지 등록 수입자·대리인 등
획득 소요기간	6개월 ~ 1년	1주일(화장품) ~ 2년(의약품)	1개월~1년	3개월~3년(컨설팅 사 별 상이)
획득 소요비용 (제품 당)	USD 2,000~8,000 (실사비용은 수출자 부담)	USD 210~5,000 (제품당 통지·대행료 예시)	USD 950~3,000 (제품 등급별 상이 Level A~D)	아세안 국가: USD 625 기타국가(한국포함): USD 2,500
유효기간	ST CoA: 1년 SIRIM 인증은 유형별 상이하나 통상 1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JAKIM 해외 제조 인증: 2년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IECEE CB 인증서(유럽·일본 등 참여기관 발급)인정요건 충족 시 중복시험 부담 경감* *미인정이나 일부 부담경감	미인정	EU(CE), 미국(FDA), 일본(MHLW),호주(TGA), 캐나다(HC) 등 인정 해외 승인 활용 가능→ 요건 충족 시 간소화	49개국 96개기관 상호인정 [한국] - 한국할랄인증원(KHA) - 한국이슬람중앙회(KMF)

기타 비관세장벽

부미푸트라 우대

용 어

- 현지기업·부미푸트라 기업에 적용하는 우대
  *부미푸트라:말레이+토착민

목 적

- 현지기업 육성 및 부미푸트라기업의 조달사업 참여 지원

적용 분야

- 정부 물품·서비스·공사 조달 등
  (입찰별 적용 조건 상이)

주요 이슈

- 입찰별 참여자격·가격우대·현지 파트너 요건 확인 필수
  (현재 사업별 비율은 30%~70%로 상이)

품목별 수입허가(AP)

용 어

- Approved Permit(AP)
  지정 품목의 수입허가

목 적

- 특정 품목의 수입관리 및 국내 산업 보호

적용 분야

- 철강·자동차·비철금속(스크랩 등)·일부 기계류 등 지정 품목

주요 이슈

- 선적 전 HS 코드별 허가 대상·담당기관 필요서류 확인

※ 비용은 공개 수수료·민간 서비스 가격을 참고한 대략적인 예시이며, 제품·시험·심사·대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5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말레이시아 비관세 장벽 사례 1. 아이웨어 라벨링·초도 수출 성공

기업개요 아이웨어 제조기업 A사

수출 애로 사항

1 첫 수출을 앞두고 표시요건 불명확

- 현지 유통사와 연결됐으나 제품 패키지에 필요한 표시사항과 사용 언어 확인 필요
- 일반 공산품인지 의료기기인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가능성

2 전시회 출품 일정에 맞춘 준비 필요

- 초도 물량 출고 전 라벨링·유통 요건을 신속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

FT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제품 용도에 따른 규제 분류 검토**
제품 특성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 의료 목적 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안내

» **실제 판매에 필요한 표시사항 정리**
제품명·모델명·제조국, 현지 유통사 정보·사용법·안전문구 등 안내
영어 표시와 말레이어 병기 필요성 검토
이메일·전화·미팅을 병행해 출고 준비 지원

성과



» 현지 유통사를 통해 전시회 출품, 전시회 판매 물량 완판

» 바이어 발굴을 라벨링·출고·전시회 판매까지 연결해 초기 시장 진입 지원

76

말레이시아 비관세 장벽 사례 2. 허위 인증비 요구 피해 예방

기업개요 건기식 제조기업 B사

수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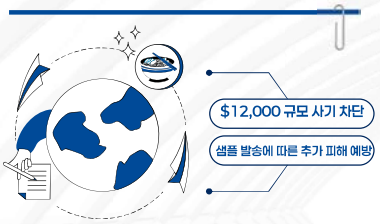
1. **대형 바이어를 사칭한 인증비 선납 요구**
   - 할랄·코셔 인증비로 품목당 USD 4,000 요구 (3개 품목 기준 US$12,000)
2. **수출대금 송금을 빌미로 추가 비용 요구**
   - 건강음료 기업은 이미 한국 할랄 인증 보유
   - 상대방이 해외 거래 차단을 주장하며 JAKIM 인증비 명목의 긴급 송금 요구

FT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실제 바이어와 인증 담당자 신원 확인**
- 실제 유통기업에 직접 연락하고, JAKIM 직원 정보를 확인해 사칭 여부 판별

» **인증기관 교차 확인과 거래 중단 지원**
- 한국할랄인증원·JAKIM에 확인 요구 비용의 근거 검토 및 송금 및 샘플 발송 중단 권고

성과



» 허위 바이어가 제공한 연락처 및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업체·인증기관의 공식 경로로 확인하여 사기거래 사전 차단

말레이시아 비관세 장벽 사례 3. 할랄 인증 인정 문제 해소

기업개요 떡볶이 수출기업 C사

수출 애로 사항

1. 인니 할랄인증으로 할랄 떡볶이 수출 추진, 수출물량이 통관 후 유통 금지명령, 벌금 부과
2. 말레이시아 세관, 해당 조치에 대한 **설명거부,** 현지 이슬람개발부(JAKIM)에 문의 지시

B사, 무역관에 다음 지원 요청
1. 세관의 제품 유통 금지 명령 사유 파악
2. JAKIM과의 연결 지원 및 대안 안내

FT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규제 근거 확인**
Halal Malaysia Circular CB No.3(2012) 제 10조 2항(할랄 상호 인정 규정) 설명

» **기관 협의 주선**
JAKIM 담당자(Norizah Ramli)와 현지 수입사 간 교차 확인 지원

» **대안 안내**
인니 할랄인증(BPJPH) → KMF 인증으로 변경 (2025년 4월 수출분부터 적용)

성과



» 4월 수출분(2차, 3차) 정상 통관(3만 달러)

» **현지 유통망 안정화**

» **향후 수출 확대 기반 마련(KMF 획득)**

말레이시아 통관 애로 사례 1. 제조업 공장 설비 통관 애로

기업개요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업 D사

수출 애로 사항

1 **통관 이틀 전 추가 인증 요구**
- 말레이시아 세관, 전기·전자장비라는 이유로 통관 이틀 전, 별도 인증 요구
- 제조공장용 생산설비 인증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설비 반입 지연 우려

2 **발주사 납기까지 약 1개월 잔여**
- 설비 설치·시운전 후 제품 생산이 필요한 상황
- 통관 지연 시 생산 일정과 납품기일에 직접적인 차질 발생 위험

FT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설비 사용 목적에 맞는 면세 근거 확인**
수출품 제조에 사용하는 공장 설비의 관세·내국세 면제 적용 근거 확인
인증 대상 여부와 면세 요건을 구분 검토

» **현지 기관 협력 지원**
지역 의회에 설비 용도와 긴급성을 설명하는 무역관 지원 공문 발송
의회 협력을 받아 현지 세관과 협의하고, MIDA에도 적용 요건을 확인하도록 안내

성과



» **별도 ST·SIRIM 승인 없이 생산설비의 일정 내 정상 반입 완료**

» **규정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지 기관 협력까지 연결하여 기업은 일정대로 납품**

79

말레이시아 통관 애로 사례 2. 수리 후 재수입 사전승인 누락

기업개요 검사장비 제조기업 E사

수출 애로 사항

1 **수리 목적 반출의 사전승인 누락**
- 한국에서 수리 후 말레이시아로 재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승인 미이행
- 승인 필요성 알지 못해 면세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증빙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

2 **재수입을 신규 수입으로 처리**
- 세관이 해당 물품을 신규 수입으로 판단
- 관세 외 내국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사후 환급도 불확실한 상황

FT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수리 목적 반출·재수입 절차 안내**
Temporary Export 승인과 면세 요건 설명 반출신고 시 'Repair & Return' 목적 기재, 물품 동일성 입증자료 준비 필요성 안내

» **증빙 확보 및 비용 대응 지원**
최초 수입신고서·면세코드·일련번호, 수리내역서 등 확인자료 안내
현지 수입사와 비용 처리 방안 협의 지원

성과



» **향후 수리물품 반출 시 사전승인 이행과 동일 물품 증빙 확보 방향 정리**

» **수리 후 돌아오는 물품도 자동 면세가 아니며, 반출 전 절차 준비가 중요**

80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일부는 FTA 특혜를 적극 활용한 반면 다른 경우는 FTA 적용 한계가 확인됨

기업·품목·산업별로 FTA 활용 수준 차이 존재

현지 생활소비재 수입기업 A사	화장품 수입품목 대부분 0% 관세 적용 (FTA 활용 제한적) 일부 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AKFTA 적극 활용 중
현지 통관물류기업 B사	AKFTA는 바이어 측에서 적극 활용 중 RCEP CO 활용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한국 수출기업 C사	RCEP 활용하여 말련 입항 후 보세구역 리라벨링 최종 목적지인 호주, 베트남으로 제3국 수출 성공

FTA 활용 애로사례 1. 기본관세 0% 품목의 FTA 활용

애로사항

① HS 코드가 불확실한 품목의 통관

- 제품의 기능·재질·용도에 따라 복수의 HS 코드 검토가 가능한 상황
- 한국에서 판단한 HS 코드를 말레이시아에서도 인정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할지 문의

② CO 없이 수입할 경우 품목분류 변경 가능성 존재

- 한국에서 적용한 세번은 말레이시아 현지세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 단, 한국 발행 CO를 제시한 경우, 해당 HS 6단위를 인정하는 실무 관행 관찰됨

확인·지원

» 한국 발행 CO를 활용한 대응 안내
품목분류가 애매한 제품은, 원산지 요건 충족 시 한국에서 CO를 발급받아 현지 통관 과정에 제시하도록 안내

» 현지 수입신고 세번 사전 확인
CO의 HS 6단위 바탕으로 현지 수입자와 말레이시아 수입신고용 10단위 세번 확인

→세부 품목분류와 관세·내국세 적용 여부 검토

결과 · 시사점

최근 4년 센터 상담 경험상 한국 발행 CO의 HS 6단위 변경 요구는 없었으며, 세번 조정은 현지 10단위에서 발생

이러한 실무 관행은 한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원산지증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 유리한 세번 적용을 목적으로 남용할 경우 신뢰 저하와 현지 심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

» FTA 활용은 관세절감뿐 아니라 원산지 판정·증명, 기관 간 협력과도 연결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FTA 활용 애로사례 2. 제3국 가공·경유 제품의 원산지 판단

애로사항

① 제3국 가공 후 원산지 판단 불명확

- 한국에서 생산했으나 중국 임가공을 거쳐 최종 제품의 원산지와 특혜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말레이시아를 경유한다는 사실만으로 CO를 발급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

② 최종 목적국별 적용 요건 확인 곤란

- 대만·일본·미국·유럽 등으로 수출 검토
- 목적국마다 적용 협정과 원산지 요건이 달라,전체 거래구조를 확정하기 어려워 FTA센터에 후속 검토 요청

확인·지원

» 생산·가공·경유 경로를 구분해 검토
한국 생산 → 중국 임가공 → 말레이시아 경유 → 최종 목적국으로 이어지는 거래구조 정리
+ 목적국별 원산지·특혜 적용 쟁점을 구분

» 해외 FTA센터·관세관과 협력
일본: 도쿄 RCEP센터와 협력해 안내
미국·유럽: 현지 관세관 협의 후 안내
대만: 관세관·쿠알라룸푸르센터를 통해 안내

» 기업의 목적국별 판단 지원
최초 생산국뿐 아니라 실제 가공공정과 적용 협정을 함께 확인하도록 대응 방향 제시

결과·유의사항

» 목적국별 문의에 대한 안내를 완료하고, 복합 공급망의 원산지 판단 불확실성 완화

» 본사–FTA센터–해외센터·관세관 협업으로 기업의 수출경로 다변화 검토 지원

→ 최초 생산국이나 경유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공정과 목적국별 협정 요건을 함께 검토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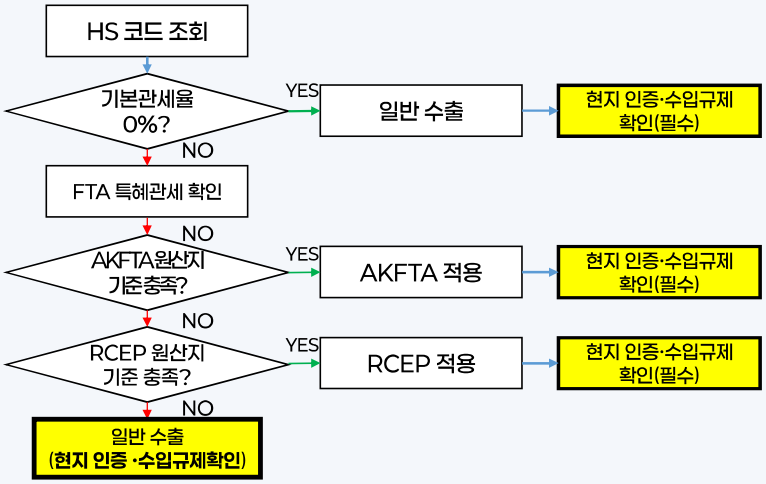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對말레이시아 FTA 적용 기본 Work Flow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적용사례가 많은 AKFTA 우선 적용 이후 RCEP 적용가능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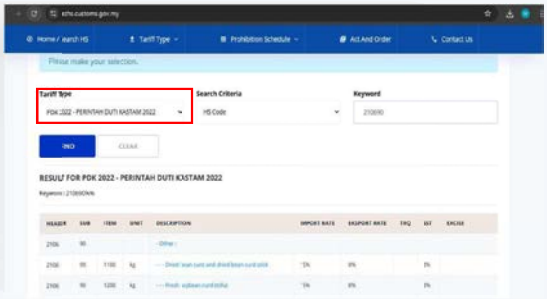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사전준비 4단계

① HS 코드 확인

- HS Code에 따라 특혜 적용 기준 달라짐 → 정확한 분류 필수
- 사양서·BOM 확보, 관세청 Advance Ruling 활용
- Tip: 6단위 기준 필수, 분쟁 대비 사전 검토 권장



② 원산지 판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CTH, RVC 등) 충족 여부 확인
- 충족 불가 시 De Minimis Rule, 누적 기준 검토
- Tip: 운송·선적 조건 불이행 시 원산지 불인정 가능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사전준비 4단계

③ 원산지(포괄)확인서 준비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초자료
- 기간 = 공급일 기준 1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사용
- Tip: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 공급일 기준 적용



④ 원산지증명서 신청·작성

- FTA 특혜 적용을 위한 필수 절차
- Form AK, RCEP 등 협정별 서식 / 인보이스·계약서 필수 첨부
- Tip: 오류 다발 → HS 불일치, 서명 누락, RVC 계산 오류



06

참고사항

말레이시아 수입 부대조건

- 모든 수입식품 신고는 다강넷(DagangNet)을 통한 전자신고 가능
- 다강넷을 통한 식품 수입허가 신청절차
  ePermit 시스템을 통해 허가 신청서 제출 → MAQIS 담당자는 신청서를 검증
  → MAQIS 담당자는 허가서 승인 → 승인 내용을 세관 정보 시스템에 전송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통관 및 내륙운송비용>

	서류 준비	항만, 터미널 처리	통관수속	내륙운송	필요서류
소요 기간 (예상)	3일	2일	1일	2일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입신고서 포장목록 …등
소모 금액 (예상)	**300 링깃** (75 달러)	**600 링깃** (150 달러)	**350 링깃** (85 달러)	**550~750 링깃** (135~185 달러)	

* 주: 20피트 1 FCL, Port Klang 입항 및 Klang Valley 배송 기준, 선사·통관대행사·배송지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 환율: USD 1 = MYR 4.04기준(260904)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수출입 기업, 인증 요건을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구조

품목군	수출자 책임 요건	수입자 책임 요건
전자제품	• 제품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제공 • 제조사 SIRIM 기준 충족 • 필요 시 자유판매증명서(CFS) 제공	• SIRIM 등록 (수입자 명의) • ePermit 신청 및 라벨 부착 •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부착 (해당 품목)
육류/유제품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획득(KMF, KHA 교차인증 가능) • 말레이시아 수의부(DVS) 승인 받은 공장에서 생산 • 수의학적 건강증명서 발급	• DVS 등록 • MAQIS 수입허가 신청 • FoSIM 등록 및 선적 전 사전승인
화장품	• 제품 정보 파일(PIF) 제공 • 제조사 CGMP 인증 보유 • 말레이시아 규정에 맞는 라벨링 제공(영문 or 말레이어)	• NPRA 제품 통지(Notification) • CNH(Cosmetic Notification Holder) 등록자 확보 • 제품 정보 파일(PIF) 보관 및 관리
의약품/의료기기	• 수출국 허가증(CFS 등) 제공 • 제품 라벨링 및 제품 설명서 제공(영문 or 말레이어) • 식약처(NPRA)/의료기기청(MDA) 등록 지원 서류 (Letter Of Approval, LOA 등)	• NPRA 또는 MDA 등록 • 수입자 라이선스 확보 • AR(대리인) 등록 및 유효성 유지
식품	• 원산지 성분표 및 라벨링 제공(영문 or 말레이어) • 제조일자/유통기한 명확 표기 • 보건부(MOH) 등록 요건 충족 문서 제출	• 보건부(MOH) 등록 •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등록 • 검역부(MAQIS) 수입허가 신청 및 적합성 검사 대응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 가능여부 1차 확인은 쿠알라룸푸르 FTA 센터에서 지원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수출입 기업, 인증 요건을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구조

말레이시아는 관세사 제도 無

통관社가 관세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현지 특성상
수입자도 처음 수입하는 품목의 수입인증을 모르는 경우 多

말레이시아 수입규정은 KOTRA 쿠알라룸푸르 FTA 활용지원센터에 문의!

(구형률 FTA 컨설턴트, Email: jason1119@kotra.or.kr, Tel: +60-3-2117-7133)

감사합니다

쿠알라룸푸르 FTA해외활용지원센터
구형률 컨설턴트 (jason1119@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태국

방콕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박현규 대리
(parkhk@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태국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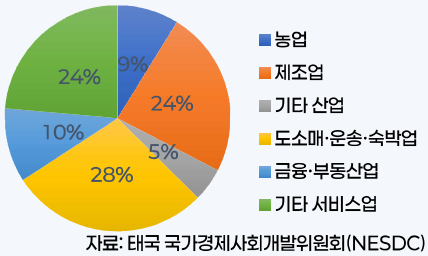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및 주요 수출입 품목

아세안 GDP 3위의 경제 대국으로 2025년 기준 한국은 태국의 9위 교역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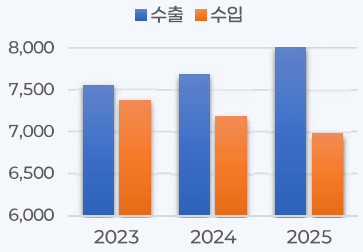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한-태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23	2024	2025
수출	7,548	7,678	8,010
수입	7,367	7,174	6,969
교역 규모	14,915	14,852	14,979
무역 수지	182	504	1,040

자료: KITA



가공무역 형태가 발달하여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음

5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4	증감	2025	증감
1	전자제품	1,277	10.7	1,584	24.0
2	철강부품	1,325	-6.7	1,333	0.6
3	석유화학제품	943	17.8	1,020	8.2
4	정밀화학제품	523	6.6	545	4.3
5	비철금속제품	366	12.3	366	0.1

자료: KITA

5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4	증감	2025	증감
1	전자부품	1,089	1.6	935	-14.1
2	농산물	862	13.5	858	-0.4
3	비철금속제품	504	-4.1	559	10.9
4	산업용전자제품	439	-41.0	455	3.7
5	고무제품	407	-14.7	425	4.5

자료: KITA

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No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1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1993.1.1.
2	아세안-중국 (ACFTA)	2005.7.20.
3	아세안-일본 (AJCEP)	2009.6.1.
4	아세안-한국 (AKFTA)	2010.1.1.
5	아세안-인도 (AIFTA)	2010.1.1.
6	아세안-호주-뉴질랜드 (AANZFTA)	2010.3.12.
7	아세안-홍콩 (AHKFTA)	2019.6.11.
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2022.1.1.
9	아세안-캐나다 (ACAFTA)	협상중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No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1	태국-인도 (TIFTA)	2004.9.1.
2	태국-호주 (TAFTA)	2005.1.1.
3	태국-뉴질랜드 (TNZCEP)	2005.7.1.
4	태국-일본 (JTEPA)	2007.11.1.
5	태국-페루 (TPCEP)	2011.12.31.
6	태국-칠레 (TCFTA)	2015.11.5.
7	태국-스리랑카 (SLTFTA)	2024.2. 서명
8	태국-EFTA (TEFTA)	2025.1. 서명
9	태국-부탄 (THBTFTA)	2025.4. 서명
10	태국-EU FTA	협상중
11	태국-한국 CEPA	협상중

자료: 태국 무역협상국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DTN)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태국 현지 시장 트렌드

K-콘텐츠 인기 지속과 한국 소비재 시장 성장세 유지



- 경제 한류 동남아 중심국, 특히 한국산 소비재 분야 인기 지속
- (경제 규모 및 구매력) 태국은 경제 규모 및 구매력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
- (전략) 한국적 패키징 디자인 활용, 화장품 및 식품의 태국 소비재 시장 적극 공략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소비시장 구조 변화



- 태국, 아세안 국가중 저출산·고령화 진전이 가장 빠른 나라
- 출산율 감소로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 및 유아용 프리미엄 제품 수요 급증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및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신시장 형성



-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차량 생산 확대 등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전기차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전기차 부품 및 인프라 기업 역내 공급망 조기 진입 필요
-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어 전자부품 수요 증가 전망

태국 진출 유망 품목

식품(라면·해초류·신선과일 등)

- '25년 태국 라면 소비량 41.9억 인분으로 세계 8위이며, '레드(Red)·간편식·솔로다이닝' 트렌드 지속
- '25년 한국산 라면(HS 1902.30) 수입량 점유율 69%로, AKFTA·RCEP 활용 시 무관세 수입 가능
- 김을 저열량 및 고단백 건강 스낵으로 소비하는 문화 정착, 해초류(HS 1212.21) RCEP 활용 시 무관세 수입 가능
- 딸기·샤인머스캣 등을 프리미엄 선물용 과일로 인식, 일부 농산물 RCEP 활용 시 무관세 수입 가능

의료용품(의료기기·의약품 등)

- 의료관광 확대, 보건 인프라 발전, 고령화·만성질환 대응 수요 증가로 헬스케어 시장 성장세 지속
- (의료기기) '25년 수출 11.5억 달러, 수입 17.7억 달러 기록 (의약품) '25년 수출 6.5억 달러, 수입 34억 달러 기록
- 의약품·의료용품·의료기기 등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유리

화장품(스킨케어·선케어·메이크업 등)

- 태국 뷰티/퍼스널케어 소매시장 성장 추세로 '25년 한국산 화장품(HS 3304) 수입액 1.7억 달러로 상위 공급국 중 하나
- 화장품류 AKFTA 활용 시 특혜 관세 적용 가능 (30 → 0%), 매년 활용률 80% 이상으로 FTA 활용 여지 높음

펫용품(애완동물용 간식·화장품 등)

- 저출산 및 고령화로 1인·소가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 확산
- 애완동물용 간식·화장품 등 AKFTA·RCEP 활용 시 관세 혜택 적용 가능

PCB·반도체 등 전자 부품 및 자동차·EV 관련 부품

- 데이터센터 투자 등 전자 산업 확대에 따라 반도체·PCB 등 전자부품 수요 증가
- 태국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 허브로, 보조금·세제 혜택 등 EV 정책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생산 확대 본격화 중

자료: 태국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세계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 WINA)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태국 인증 관련 최근 이슈



THAILAND

Illicit contact lenses, cosmetics worth B4.7m seized at warehouse

Wassayos Ngamkham. Published on 18/09/2026

» Police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fficials have seized more than 132,000 unregistered contact lenses, cosmetics and vitamins worth 4.7 million baht from a warehouse in Samut Prakan allegedly operated by a Chinese national.



THAILAND

Illegal weight-loss products worth B50 million seized

Online Reporters. Published on 12/09/2026

» Unregistered weight-loss injection pens and related materials worth more than 50 million baht were seized on Friday at a house in Nonthaburi, where the seller had been earning an estimated 8 million baht a month from online sales for the past year.

News

Police seize 83,483 unapproved Japanese products in warehouse raid



TISI seizes nearly 20,000 illegal squishy toys over cancer-risk chemicals

MONDAY, AUGUST 03, 2026

Thailand's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Has Seized Nearly 20,000 Substandard Squishy Toys Worth More Than 1 Million Baht, Warning They May Expose Children To Uns...





THAILAND

Govt boosts fake-goods raids

News. Published on 13/07/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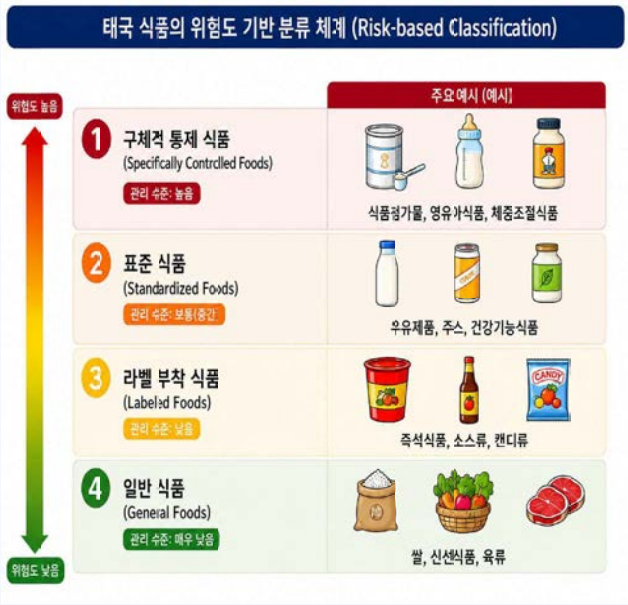
» The Commerce Ministry has stepped up its crackdown on counterfeit goods after authorities seized more than 1.65 million infringing items worth 786 million baht in the first half of 2026.

자료: The Nation, Bangkok Post

태국 제품별 주요 인증제도

No	제품군	담당기관	관련법률	분류
1	의약품	태국 식약청 (Thai FDA)	Drug Act, B.E. 2510 (1967)	현대의약품, 전통의약품 (일반의약품, 위험의약품, 특별관리의약품 등)
2	공산품	태국 산업표준원 (TISI)	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B.E. 2511 (1968)	강제인증(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제품 등 20종 152개 품목), 임의인증(강제성이 없는 자율 인증)
3	식품	태국 식약청 (Thai FDA)	Food Act, B.E. 2522 (1979)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 일반식품
4	통신기기	태국 방송통신 위원회 (NBTC)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B.E. 2544(2001)	통신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전자·전기제품
5	의료기기	태국 식약청 (Thai FDA)	Medical Device Act, B.E. 2551 (2008) & 2562 (2019)	1등급(저위험), 2등급(저-중위험), 3등급(중-저위험), 4등급(고위험)
6	화장품	태국 식약청 (Thai FDA)	Cosmetic Act, B.E. 2558 (2015)	특별관리 화장품, 관리 화장품, 일반 화장품 -> 관리 화장품 하나로 통합

태국 식약청 식품 인증 절차 - ①



분류	구분	비용	소요시간
구체적 통제식품	특수목적 식품	4,000 THB	28~72 근무일
	일반 식품	3,000 THB	28 근무일
표준식품	건강기능식품, 유제품 등 특정 식품	2,000 THB	10~28 근무일
	일반 식품	200 THB	1~2 근무일
라벨부착식품	특수목적 식품	4,000 THB	72 근무일
	일반 식품	200 THB	1~2 근무일

저위험군	중·고위험군	
• 제조시설증명서 • 기타 서류 (필요 시)	• 제조시설증명서 • 원료 및 제품 규격 • 제품 특성 설명서 • 성분배합표 • 제조공정도	• 포장용기 • 라벨 • 시험성적서 • 기타 서류 (필요 시)

태국 식품 인증 매뉴얼

자료: 태국 식약청 식품국(Thai FDA, Food Division)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태국 식약청 식품 인증 절차 - ②

제조시설증명서

- 제품 등록 위한 공통 서류 (GMP, HACCP, ISO 22000, GHP, IFS, BRC 등)
-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발급기관·대사관 등을 통한 진위 확인 필요
- 전자 문서는 태국 전자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 (디지털서명이 날인된 문서 원본)
- 태국어·영어 이외 외국어 문서는 태국어 또는 영어 공증 번역본 첨부
- 인증서 내 1) 기준명, 2) 제조시설 정보, 3) 인증범위, 4) 발급일·유효기간, 5) 발급기관 등 필수 기재

태국 제조시설증명서 지침

신규 식품 (Novel Food)

- 식용 이력이 15년 미만이거나, 신규 공정으로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원료 및 이를 포함한 식품
- Thai FDA 제품 등록 전 신규 성분의 안전성 평가 우선 필요
- 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 확인 → 안전성 평가 → 평가 보고서 발급 → 결과 통보
- 비용 : 3,000 THB, 소요시간 : 40 근무일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Novel Food

자료: 태국 식약청 식품국(Thai FDA, Food Division)

태국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정의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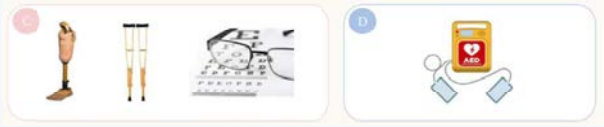
MEDICAL DEVICES ACT (NO.2), B.E. 2562 (2019)

Section 4. In this Act: "medical device" means:

1) a device, an appliance, a mechanical tool, an object inserted into the body, a solution used for performing a test inside or outside a laboratory, a product, software or any other object specifically intended by the manufacturer or owner to be used, for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rposes, on human-beings or animals, whether independently from, in conjunction with or as an accessory of any other article;
   a. conducting a diagnosis, the prevention, a follow-up, a therapy, the alleviation or a treatment of a disease;
   b. conducting a diagnosis, a follow-up, a therapy, the alleviation or a treatment of an injury;



   c. performing the examination, replacement, correction, modification, support, packing or upkeeping in relation to anatomy or a physiological process of the body;
   d. performing life support or rescue;



107

태국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정의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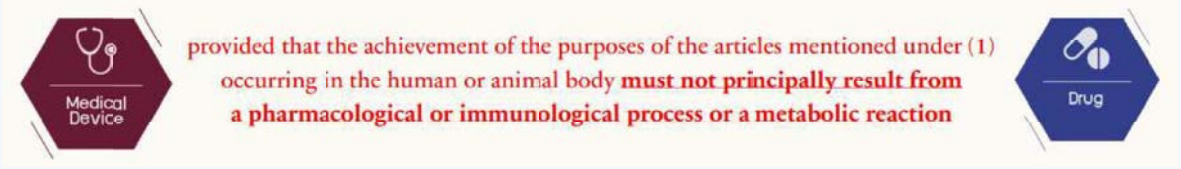
MEDICAL DEVICES ACT (NO.2), B.E. 2562 (2019)

1) a device, an appliance, a mechanical tool, an object inserted into the body, a solution used for performing a test inside or outside a laboratory, a product, software or any other object specifically intended by the manufacturer or owner to be used, for an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urposes, on human-beings or animals, whether independently from, in conjunction with or as an accessory of any other article;
   e. conducting birth control or reproductive assistance;
   f. providing assistance in response to, or providing compensation for, infirmity or disability;
   g. providing information from the examination of body specimens for a medical purpose or for a diagnosis;
   h. performing disinfection or sterilisation of medical devices;



2) supplementary equipment for use in conjunction with a medical device under (1);
3) a device, appliance, mechanical tool, product or any other object prescribed in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er as a medical de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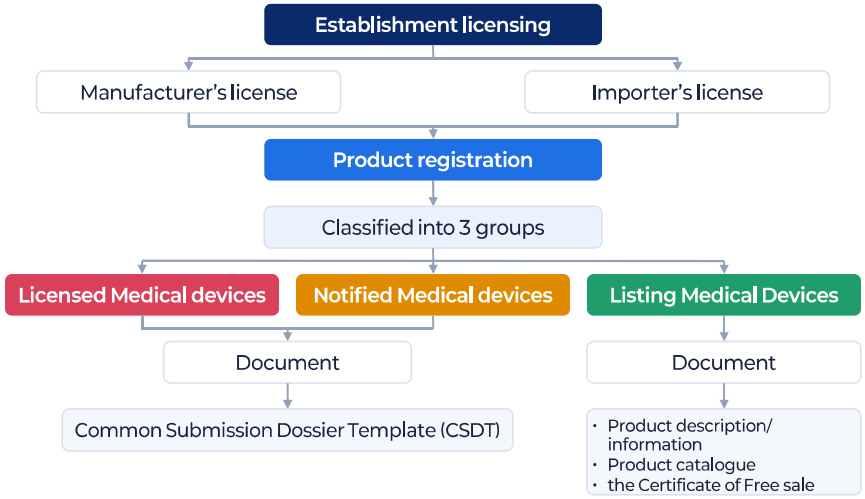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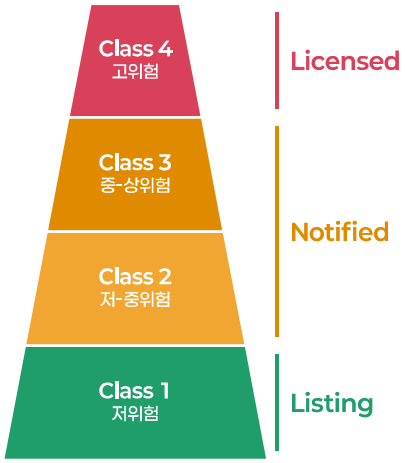
108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절차 - ①

Thai FDA 의료기기 인증 흐름



위험도별 등급 분류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절차 - ①

등급별 비용 및 소요시간

Class	구분	신청 비용	평가 비용 (필요 시)	발급 비용	소요시간
Class4	제조	1,000 THB	**42,400 THB**	10,000 THB	200~300 근무일
	수입	1,000 THB	**53,000 THB**	20,000 THB	
Class3 Class2	제조	1,000 THB	**30,400 THB**	5,000 THB	150~250 근무일
	수입	1,000 THB	**38,000 THB**	10,000 THB	
Class1	제조	500 THB	**300 THB**	1,000 THB	1~100 근무일
	수입	500 THB	**600 THB**	2,000 THB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절차

자료 :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국 (Thai FDA,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절차 - ②

Listing Medical Devices (Class 1)	Notified and Licensed Medical Devices (Class 2~4)
• 의료기기 라벨 (Medical Device Label) • 사용 설명서 (Instruction for Use) • 제품 사양 • 기기 설명 및 특징 • 제조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재료 정보 • 적합성 선언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 위임장 (Letter of Authorization) • 기타 성적서 및 증명서 (필요 시)	• 의료기기 라벨 (Medical Device Label) • 사용 설명서 (Instruction for Use) • 개요서 (Executive Summary) • 제품 설명서 (Device Description) • 안전성·성능 기준 입증 방식 (Essential Principles) • 설계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 (Summary Verification & Validation) • 위험 분석(Risk Analysis) • 제조사 정보(Manufacturer Information) • ISO/GMP 품질 시스템 인증서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 대리인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 폐기 계획 (있을 경우) • 기타 성적서 및 증명서 (필요 시)



- THAI-FDA – SINGAPORE HSA Regulatory Reliance
- Malaysia MDA – Thai FDA Pilo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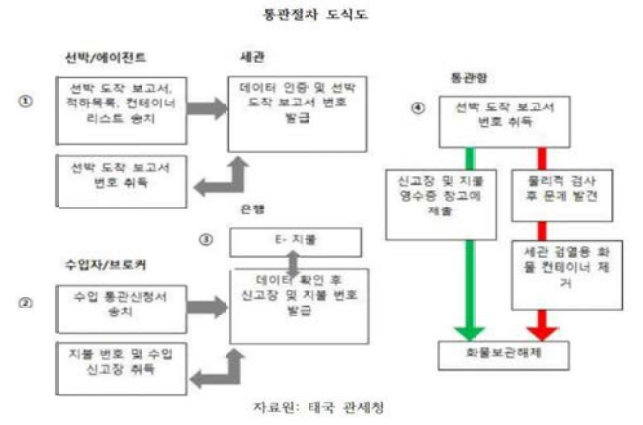
자료: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국 (Thai FDA,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111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태국 수입 통관절차 및 주요 애로사항



HS CODE 불일치

- 태국의 HS CODE는 아세안 통일 관세 품목분류(AHTN)에 따라 8자리를 채택하여 사용중
- HS CODE 불일치로 통관 보류 및 관세 추가 납부 등 발생 빈번
- 수입자 및 통관대행업체 등과 수입 전 정확한 품목분류 검토 필요
- 태국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활용 가능

제품별 수입요건 미충족

- 인증 등 수입요건 미충족 시 수입·유통 불가 및 법적 제재 가능
- 인증은 수입자가 진행하며, 수출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공
- 최근 정부는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저가 수입품 및 미인증 제품의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규격·인증 등의 준수 여부 단속 중

원산지증명서 엄격 검증

-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 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기준에 맞게 발급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음
-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 불가 또는 정정될 때까지 통관 보류
- CO상 내용(구두점·철자 등) 엄격 검증 및 사본 불인정 등

사후심사 대응

-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 및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뉨
-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
- 빈번한 적발 사례는 HS CODE 분류 오류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태국 투자청(BOI) 감면 수입 자재의 무단 전용 및 재고 부족 등

FTA 활용 애로사례_HS CODE 불일치

수출 애로사항

콘칩류 제품을 HS CODE 1904.10 기준으로 수출면장 및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선적서류 발급

품목번호			품명 [한국 2026년]	
			한글	영문
1904	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1904	10	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Corn flakes
1904	10	2000	콘 칩	Corn chip

바이어측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를 1905.90으로 변경 요청

지원내용 및 결과

- 방콕 FTA센터로 콘칩류 제품의 태국 품목분류 기준 문의
- 태국 관세청 품목분류 예시 확인 결과, 콘칩류 1905.90.80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여 안내
- 발급된 CO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수입국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등을 통해 재발급 가능 안내
- 향후 수출 품목을 위해 태국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활용 권유

시사점

- HS CODE 태국 8자리, 한국 10자리 사용
- 태국 세관은 통관 시 사용되는 선적서류 간 HS CODE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음
- 국내기업은 FTA 활용 등을 위해 수출 전 수입자와 HS CODE 확인 필요
- 태국 관세청의 품목분류 예시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 HS CODE 불일치 사전 방지 권고

* 태국 관세청 1905.90.80 분류 사례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태국 관세청, e-Advance Tariff Ruling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활용 애로사례_제조시설증명서 영문 사본 미인정

수출 애로사항

태국 식약청의 식품 등록을 위해 바이어가 국내 식품 제조업체에 **제조시설증명서** 영문본 요청

국내기업의 HACCP은 최초 원본이 한글로 발급되어 영문 사본을 바이어에게 송부

태국 식약청에서는 해당 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품 등록 및 수출 지연 발생

지원내용 및 결과

- 방콕 FTA센터로 태국 식약청 식품 제품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 문의
- 태국 식약청의 제조시설증명서 인정 서류 형태 확인하여 안내
- HACCP 인증서의 **번역본공증** 및 주한 태국대사관 **영사 인증** 후 태국 식약청 식품 등록 완료
- 2025년 초도 물량으로 약 1.5만불 수출 성약 달성

시사점

- 태국 식약청은 식품 제품 등록 시 제조시설 증명서의 원본 제출 및 진위 확인을 위한 공증 등 서류 인정에 엄격한 기준 적용
- 바이어와 서류 제출 형태 및 인정 요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등 사전 준비 필요



115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태국 관세율·품목분류 사전 확인

태국 관세청 수출입 관세율 및 인증 여부 조회 웹사이트

- 태국 관세청 Integrated Tariff Database 웹사이트
  - 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통합 관세정보 시스템
  - 태국 기준 HS CODE 및 세부 통계코드 확인
  - 품목별 기본 수입 관세율 및 FTA 협정별 특혜 관세율 조회
  - 관세 관련 법령 및 재무부 고시 확인
  - HS CODE에 따른 수입 인증 필요 여부 및 담당 기관 안내

Integrated Tariff Database

태국 수입 관세율 조회 방법

태국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e-Advance Tariff Ruling)

- 비용: 건당 2,000밧
- 서류 : 수입 의도를 나타내는 증빙 서류, 제품 세부 정보 등
- 참고 사항
  - 제품 태국 반입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신청
  - 신청서에는 태국 세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미비할 경우 판정이 무효될 수 있음
  - 판정 이의 신청 시, 신청자는 서신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정보 제출
  - HS CODE 사전 판정은 수입 통관 시 관세 분류 기준으로 인정되며 결과는 판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e-Advance Tariff Ruling

태국 식품 인증 관련 참고 자료



제조시설증명서 예시





태국 식품 허용/금지 성분

태국 전자문서 검증 서비스

자료: 태국 식약청 식품국(Thai FDA, Food Division), 태국 전자거래 개발청(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 ETDA)

태국 의료기기 인증 관련 참고 자료





의료기기 등급 분류
예비 프로그램



그룹	자리수	의미	할당코드
1	1-2	등록연도	불기 마지막 2자리
2	3	제조/수입	1=제조, 2=수입
3	4	규제 등급	1=허가(Class 4) 2=신고(Class 2-3) 3=등록(Class 1)
4	5	의료기기 유형	1=IVD, 2=Non-IVD 3=동물용, 4=기타
5	6-12	일련번호	등록 순서에 따라 부여

자료: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국 (Thai FDA,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119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현지 주요 기관 및 웹사이트

No	기관명 (한글)	기관명 (영문)	담당업무	링크
1	태국 관세청	Thai Customs Department	수출입 물품 통관, 관세 부과 등	https://www.customs.go.th/
2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DFT)	수출입 허가 및 규제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무역 구제조치, 쿼터 관리 등	https://www.dft.go.th/
3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DTN)	FTA 협상 및 체결 주관, 협정 관리 및 정책 조율, 협상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https://www.dtn.go.th/
4	태국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담당	https://www.fda.moph.go.th/
5	태국 산업표준원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	산업표준(TIS) 제정 및 인증 관리	https://www.tisi.go.th/
6	태국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BOI)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투자 프로젝트 승인, 투자 정책 수립 등	https://www.boi.go.th/

감사합니다

방콕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박현규 대리 (parkhk@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정현아 과장
(jha22@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인도네시아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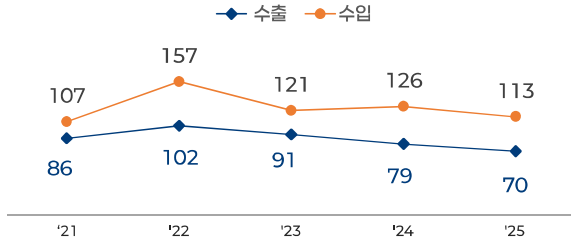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주요 수출입 품목

한국-인도네시아 교역

▶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발생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교역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86	102	91	79	70
수입	107	157	121	126	113
수지	-21	-55	-30	-47	-43



(단위: US$ 억,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인니 주요 수출입 품목 ('25)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합성수지	618	유연탄	2,054
2	메모리반도체	267	천연가스	911
3	합성고무	258	축전지	873
4	시스템반도체	232	동광	603
5	편직물	230	신발	437
6	기타정밀화학원료	202	기타정밀화학제품	399
7	냉연강판	199	직물제의류	307
8	화장품	168	식물성유지	305
9	자동차부품	158	칼라TV	285
10	아연도강판	141	합금철	269

(단위: US$ 백만,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MTI 4자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현황



	한-ASEAN FT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RCE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인니 CEP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국: ASEAN 10개국, 한국 등 총 11개국 발효: '07.6.1.부, (한국·인니 간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상품 관세 인하·철폐 및 서비스·투자 분야 협력	체결국: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발효: 한국('22.2.1.부) / 인도네시아('23.1.2.부) 주요내용: 역내 원산지 규정 통합 및 역내 원산지 재료의 누적 인정	체결국: 한국-인도네시아 발효: '23.1.1.부 주요내용: 한-아세안 FTA 대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양허 품목 수	한국 11,032개 인니 8,661개	한국 11,105개 인니 8,959개	한국 11,687개 인니 10,058개
주요품목	• 전기기기, 화학원료, 광학기기, 부품·소재 등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철폐	•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세부 품목별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	• 자동차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세부 품목별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
서비스	• 서비스 분야별 양허표에 따라 시장 개방	• 서비스 분야별 시장 개방 및 관련 규범 마련	• 유통·문화콘텐츠 등 추가 개방 및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부가통신 등 개방 약속 확대
투자	• 투자자 보호 및 투자 관련 대우 규정 마련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 제18호/2010으로 해당 투자협정 비준	• 투자 관련 대우 및 특정 이행요건 부과 금지 규정 마련	• 투자자 보호 규정 및 투자 시장개방 유보목록 합의
관세철폐 비중	< 2018년 기준 > • 품목수 한국 90.2% 인니 80.1% • 수입액 한국 93.6% 인니 88.5%	< 2013년 기준 > • 품목수 한국 90.7% 인니 89.5% • 수입액 한국 96.9% 인니 80.3%	< 2018년 기준 > • 품목수 한국 95.5% 인니 93.0% • 수입액 한국 97.3% 인니 97.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그 외 제3국과 체결한 주요 FTA

인도네시아의 주요 FTA와 해외 생산거점 활용

국가	협정명	발효/현황	활용 포인트
아세안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TIGA)	2010.5.17. 발효 개정안 2027년 6월 발효	• 현지 생산품의 인니 수출 시 **RCEP과 관세율·원산지 요건 비교**
중국	아세안-중국 FTA (ACFTA)	상품무역협정 2005년 발효 2020년 정식 발효 개정의정서 2019년 시행	• 중국 생산품의 인니 수출 시 **ACFTA·RCEP 비교**
일본	인니-일본 EPA (IJEPA)	2008.7.1. 발효 개정의정서 2026.8.1. 발효	• 일본 생산품의 인니 수출 시 **IJEPA·AJCEP·RCEP 비교**
	아세안- 일본 (AJCEP)	AJCEP 인니 특혜관세 2018.3.1. 적용	
인도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 (AITIGA)	2010.10.1. 발효	• 인도 생산품의 인니 수출 시 활용 검토, **인도는 RCEP 비참여국**
호주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2012.1.10. 발효	• 호주산은 **IA-CEPA·AANZFTA·RCEP 비교** • 뉴질랜드산은 **AANZFTA·RCEP 비교**
	인니- 호주 CEPA (IA-CEPA)	2020.7.5. 발효	

신규 협정 동향

- 국가 : EU
- 인니-EU CEPA | '25.9. 협상 타결, '26.6. EU 집행위 서명·체결안 제출

- 국가 : 캐나다
- 인니-캐나다 CEPA | '25.9. 정식 서명, '26년 말 비준 및 발효 예상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구매 수요와 시장 변화

한류·소비시장



한류 관심에서 실제 구매로

- **한류 관심이 구매의 출발점**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 82.7%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
- **영상 라이브 판매 채널의 결합**
  '25년 영상 커머스 거래 건수 전년대비 +90%
  (Google·Temasek·Bain, e-Conomy SEA 2025)
- **현지 생산 기반 로컬 브랜드 증가**
  인니 산업부에서 화장품 공급망 육성

인증·규제환경



인증·표시 대응이 시장 진입의 관건

- **할랄 인증 의무화 단계적 시행('28.10.18부)**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 **식품 영양표시 기준 개정(Nutri-Level)**
  BPOM 10호/2026년 ('26.6.17)
- **SNI 인증, PI(수입 승인) 등 강화**
  규정 발표 후 적용기간이 짧아 민첩한 대응 필요

산업·기업수요



현지 생산 확대에 주목하는 공급 전략

- **정부의 자원 가공 및 제조업 육성**
  다운스트림 투자와 현지 생산 기반 확충
- **현지 생산을 위한 공급 수요에 주목**
  완제품과 함께 원료·중간재·설비 시장 검토
- **현지 기업과 경쟁·협력 병행**
  완제품 시장의 경쟁사이자 소재·기술의 구매 고객

달라지는 구매 방식과 진입 요건, 현지 생산에서 찾는 새로운 수요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유망 품목 및 신규 수출 기회

시장변화	한류·소비시장 관심이 실제 구매로	현지 생산 육성 다운스트림·제조업 육성 → 원료·설비 수요		인프라·서비스 기반 확충 보건·전력·환경 투자 확대 → 프로젝트 수요		
유망분야	01 상품	02 상품 서비스	03 상품 서비스	04 상품 서비스	05 상품	06 서비스
	한류 연계 소비재	제조 소재·공정 고도화	농업·관개·가공기술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전력·냉각 인프라	환경·방재 기술
신규 수출 기회	한국 할랄 인증 소비재 신선 과일	현지 제조사 대상 원료·품질검사·설비관리	농업 기계화·물관리 수확 후 가공설비	진단장비 + AI 영상판독 검진관리 솔루션	데이터센터·전력망용 고사양 전력·냉각설비	폐기물 발전 설비 해안방재 설계·계측
선정 근거	한류 콘텐츠 호감도 82.7% 할랄 인증 제품 바이어 수요 증가	현지 OEM·ODM 원료 B2B 수요 신발·섬유 공장 AI 불량검사 수요	'27년 식량안보 예산 195조루피아 관개망 목표 5.6만 ha 농기계 2.4만 대 보급	'27년 무료검진 결핵관리 지속 이동형 엑스레이 활용 확대	'27년 국가우선과제 전력망·송배전망 확충 데이터센터 증가 추세	폐기물 발전 8개 지역 선정('26.7) '27년 자바 북부 해안 방재
유망품목	라면 음료 신선과일	화장품 원료 제조 AI	농기계 관개·가공설비	의료용 X-Ray AI 판독	변압기 칠러·열교환기	환경설비 해안 계측

품목별 진출 전 인증제도 및 비관세장벽 확인 필수 — 할랄 의무화 ('28.10.18~) | Nutri-Level 영양표시 | SNI 인증 | PI 수입승인 | TKDN(국산부품사용요건)

131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주요 인증

구분	SNI	BPOM	보건부 인증	Halal
인증마크	SNI	BADAN POM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HALAL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 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니 보건부)	Badan Pentelenggara Jsminan Produk Halal (BPJPH, 인니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	의무	의무	단계적 의무화(식음료 '24.10월, 수입품·화장품 등 '28.10월 부터)
주요 적용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등 규제 대상 표준 수 : 171개('26)	식품,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전반
신청주체	제품 수입업체	제품별 유통허가(PSB) 보유 제품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허가(IPAK) 보유 제품 수입업체	제조사도 가능
획득 소요기간	6개월 ~ 13개월	2개월 ~ 2년	2개월~1년	21~41일(컨설팅 사 별 상이)
획득 소요비용 (제품 당)	USD 10,000 ~ 20,000 (실사비용 포함)	USD 700 ~ 5,000	USD 1,000 ~ 5,000	USD 15,000~18,000
유효기간	4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영구(원료,공정 변경 없을 시)
타국 인증 상호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한국할랄인증원 한국이슬람중앙회 BIC 할랄 코리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인니 통합 할랄협력센터 지엘할랄인증센터

기타 비관세장벽

TKDN	사전수입승인(PI)
용 어	
▸ 자국산콘텐츠비중 (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 Persetujuan Impor
목 적	
▸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제품의 일정 비율은 인도네시아산 원료·부품 사용	▸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수입 총량 관리 감독
적용 분야	
▸ 인프라, 정보통신기기 등 (TKDN 비율은 품목별 상이)	▸ 농축수산물, 임산물, 타이어, 플라스틱 원료, 핸드폰, 의류 등 4,260개 품목
주요 이슈	
▸ TDKN 최소 비율 40% 확대계획 (현재 품목별 TDKN 비율은 25%~63.2%로 상이)	▸ 총수요에서 총공급을 뺀 만큼 수입승인 쿼터 배정 ▸ 해당 쿼터를 근거로 기업 수입물량 결정 및 승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추진 경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추진 경과



자료: 각 규정, KMA 748/2021·944/2024, 경제조정부 발표('26.10.16)등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할랄 인증 적용 원칙, 취득 경로, 상호인정협정 활용법

할랄 인증 적용 원칙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 품목은 인증서 또는 비할랄 표시 필수

- **할랄 인증 품목** — BPJPH 인증 또는 MRA 해외인증 등록
- or
- **비할랄 표시** — NON HALAL / MENGANDUNG BABI
- **둘 다 없음** — 규정 위반 서면 경고 (비할랄 소명 불가 시, 할랄 인증 취득 노력 필요)

비할랄 제품도 **적정 표시 시 유통 가능** · 단, 유통망 별도 진열

면제 품목 (KMA 1360/2021)

- 신선 농산물
- 신선·냉동 수산물
- 신선 우유·계란·꿀
- 광물·무기물
- 생수

첨가제·가공보조제 1개라도 추가 시 면제 자격 상실 → 할랄 인증 대상

※ 면제 입증 서류(사양서·원산지 등) 제출 필요

위반 시 제재

서면경고 → 과태료 → 제품 회수 → 허가취소

허위 할랄 표시 → 징역 5년 · 벌금 20억 루피아

해외인증 SiHalal 미등록 유통 시 회수 · 수입업자 책임

할랄 인증 취득 경로 및 MRA 한국 인증기관

※ 상호인정협정(MRA)체결 한국 할랄 인증기관 6개('26.8) · 인증기관=제조국일 때만 인정

바이어 선호

① 한국 할랄 인증서 활용 → 인도네시아에 등록 (소품목 · 시험 판매)

한국 할랄 인증 취득 (2~3개월 소요) → SiHalal 해외인증 등록 (수입업자 신청 · 15~20일, 등록 수수료 80만 루피아) → 한국 라벨 + 해외등록번호 (해외등록번호 미표기 시 유통 불가)

기간	비용	유효기간
3~4개월	인증 기관별 상이 상대적 저렴	1~3년 (인증 기관별 상이)

②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다품목 · 장기 진출)

SiHalal 신청 (5영업일 내 응답) → LPH 공장 실사 (출장비 기업 부담) → MUI 판정 → BPJPH 인증서 (BPJPH 라벨)

공장 심사원 일정 등의 사유로 인증 취득 지연 발생

기간	비용	유효기간
6개월+a	2천만원 +a (심사원 출장비까지 부담)	영구 (원료, 공정 미변경)

* 소요 기간은 원료별, 품목별, 공정별 상이하며 서류 완비 기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할랄 인증 의무화 일정 조정 및 대응

조항	적용 대상	기존	개정
160조 ①	국내 대·중견기업 식음료·도축제품	'24.10.18	유지
160조 ①a	식음료 가공·판매·유통 서비스업 신설	–	'28.10.18
160조 ②	국내 영세·소기업 식음료·도축제품	'26.10.18	'28.10.18
160조 ③	수입 식음료·도축제품 MRA 체결 고려	'26.10.17까지	'28.10.18
161조 a	천연의약품·준의약품·건강보조식품	'26.10.18	'28.10.18
161조 d	화장품·화학제품·유전자변형제품	'26.10.18	'28.10.18
161조 e	의류·모자·액세서리 등 착용 제품	'26.10.18	'28.10.18
161조 f	가정용 보건용품·생활·종교·문구용품	'26.10.18	'28.10.18
161조 g	A등급 의료기기	'26.10.18	'28.10.18
161조 b·h	일반의약품 · B등급 의료기기	'29.10.18	유지
161조 c·i	전문의약품 · C등급 의료기기	'34.10.18	유지

우리 기업 대응

① 할랄 인증 준비 기간 2년 확보
2년 유예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할랄 인증 취득 기반 마련

② 신규 규정 원문 주시
LPPH 근거 BPJPH 규정 4호/2026 폐지 정부령 및 후속 시행령 확인 필요

③ MRA 유효기간 확인
한국 인증 기관의 BPJPH 인정 범위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서류 바이어와 협의

! 유예 ≠ 면제 | **! 바이어는 여전히 할랄 선호** | **! MRA 인정 범위 확인** | **! 최종 규정 개정 동향 모니터링**

출처: 경제조정부 발표('26.10.16), 정부령 42호/2024 제160·161조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SNI 인증 개요

SNI 인증이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 BSN(국가표준청) 제정 · 소관 부처 의무 품목 지정
- 의무 품목은 SNI 없이 수입·유통 불가
- SNI인증 후 NPB(상품등록번호) 등록·표시해야유통
- 한국 등 해외 인증 상호인정 불가

의무 SNI 총계

171개

BSN '26.7 | 개정 대기 +28

부처별 의무 SNI

산업부	131
에너지광물부	31
사이버암호청	4
농업부	2
해양수산부	2
무역부	1

부처별 주요 의무 SNI 품목

산업부 · 131

제조업 제품 (산업용·소비재)

- 철강·금속
- 시멘트·유리
- 타이어
- 가전·케이블
- 완구·의류
- 생수·밀가루

에너지광물자원부 · 31

전기설비·에너지

- 차단기·콘센트
- 조명기구
- 태양광 모듈

농업부·해양수산부 · 4

농수산 가공품

- 설탕
- 정어리·참치 통조림

무역부·사이버암호청 · 5

원자재·IT 보안

- 천연고무
- IT 보안 제품

최근 확대 동향 ('25~'26 신규·개정)

'25 강판·강관 · 가전 · 타이어·윤활유 · 소금·코코아

'26 스테인리스 식판 · 정제당 · 팜유 · 밀가루 · 안전유리

137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SNI 인증 절차

SNI 인증 및 NPB 등록 절차 산업부 SIINAS → 무역부 OSS

의무 대상 확인 → SNI 인증 → NPB 등록 → SNI·NPB 표시 → 수입·유통

NPB 없으면 유통 불가

1. **SIINAS 신청** — 계정·인증 유형 선택
2. **BSKJI 서류평가** — 약 3근무일
3. **LSPro 심사·시험** — 공장심사·제품시험, 품목별 Lspro 기관 상이
4. **SPPT SNI 발급** — 유효기간 1년 · 갱신가능
5. **NPB 등록** — 무역부 · OSS

유통·통관 단계 요건

NPB 등록 상품 유통 등록번호

- NIB 보유 수입자 · SPPT SNI 제출
- OSS 전자 신청 → NPB 번호 발급
- 제품·포장 NPB 표시 + PIB 기재
-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외

Surveyor 통관 전 검증 (LS) 수입 규정 지정 품목

제조·선적 준비 (수출국) → Surveyor 검사 (선적 전) → LS 발급 Laporan Surveyor → 통관 시 제출 (세관 검토)

서류 · HS·품명 · 수량·규격 · 기술기준

출처: GNF

138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SNI 인증 절차

산업부 SNI 인증 절차

01 SIINAS 계정 개설



siinas.kemenperin.go.id

- 기업 계정 생성 (수입자 · 제조사)
- 기업 정보 등록

02 SNI 신청·유형 선택



위탁생산 | 브랜드 위탁 | 제조사 브랜드

- E-Licensing에서 **SNI 신청**
- 인증 유형 선택 후 데이터 등록

03 BSKJI 서류 평가

BSKJI Badan Standardisasi dan Kebijakan Jasa Industri

약 3근무일

- 제출 서류 검토
- 필수 데이터 확인 **(제품 · HS Code · 제조사)**

04 LSPro 인증심사

LSPro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적합성 평가

- BSKJI 평가 결과에 따라 LSPro 기관 선택
- 제품시험, 공장심사 등 인증 절차 진행

05 SNI 인증서 발급

SNI

SPPT SNI 유효 1년

- 적합성 평가 완료 후 **SNI 인증서 발급**
- SIINAS 시스템에 인증서 제출 → **SPPT SNI** 신청(갱신)

관련 부처 역할 및 발급 서류

산업부
Kemenperin
SNI 운영 · SPPT SNI 발급

→ 발급

SPPT SNI
SNI 마크 사용 인증서
유효 1년 · 갱신

→ 제출

무역부
Kemendag
NPB(상품 등록번호) 발급

주요 대상 제품 (산업부)

식품·음료	전자·전기	조명	밸브	철강·금속
생수 · 가공식품	가전 · 전자기기	LED 등	산업용 밸브	강재 · 알루미늄

출처: GNF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SNI 인증동향

SNI 인증 시 주요 유의사항

POINT 01 현지 대표법인	POINT 02 심사 · 시험	POINT 03 기간 · 비용	POINT 04 표시 · 사후관리
1개 법인 동일 제품 유형 단일 지정	**인니 시험기관** 한국 성적서 상호인정 불가	**6~13개월** 제품당 USD 1~2만	**SNI + NPB** 제품·포장 표시 의무
✓ 인증 신청·책임 주체	✓ LSPro **공장 실사** (ISO9001 기반)	! **수출 6개월 전** 착수	✓ SNI 마크·NPB 번호 표시
✓ 대표법인 **창고 등록** 필수	! 심사원 출장비 **기업 부담**	✓ SPPT SNI **1년마다 갱신**	✓ 시장 감시·유통 단속
✓ 입고 확인 후 반출	✓ 시료 시험·대기 기간 발생	✓ 인증서 유효 4년 · 정기 감시	! 규격 **개정 시 재인증** 확인
! 복수 수입사도 **대표법인 경유**	✓ 식품 제조사: ISO22000·HACCP 등	✓ SKU·공정별 견적 상이	✓ 제조사·공정 변경 시 재심사

기업 애로사례
A사 · 옥수수 전분

Q 기존 여러 수입사와 거래 중인데, 제품이 신규 SNI 의무 대상이 되면?

A **대표법인 1곳**을 통해 각 수입사가 SNI 획득 → 대표법인 창고 경유로 **행정·물류비 증가**, 사전 유통구조 재설계 필요

출처: GNF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유의사항

수입 통관 유의사항

STEP 1 수입자 요건
- **NIB** = 수입자번호(API) 검용
- API 없으면 **PPh22 7.5%**
- 품목별 수입자격 확인

STEP 2 인증·허가 확인
- 제품 인증 **SNI·BPOM·할랄**
- **PI·LS·부처 승인**(Lartas)
- INSW에서 HS로 조회

STEP 3 서류 일치
- CI · PL · B/L · C/O
- **HS·품명·수량** 동일
- **수취인 = 수입 법인**

STEP 4 신고·납부
- 수입신고(PIB) 전자 제출
- 관세 · PPN · PPh22 납부
- FTA 적용 시 **C/O** 함께 제출

STEP 5 검사·반출
- 위험도별 검사 채널 배정
- 레드 = **물리 검사·지연**
- 반출 후 사후심사 가능

인도네시아 수입 제세 구조 FTA는 관세만 낮춰줄 뿐, 수입세금은 부담해야 함

과세가격 CIF + 관세 MFN 또는 FTA 세율 = 수입가격 Nilai Impor → PPN·PPh22 과세표준

PPN 12%	PPh22 2.5%	PPh22 7.5%	+ PPnBM
일반 품목 실효 11%	API 보유 수입자	API 미보유	사치품 해당 시

FTA는 관세만 ↓

141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FTA 활용 애로사례 – 원산지·협정세율

원산지·협정세율 – 기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실제 VOC 사례 '25~'26

한-아세안 FTA AKFTA | RCEP | 한-인니 CEPA IK-CEPA | ⚠

CASE 1 합성수지 A사
상호대응세율 적용

- 문제: AKFTA C/O 제출 0% 아닌 **5% 부과**
- 원인: 한국이 **민감품목**으로 지정 → 인니 '상호대응세율' 지정 한국산 5%
- 대응: 정부 간 협정은 개별 제외 불가 **계약 전 민감품목 지정 확인**

CASE 2 철강 B사
양허표 ≠ 실제 세율

- 문제: 양허표 6% vs 인니 고시 **4.8%**
- 원인: 3개 협정 중 **최저세율** 별도 존재
- 대응: **INSW에서 HS별 최신 세율 조회**

CASE 3 제조 C사
종이 C/O 폐지 소문

- 문제: "종이 C/O 발급 중단" 고객사 통보로 혼선
- 원인: PMK 35/2023 **종이·전자 C/O 병행**
- 대응: e-SKA 협정은 전자 확인 **입항 세관 사전 확인**

CASE 4 설비 D사
FTA 0% ≠ 세금 0

- 문제: 수입 제세 산정 바이어와 이견
- 원인: 관세 외 **PPh22 2.5%** + **PPN** 별도 부과
- 대응: CIF 기준 과세가격 **HS 확정 후 총세액 합의**

무역관 Tip 세율은 INSW 기준

1. 협정세율은 INSW(insw.go.id/intr) 최신 고시 확인
2. AKFTA·RCEP·IK-CEPA 3개 협정 세율 비교
3. 민감품목은 상호대응세율 여부 사전 점검
4. 관세 외 PPh22·PPN 포함 총 세액 산정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FTA 활용 애로사례 – 샘플·수입허가

샘플·수입허가 – '샘플이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흔한 실수

샘플 = 일반 통관 | BPOM | 선적전검사(LS) | 수입승인(PI) | 부처 사전승인

CASE 1 화장품 E사
전시용 화장품 휴대 반입

- 문제: BPOM 미등록 샘플 캐리어 1개 분량 반입
- 원인: 미등록 휴대 **최대 20개** 전시용 **품목당 10개**
- 대응: 재반출 시 **임시수입** 소진 시 관세·PPN 과세

CASE 2 통신모듈 F사
특송 샘플 서류 요구

- 문제: 특송사, 수취인에게 **LS·수입허가** 요구
- 원인: 샘플도 **일반 통관** HS별 요건 동일 적용
- 대응: **수입자가 LS·PI 신청** 바이어와 사전 협의

CASE 3 비료 G사
비료 테스트 샘플

- 문제: 실증용 소량 샘플 통관 지연·폐기 우려
- 원인: 비료는 샘플도 **농업부 사전승인**
- 대응: 현지 거래처가 **온라인으로 신청**

CASE 4 전자부품 H사
IC칩이 총기류 규제?

- 문제: INSW 조회 결과 **총기류 수입허가** 대상
- 원인: HS 단위 Lartas 지정 (INSW·세관 확인)
- 대응: **경찰청 면제 레터** (총기 부품 아님 명시)

무역관 Tip 샘플도 수입이다

1. 샘플도 HS별 요건(LS·PI·사전승인) 동일
2. 인허가는 대부분 수입자 명의로 신청
3. 발송 전 INSW 수입규제(Lartas) 조회
4. BPOM 미등록 화장품 반입 수량 준수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네시아 FTA 활용 애로사례 – 통관 지연 및 대응 포인트

통관 지연 실제 사례와 대응 포인트

EMS 화물 통관 지연 — 소방용품 1사

경과
4/8 EMS 발송 → 4/11 자카르타 도착 → 통관 미완료
인보이스 USD 6,400 · 운송장 상 수취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 이름

원인
운송장(개인) ≠ CI·PL(법인) → **법인 명의 수령 불가**
개인 한도 금액 초과 → 간이통관 아닌 일반 수입통관 대상

대응
① 수입 인허가 대상 여부 확인 ② 수입자 정정 신청
③ 정정 불가 시 반송 → 법인 명의로 재발송

시사점
대사관 레터로도 해결 한계
고가 샘플은 처음부터 수입 법인 명의로 발송

대응 포인트

1. **세율은 INSW 기준**
양허표·고시 차이 → 3개 협정 최저세율 확인
2. **민감품목 사전 점검**
상호대응세율 대상이면 FTA 0% 미적용
3. **샘플도 정식 수입**
LS · PI · 부처 사전승인 동일 적용
4. **수입자 명의 일치**
운송장 · CI · PL 수취인 = 수입 법인
5. **규제 오분류는 소명이 필요**
면제 레터 등 근거 서류로 세관 대응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VOC · FTA센터 통관·원산지 상담

INSW (insw.go.id/intr)
HS별 관세율 · 수입규제 조회

무역관 통관 자문위원
KOTRA 경유 시 초도 상담 무료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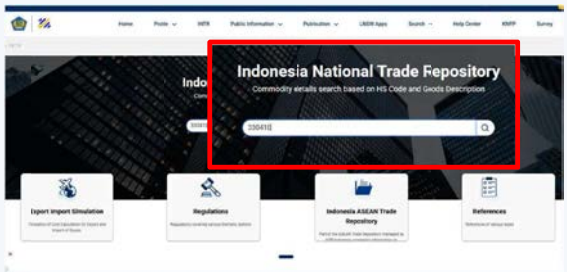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활용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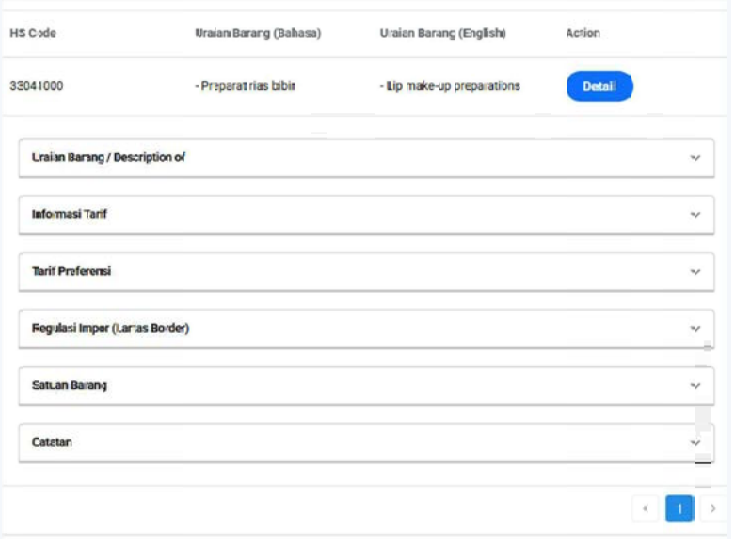
HS 330410(립 메이크업)제품 예시 수입자, 수출자가 동일한 HS코드로 서류를 준비해야 FTA 적용, 정상 통관 가능

1 https://insw.go.id/intr 접속 및 HS코드 입력



2 Detail 클릭 -> 세부정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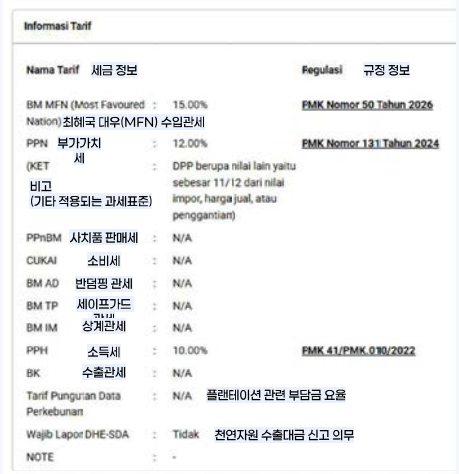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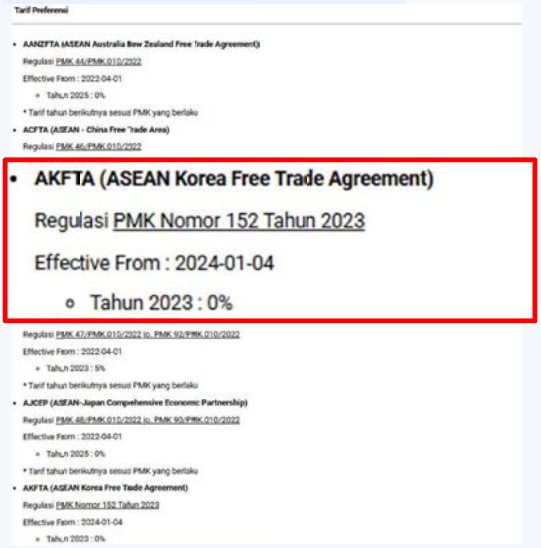
FTA 활용 체크리스트

HS 330410(립 메이크업)제품 예시 수입자, 수출자가 동일한 HS코드로 서류를 준비해야 FTA 적용, 정상 통관 가능

3 Informasi Tarif : 수입 관세 및 세금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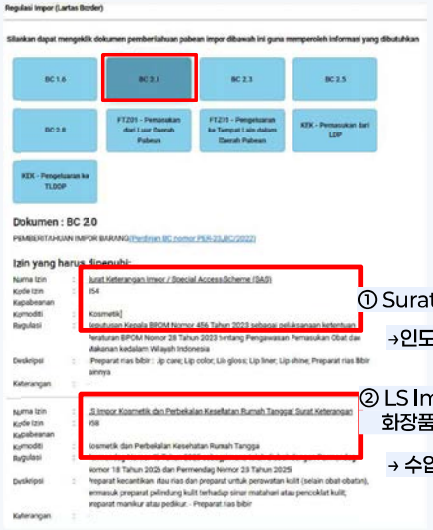
4 Tarif Preferensi : FTA별 특혜관세율 확인



HS코드별 수입 규제, 수입 통관을 위해 필요한 인증 등

HS 330410(립 메이크업)제품 예시 수입자, 수출자가 동일한 HS코드로 서류를 준비해야 FTA 적용, 정상 통관 가능

5 Regulasi Impor (Lartas Border): 수입규제 및 수입 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확인



BC 1.6	보세구역 내 화물 반입 관련 신고
BC 2.0	일반 수입신고
BC 2.3	보세구역 반입신고
BC 2.5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할 때의 신고
BC 2.8	특정 보세·물류시설 관련 반출입 신고
FTZ01 - Pemasukan dari Luar Daerah Pabean	자유무역지역(FTZ)으로 관세영역 밖에서 물품 반입
FTZ01 - Pengeluaran ke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 다른 관세지역으로 물품 반출
KEK - Pemasukan dari LDP	경제특구(KEK)로 관세영역 밖에서 물품 반입
KEK - Pengeluaran ke TLDDP	경제특구에서 국내 다른 관세지역으로 물품 반출

① Surat Keterangan Impor / Special Access Scheme (SAS) : 수입확인서 / 특별접근제도(SAS)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관련 수입 확인서(유통신고와 통관단계에서 요구하는 수입확인서는 별개)

② LS Impor Kosmetik dan Perbekalan Kesehatan Rumah Tangga / Surat Keterangan : 화장품 및 가정용 보건용품 수입검사보고서 / 확인서

→ 수입검사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수입품에 대해 기술검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발급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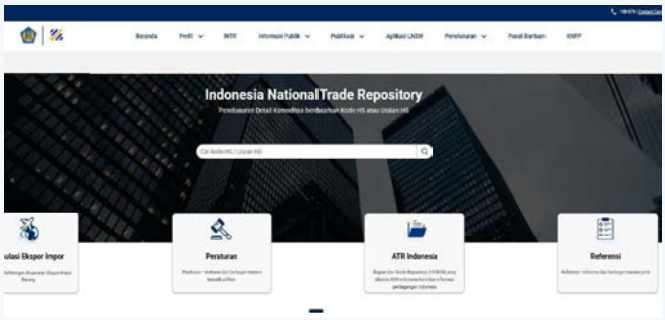
06 참고사항

06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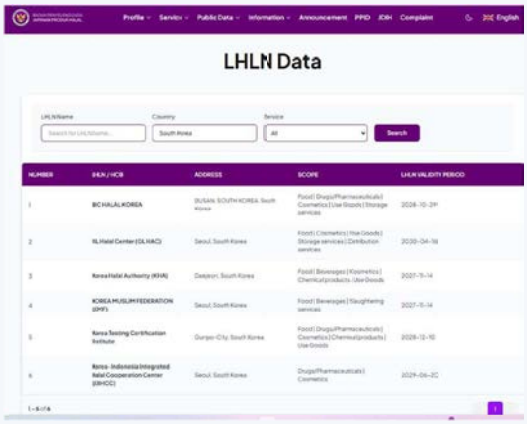
① INSW : HS 코드별 수입관세율, 적용 수입규제 등 확인

https://insw.go.id/intr



② 할랄 교차인증 기관 확인, 주요 규정 업데이트

https://bpjph.halal.go.id/cari/lembaga-halal-luar-neg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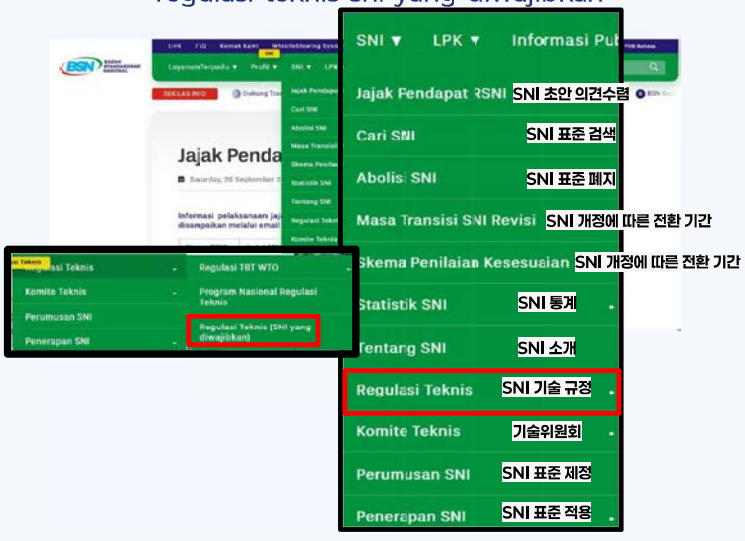
151

06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

③ SNI 의무 인증 규정 확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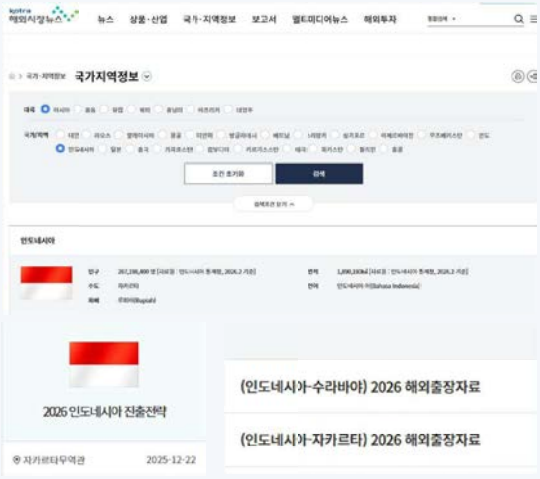
https://bsn.go.id/main/berita/detail/11826/regulasi-teknis-sni-yang-diwajibkan



④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국가별 진출전략, 출장자료 등

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152

감사합니다

자카르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정현아 과장 (jha22@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호치민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유리 관세사 (yrlee@kotra.or.kr)
하노이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yeoram@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베트남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베트남은 아세안 4위 경제대국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상대국 (수입 2위·수출 3위)

베트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수출	3,713(10.5)	3,546.7(△4.6)	4,059.4(14.4)	4,750.6(17.0)	2,665.1(21.0)
수입	3,589(7.8)	3,263.7(△9.2)	3,809.9(16.7)	4,550.1(19.4)	2,831.7(33.4)
수지	124	280	247.7	200.5	-166.6

*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2026년 상반기 주요국 베트남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국 가	수출액
미국	864
중국	379
한국	158
일본	148
홍콩	109

국 가	수입액
중국	1,151
한국	423
대만	226
일본	136
미국	112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관세총국, KITA, KOTRA 자료 종합

한국과의 주요 수출입 품목

메모리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전자·통신 관련 제품 수출입 확대 추세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26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반도체	24,361	114.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155	22.6
석유 제품	1,777	66.2
무선통신기기	1,057	-8.3
합성수지	1,021	-4.6
기구부품	862	0.1
플라스틱 제품	546	5.8
철강판	442	-8.2
계측제어분석기	412	27.4
컴퓨터	376	171.2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26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무선통신기기	3,533	58.7
반도체	2,867	37
컴퓨터	2,021	45.9
의류	1,455	-7.7
산업용 전기기기	1,159	22.6
신발	569	-5.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12	27.3
기구부품	401	18.1
계측제어분석기	370	5.9
자동차 부품	263	7.5

*자료: KITA, MTI 3단위 기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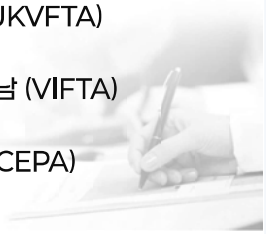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현황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11+1*개

- 1996.01.01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 2005.01.01 중국-아세안 (ACFTA)
- 2007.06.01 한국-아세안 (AKFTA)
- 2008.12.01 일본-아세안 (AJCEP)
- 2010.01.01 인도-아세안 (AIFTA)
- 2010.01.01 호주-뉴질랜드-아세안 (AANZFTA)
- 2016.10.05 베트남-EAEU FTA
- 2019.01.1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9.06.11 홍콩-아세안(AHKFTA)
- 2020.08.01 EU-베트남(EVFTA)
- 2022.01.0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26.07.02 * 베트남-EFTA FTA (협상타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6개

- 2009.10.1 일본-베트남 (VJFTA)
- 2014.01.01 칠레-베트남 (VCFTA)
- 2015.12.20 한국-베트남 (VKFTA)
- 2021.05.01 영국-베트남 (UKVFTA)
- 2024.10.15 이스라엘-베트남 (VIFTA)
- 2026.02.03 UAE-베트남 (CEPA)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159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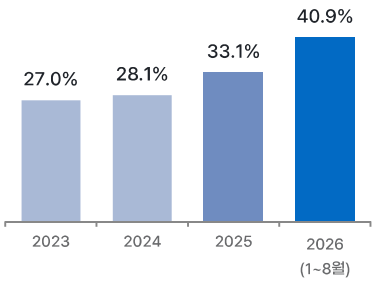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최신 구매 수요 및 시장변화

기업은 생산 확대를 위한 원부자재 공급 중심, 소비자는 편의·품질를 비교하여 구매하는 구조로 전환

기업 단순조달 → 생산재· 공급망 대응 조달

베트남 총수입 중 전자제품·부품 비중(%)



27.0% → 40.9%
전자제품·부품 수입 비중

13.3% → 15.2%
한국산 수입 점유율

+68.3%
전자제품·부품 수입 증가율
(2026.1~8월, 1,616억 달러)

▸ 1~9월 수입의 94.1%가 생산재(부품·소재·설비), 소비재는 5.9%

소비자 가격 → 품질·브랜드, 오프라인 → 온라인

과거		현재	
가격 중심 구매	→	성분·기능 따져 구매	**56%** 소비자 중 2026년 건강 지출 확대 계획
오프라인 매장	→	쇼피·틱톡숍 소셜커머스	**68%** 두 플랫폼의 전자 상거래 점유율(2025)
가족이 돌봄	→	전문 서비스 구매 (산후조리·헬스케어)	**12%→37%** 제왕절개율 (2005→2022)

▸ 소매판매 1~9월 +13.4%, 외식·숙박 +16.7%로 서비스 소비가 더 빠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수출 유망품목

향수·화장수



- 중산층 확대와 퍼스널 브랜딩 수요로 향수 시장 세분화 확대
- 데일리 향수·바디미스트·선물세트 중심 진입 유망

기초화장품(스킨케어)



- K-뷰티 선호와 기능성 수요 확대로 한국산 경쟁력 우위
- 진정·미백·선케어 제품과 온라인 채널 연계가 효과적

의료기기



- 수입 의존도가 높고 병원 현대화·고령화로 수요 확대
- 등록·입찰·A/S 역량을 갖춘 현지 파트너 확보가 핵심

반려동물 사료·용품



- 반려동물 가족화로 프리미엄 사료·간식·위생용품 수요 증가
- 영양·안전성·브랜드 신뢰를 강조한 중고가 제품 유망

콜드체인 운송 서비스



- 신선식품·의약품 유통 확대에 따라 냉장물류 투자 수요 증가
- 항만·공항 인근 거점과 ICT 기반 스마트 물류 솔루션 유망

온라인 교육(Ed-Tech)



- 정부의 디지털 교육 정책과 젊은 인구 기반으로 고성장 예상
- 한국어교육·직업훈련·학습플랫폼·AI 콘텐츠 협력 유망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수입통관 이슈사례 및 대응방안

사례 1. 화학물질 유권해석 변경

1 **내부감사**
지방세관 내부 감사에서 이미 수입된 케미컬 부자재가 문제로 지적됨

2 **유권해석 변경**
구 규정상 불명확했던 라이선스 요건을 '당시에도 필요했던 절차'로 재해석

3 **이중 리스크**
수입자격 문제와 케미컬 라이선스가 동시 발생

4 **협의 결과**
세관 설명·본사 보고, 자료 소명으로 세관 협조를 이끌어냄

대응 방안
- 통관이 끝난 건도 사후심사 대상 가능
- 품목별 라이선스·수입자격 사전 확인
- 성분·HS·용도 기준 자체 점검

사례 2. 중고설비 정보 불일치

1 **세관검사**
신품 신고 3대는 중고 의심, 중고품 신고 4대는 서류 불일치 지적

2 **QUATEST 검사**
품질검사기관(QUATEST)이 신품을 중고로 판정, 명판·라벨 정보 불일치 확인

3 **세관 판단**
"의도적 허위신고'로 보고 공안 이첩 가능성까지 검토

4 **협의 결과**
경위 설명과 협의 끝에 신품 신고분을 중고로 정정 후 통관

대응 방안
- 실물·명판·라벨·서류 1:1 일치
- 신품/중고 혼적 시 선적 전 점검
- 검사기관 FAIL 사유·추가서류 즉시 확인

수입통관 이슈사례 및 대응방안

사례 3. 하이퐁 집중통관·과세가격 심사

'26.2.1 Circular 121 시행 → '26.6.1 하이퐁 집중통관 시범 → 가격협의·추가소명 증가

발생 이슈
- 유통용 완제품 인보이스 가액 심사 강화
- 추가서류 요청·추가세금 납부로 비용 증가
- 6월 이후 상위 세관 자동보고로 협의 난도 상승

조치
- Official Consultation Letter 신청
- 화물 우선 반출로 물류 흐름 유지
- 약 30일 후 결과에 따라 Duty·VAT 추가 납부

유의사항
- 가격표·계약·할인조건 등 근거 준비
- 가격협의 기간과 세액을 비용계획에 반영
- 관할 부서 가격 산정 내역 사전 확인

대응 방안
- 인보이스 가격 근거자료 사전 구비
- 가격협의(Tham vấn) 대비
- 관할 통관팀 사전 확인

사례 4. 콜라겐 수입 –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

베트남 기준	≠	수출국(한국) 기준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제품 등록·수출국 증명서 요구		동일 제품이라도 발급 가능한 증명서가 다름

▸ CFS·HC·수출증명 발급 불가 → 제품 등록 지연 → 수입 일정 전체 지연

*** 필요서류**
자유판매증명서(CFS)·수출증명서·위생/보건증명서(HC) 中 1
검사성적서, 기능성 입증자료, GMP인증서 등

대응 방안
- 계약 전 베트남 기준 품목분류 확인
- 수출국 발급 가능 증명서 사전 확인
- 건기식은 등록 심사기간을 판매 일정에 반영

베트남 최근 제도 개편 및 시행동향

식품안전법 시행령「Decree 46/2026/ND-CP」: 2026.07.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 개정안 의견수렴 中

❖ **자가선언(Self-declaration) 축소 및 적합성 선언 등록 강화**

☞ 자가선언 대상 축소, 기술규격 적합성 선언 등록 의무 확대

☞ 식품 용기, 도구, 포장재 등도 등록 및 수입 시 국가 식품안전 검사대상

❖ **라벨링 및 광고 규정 세분화**

☞ GMO 함량 5% 초과 시 라벨 표시 의무

☞ 의료용 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광고 및 표시사항 사전등록 및 심사기준 강화

- 시행일이 유예되었으나 적합성선언 등록 등 강화된 관리체계가 향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요
- 라벨링, 원산지, 광고 표시 등 작은 불일치도 통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 점검 필요

베트남 최근 제도 개편 및 시행동향

내국수출입제도(On-the-Spot EX & IM)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 동향

❖ **2025년 7월, 내국수출입 제도 관련 법 개정**

☞ 기존 논란의 핵심이었던 '베트남에 상주하지 않는 외국상인' 제한조건 삭제

☞ 내국수출자 적용범위 확대, 실질적인 수출거래 및 적법한 절차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으로 전환

❖ **개정취지를 고려한 소급적용의 가능성**

☞ 종전 외국상인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래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재검토될 여지 존재

☞ 베트남 국세국은 지방세무국에 관세국의 의견, 실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지시('26.09.15)

개정 취지에 따른 과거 거래 재검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후속 지침이나 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개정 관세법 주요 내용 (2027.03.01 시행 예정)

전자상거래 관리·준법관리·보완신고·지식재산권보호·사후 세관조사 등 통관 전 과정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전자상거래	준법관리	보완신고	지식재산권	세관조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통한 수출입 관리 강화	준법등급에 따라 검사·사후심사 차등	보완신고 기준 및 보완신고 명확화	지식재산권(IP) 관련 수출입물품 통관절차 강화	통관 사후 세관조사 (PCA) 기간 및 절차 정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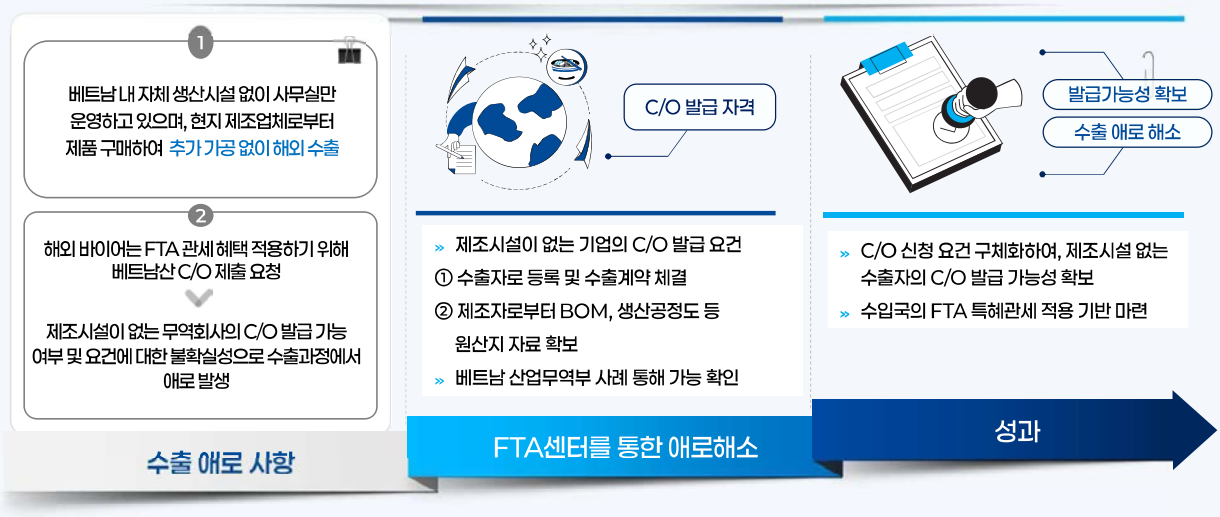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활용 애로 사례

▌제조시설 없는 무역회사의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애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활용 애로 사례

DKD 방식 완성차의 ATIGA Form D 발급 애로

수출 애로 사항

1. 완성차를 DKD 모듈로 분해하여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수출 예정
   *DKD: 완성된 제품을 여러 모듈·부품으로 분해해서 수출한 뒤, 수입국에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
2. DKD 상태의 수출물품을 완성차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불확실

   ↓

   완성차로 HS 분류 시 ATIGA Form D 발급 및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FT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HS 해석통칙

- HS 해석통칙(GRI) 2(a)에 따른 DKD 물품의 완성차 HS 분류 가능성 검토
- 완성차의 본질적 특성 및 구성품 완전성, 수출서류·차대번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완성차 HS Code 적용 및 ATIGA Form D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성과



발급가능성 확보

수출 애로 해소

- DKD 수출 시 완성차 HS Code 적용 및 Form D 발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캄보디아 수출 시 ATIGA 특혜관세 활용 가능성 검토 기반 마련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활용 체크리스트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제조되는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가공을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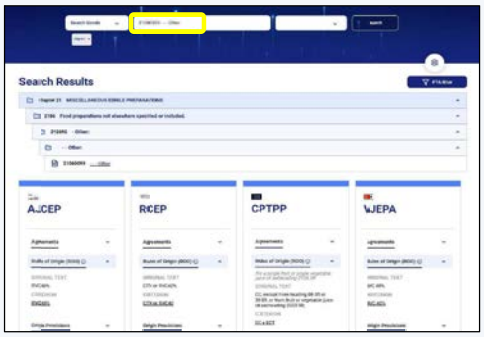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 **세번변경기준**
  - 완제품의 HS 세번과 원재료의 HS 세번이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부가가치기준**
  - 원산국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가격비 이상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
- **가공공정기준**
  - 제조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 공식 포털에서 확인 가능



173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활용 체크리스트

▌국가간 HS CODE 차이 발생

※ 분류 결과

베트남 수출, 수입 물품 목록의 제9002호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의 소호 제9002.90호 "-기타"의 제9002.90.90호의 "--기타"으로 분류한다.

결정세번	9002.11.9090
결정일자	2011-05-06 (품목분류 1과-241)
품명	LENS 1.3M 1/4/MM4H (거래품명: 휴대폰용 카메라렌즈) /// KORE
물품설명	물품개요 - Lens(glass lens 1개, plastic lens 3개) 및 Barrel, Spacer, Set ring 등으로 구성되어, CMOS Image Sensor 기반 휴대폰용 디지털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Lens Ass'y 물품
결정이유	(중략) 관세율표상 제8525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사용되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과 6에 따라 제9002.11호의 대물렌즈 중 카메라용의 것으로서 제9002.11-1000호의 사진기용 (for photographic cameras)이 아닌 "기타의 기타"(제9002.11-9090호)로 분류함

174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TA 활용 체크리스트

베트남 품목분류 확인 방법

1. 품목분류 사례 참고



2. 베트남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참고 사이트

베트남 법령 사이트

https://thuvienphapluat.vn/



베트남 수입 관세율 참고 사이트

https://www.customs.gov.vn/



베트남 HS, PSR 참고 사이트

https://vntr.moit.gov.vn/



베트남 관세 정책 참고 사이트

https://mof.gov.vn/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정보제공



FTA 홍보활동

- FTA활용설명회 개최
- FTA실무활용가이드북 제공
- 월간 비즈니스 뉴스 레터 제공

활용상담



FTA 상담서비스

- **상시상담** : 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등 FTA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진행
- **이동상담** : 현지기업,진출기업 밀집지역 방문상담
- 헬프데스크 : 전시회, 상담회 FTA활용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애로해소 지원



활용 애로해소 지원

-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지원 등

| FTA 자문단: 법률·통관 등 기능별, 전자·기계 등 산업별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감사합니다

호치민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유리 관세사 (yrlee@kotra.or.kr)
하노이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yeoram@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필리핀

마닐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

강병훈 대리
(benzkang@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필리핀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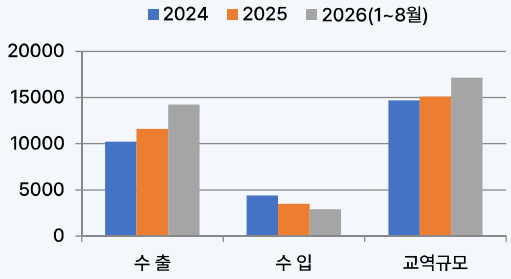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 주요 수출입 품목

한국 對필리핀 수출입 및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4	2025	2026년 (1-8월)
수출	10,246	11,616	14,243
수입	4,431	3,500	2,923
교역 규모	14,677	15,116	17,166



5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2025년		2026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11,616	13.4	14,243	93.4
1	83	전자부품	3,360	40.3	7,775	321.3
2	13	광물성연료	3,587	-4.0	3,543	44.9
3	74	수송기계	1,034	154.4	361	-44.8
4	62	비철금속제품	388	14.0	299	9.5
5	22	정밀화학제품	416	15.7	273	1.8

5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코드	품목명	2025년		2026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3,501	-21	2,923	27.8
1	83	전자부품	1,116	-7.9	878	16.1
2	84	전기기기	745	-32.3	734	82.3
3	01	농산물	501	-13.1	334	-4.4
4	81	산업용잔자제품	228	12.3	211	39.2
5	62	비철금속제품	195	-41.2	159	16.1

자료: KITA

183

필리핀의 주요 FTA 체결 현황

한국과의 FTA

-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PFTA) - 2024.12.31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23.06.02
- 아세안-한국 포괄적 경제협력협정(AKFTA) - 2007.06.01

필리핀 양자 FTA

- 필리핀-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EFTA FTA) - 2018.06.01
-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PJEPA) - 2008.12.11

ASEAN 관련 FTA

-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 2019.01.01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협정(ATIGA) - 2010.01.01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 2010.01.01
- 아세안-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AIFTA) - 2010.01.01
-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AJCEPA) - 2008.12.01
- 아세안-중국 포괄적 경제협력협정(ACFTA) - 2005.07.01

자료: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FTA 포털

184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필리핀 개황

GDP
4,871억 달러 (2025)

중위연령
26.6세
젊은 소비인구 기반

인구
약 1억 1,770만 명

해외송금액
약 396억 달러 (2025)

언어
따갈로그어(Tagalog), 영어(English)

소셜미디어 이용자
약 9,580만 명 / 전체 인구의 81.9%
주당 평균 사용시간 33시간 50분

자료: 필리핀 중앙은행(BSP), 필리핀 통계청(PSA), PwC

186

소비자 트렌드

가성비·선별소비 강화

2026년 2분기 가계소비 증가율 2.8%(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 둔화. 식품·생활필수품 중심으로
가격·품질·프로모션을 비교하는 Value-for-Money 소비 확대.

디지털·소셜커머스 확산

Shopee·Lazada·TikTok Shop 중심의 모바일·라이브커머스 구매 일상화.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콘텐츠와 제품 후기·평점의 구매 결정 영향 확대.

K-소비재 수요 지속

K-푸드·K-뷰티·헬스케어에 현지 바이어 관심 지속. 2026년 3월 KOTRA 주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한국기업 52개사·필리핀 바이어 70개사 참가, 1,640만 달러 규모 계약 11건 체결.

제조업·산업재 구매수요 확대

2026년 상반기 PEZA 투자승인 1,407억 페소(전년 대비 +94.4%). 전자제조업 투자 1위, 한국도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전자부품·생산설비·자동화·산업용 소재 관련 B2B 수요 확대.

친환경·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

2026년 1~8월 EV 판매 66,685대(전체 차량 판매의 약 24.7%), 충전소 1,876개로 증가.
태양광·ESS·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로 관련 기자재 구매수요가 빠르게 증가.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TikTok, NIQ

유망 품목 및 신규 수출 기회

자동차·부품

한-필 FTA: 즉시 또는 5년 내 관세 철폐

즉시: 승용차, 화물차(일부)

5년 내: 화물차(일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일반 자동차·부품은 한-필 FTA를 통한
관세철폐·인하 효과 기대

친환경 모빌리티

행정명령 제62호에 따라 2028년까지 MFN
관세 0% 적용

대상: 배터리 전기차(BEV),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및 일부 관련 부품도 포함

K-소비재·화장품

가공식품, 간편식, 소스류, 건강식품,
화장품·스킨케어

중산층 확대와 젊은 소비층 중심 수요 성장

한류 인지도와 현지 인플루언서 협업으로
브랜드 인지도 구축·시장 진입

TikTok Shop·Shopee·Lazada,
Facebook·Instagram 등 활용

전자·반도체 산업재

다수 품목은 이미 MFN 0%, 일부 품목은 관세
적용

반도체, IC, PCB, 전자부품, 제조장비, 센서 등

필리핀 반도체·전자제품 생산기지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한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전자부품·산업용 기자재 등 중간재
수출 기회 확대

재생에너지·ESS

태양광 모듈, 인버터, PCS, ESS 배터리, BMS,
전력기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 정책
추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관련 전력기자재 수출 기회 확대

건설·스마트 인프라

철강재, 케이블, 변압기, 펌프, 건축자재,
스마트센서·통신장비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Build Better More)
및 스마트시티·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한국산 건설기자재·스마트 설비 및 ICT 솔루션
수출 기회 확대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주요 수출 형태

1. 현지 수입·유통업체 활용

수출 구조

한국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고, 독립적인 필리핀 수입·유통업체가 수입통관과 현지 판매 담당

한국기업

수출서류와 원산지증명 제공
제품·인증 관련 자료 제공

필리핀 수입업체

BOC 수입자 등록, 품목별 FDA·BPS 허가·인증
통관, 관세·세금 납부 및 유통

2. 현지법인 직접 수입·유통

수출 구조

한국기업이 설립한 필리핀 자회사·현지법인이 수입자로서 직접 수입하고 현지 유통 담당

한국 본사

생산·수출
원산지증명 및 제품 관련 자료 제공

필리핀 현지법인

수입자 등록, 허가·인증 및 통관
창고·재고 관리, 영업·유통

HS CODE 정확성 - 수출 절차의 출발점

수출 전 품목분류 확인

HS Code에 따라 관세율·FTA 원산지 기준·수입요건이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 필수

한국 HSK와 필리핀 세번 구분

국제적으로 공통인 것은 HS 6단위까지. 이후 세부 코드는 국가별로 달라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도록 유의

사전심사결정(Advance Ruling) 활용

불명확한 분류·반복 수출 핵심 품목은 필리핀 세관 사전심사 활용 가능. 한-필 FTA상 품목분류·원산지·관세평가 방법 대상

필요한 정보 접수 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결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 3년간 유효

계약·선적 전 교차 확인

현지 수입자·통관사와 HS Code를 교차 확인하고, 고액·반복 수출품은 사전심사 활용 검토

원산지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명 절차

1. 원산지기준 확인

판정 절차

1. HS Code 확인
2.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확인
3. 원재료·생산공정 검토
4. 한국산 여부 판정

주요 원산지 기준

완전생산기준(WO): 한국에서 완전히 생산·획득
세번변경기준(CTH·CTSH): 비원산지 원재료와 완제품 간 HS Code 변경
역내가치비율(RVC): 한국·필리핀 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품목별 PSR: 일반 기준보다 해당 HS 품목 기준 우선

2. 원산지증명 및 특혜관세 신청

증명·신청 절차

원산지기준 충족 후 증빙자료 준비
원산지증명 발급·작성, 필리핀 수입자에게 제공
특혜관세 신청

발급 방식

기관발급: 한국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Certificate of Origin (Form KR-PH)
자율발급: 인증수출자의 Origin Declaration

주요 유의사항

원산지증명 유효기간 12개월, 신고서는 영어 작성
HS 6단위·상품명·원산지 기준 등 핵심정보 포함
인증수출자도 실제 원산지 충족 여부에 책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통관 서류 간 정보 불일치 주의

서류	영문명	실무 포인트
거래가격·품명·수량· 판매자·구매자	Commercial Invoice(CI)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일치
포장단위·수량·중량·포장내용	Packing List(PL)	Invoice·B/L과 수량 일치
선적·운송정보	Bill of Lading(B/L) 또는 Airway Bill(AWB)	수하인·운송경로 확인
원산지 증명	Certificate of Origin(C/O)	FTA 특혜관세 신청 시 필요
품목별 수입허가·제품인증	Permit / Certification	FDA·BPS·DA 등 사전 확인
기타 증빙 서류	보험·운임·MSDS·시험성적서 등	품목 및 관세평가에 따라 추가

193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필리핀 주요 기관별 수입 허가·인증

기관	주요 허가·승인	구분 / 목적
관세청(BOC)	**수입업자 인증** (Importer Accreditation)	수입업체 자격 /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수입신고·통관을 하기 위한 기본 수입자 인증
식약청(FDA)	**영업허가** (License to Operate, LTO)	업체 자격 /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수입·유통하는 업체의 영업허가
	제품등록증 (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가공식품·식품보충제·식품첨가물·생수 등 FDA 등록 대상 식품의 판매·유통을 위한 제품 등록
	제품신고서 (CPN, Certificate of Product Notification)	스킨케어·메이크업·샴푸·향수 등 화장품의 필리핀 시장 출시를 위한 제품 신고·승인

194

필리핀 주요 기관별 수입 허가·인증

기관	주요 허가·승인	구분 / 목적
통상산업부 표준국 (DTI-BPS,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	**PS License** (Philippine Standard Quality and/or Safety Certification Mark License)	제품·제조시설 인증 / 제조공장 및 제품이 필리핀 품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수입상품 적합성 승인 (ICC, Import Commodity Clearance)	수입제품 적합성 확인 / BPS 의무인증 대상 수입제품이 필리핀 표준에 적합한지 검사·확인
동물산업국 (BAI, Bureau of Animal Industry)	**수입업자 인증** (Importer Accreditation)	수입업체 자격 / 동물·육류·축산물 및 동물성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사업자 인증
	위생·식물위생 수입승인 (SPSIC,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수입·검역 승인 / 동물·육류·축산물 등의 특정 수입 건에 대한 위생·검역 요건 확인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필리핀 주요 기관별 수입 허가·인증

기관	주요 허가·승인	구분 / 목적
식물산업국 (BPI, Bureau of Plant Industry)	**수입업자 등록** (Importer Registration)	수입업체 자격 / 농산물·식물·종자·식물성 제품 등을 수입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위생·식물위생 수입승인 (SPSIC,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수입·검역 승인 / 식물·농산물 등의 병해충·검역 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을 승인
수산수자원국 (BFAR,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수입업자 영업허가** (LTOI, License to Operate as Importer)	수입업체 자격 / 수산물·수산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업자 영업허가
	위생·식물위생 수입승인 (SPSIC,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수입·검역 승인 / 수산물·수산제품의 특정 수입 건에 대한 식품안전·위생·검역 요건 확인

필리핀 소비재 라벨링·마킹 요건

필리핀 내 판매 소비재에는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RA No. 7394)가 적용됩니다.
수입품은 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No. 10863)에 따른 원산지 마킹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라벨 표시사항

- 상품명 또는 브랜드명
- 등록상표
- 필리핀 내 제조자·수입자·재포장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제품의 구성성분 또는 유효성분
- 순내용량: 중량·용량·개수로 표시한 정보, 미터법(적용가능 경우 최소 0.1 단위까지 표시)
- 수입품의 제조국
- 라이선스 생산·충전·재포장 시 관련 사실

출처: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필리핀 – 라벨링/마킹 요구사항」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필리핀 소비재 라벨링·마킹 요건

2. 수입품 원산지 마킹 및 품목별 추가 라벨링

수입품 원산지 마킹

외국산 수입품 또는 용기에는 영어 또는 필리피노로 원산지 국가를 표시

최종 구매자가 확인 가능한 위치에 표시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함

쉽게 지워지지 않고 가능한 한 영구적으로 표시

부적정한 경우 과세가격의 5%에 해당하는 Marking Duty 부과 가능
표시 보완 전 물품 반출 보류 가능

② 품목별 추가 라벨링 요건

제품군	주요 예시
식품·식품보충제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정보, 로트번호, 유통·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화장품	ASEAN Cosmetic Labeling Requirements 확인
의약품	일반명(Generic Name) 표시 등 의약품 표시기준
의료기기	제품별 FDA 표시·등록요건
가정·도시용 유해물질	GHS 기반 표시기준 확인
농·축·수산물	검역·식품안전 관련 관계기관 표시요건

출처: RA No. 10863 Sec. 710, RA No. 6675, ASEAN Cosmetic Labeling Requirements

필리핀 소비재 라벨링·마킹 요건

③ 필리핀 산업표준국(DTI-BSP) ICC 스티커 인증 확인





PS 마크와 ICC 스티커

필리핀 표준(PS) 품질 및 안전 마크와 수입상품인증(ICC) 스티커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이 필리핀 국가표준(PNS)에 적합한 인증된 품질과 안전 인증 표시

BPS(산업표준국)의 의무 인증 대상 제품은 필리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국내 제조업체는 PS 마크, 수입업체는 ICC 스티커 부착이 필수

ICC 마크 인증 규제 9대 제품 그룹

가전제품, 소비자가전, 조명·배선 장치, 철강제품, 플라스틱 배관·세라믹 제품, 시멘트 및 기타 건축 자재, 화학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 기타 소비재로 나뉨

PS 마크 vs ICC 스티커 비교

구분	PS 마크	ICC 스티커
관리기관	DTI-BPS (필리핀 산업표준국)	DTI-BPS (필리핀 산업표준국)
대상	국내 제조업체(필리핀 내 생산품) 및 해외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규제 대상 수입품
적용 범위	제조공정 전반과 제품 품질 인증	수입품 배치(batch) 단위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3년 (정기 심사 및 갱신 필요)	선적 건별 발급 (매 수입 시 신청 필요)
절차	서류 심사 → 공장 심사 → 제품 시험 → 라이선스 발급	서류 제출 → 샘플 시험검사 → 승인 후 ICC 스티커 발급
표시 방법	제품 또는 포장에 PS 마크 라벨 부착	제품 또는 포장에 ICC 스티커 부착
목적	제조 단계부터 지속적 품질·안전 보증	수입 시점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 확인

자료: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FTA 활용 애로사례

생분해 빨대

수출 애로사항

기업의 애로사항
생분해 빨대가 플라스틱류(HS 3924.10)로 분류되어 일반관세 15%가 적용되며, 종이 빨대와 동일한 FTA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함

확인된 원인
HS 코드는 친환경 성능보다 제품의 재질·성분·구조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세번별 FTA 양허 수준에 따라 관세 차이가 발생함

대응방법
필리핀 세번이 3924.10.99에 해당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한·필 FTA 세율 12% 적용

FTA 활용 애로사례

음이온 계면활성제

수출 애로사항

기업의 애로사항
한국기업이 필리핀으로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확인한 3402.11.0000과 필리핀 측에서 요구한 3402.31이 달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입통관 준비에 차질이 발생함

확인된 원인
한국기업은 한국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HSK)를 기준으로 코드를 확인했으나, 필리핀 수입 시 적용되는 품목분류 및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 하지 않았음

대응방법
수출 준비 과정에서의 관세확인시, 한국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HSK)와 이에 해당하는 HS 기준 및 코드 연계를 확인하여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품목분류(HS Code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 확인)

준비방법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제품을 정확히 분류

해당 품목의 RVC(역내부가가치 비율), CTH(세번변경기준), WO(완전생산기준) 등을 확인

분류가 애매한 경우, 사전에 관세사·세관 품목분류과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우편: 관세평가분류원(대전 유성구) 접수
방문: 관세평가분류원 직접 제출

원산지증명/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

준비방법

수출자·수입자 정보, HS Code, 원산지 기준, 송장번호 등 필수 항목을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

생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원산지 소명자료, 거래명세서, 송장 등 증빙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

원산지증명서 활용 시(최대 12개월 적용 가능) 반드시 기간 명시 및 증빙 일체 관리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 서류

필리핀 수입 관세율 조회 방법

(1) 관세청 - 관세법령정보포털 활용

01



02



03



* HS CODE 검색 시에는 일반적인 영문 품명을 기재해야 함

04



* HS CODE는 품명 외에도 물품의 용도, 기능, 성분, 재질 등 다양한 요소에 의거하여 분류해야 함
* 제시한 HS CODE 확인 방법은 참조로 사용하고, 정확한 HS CODE는 FTA 활용지원센터 또는 관세사 전문가 확인 필요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필리핀 수입 관세율 조회 방법

(2)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활용





양허유형	설명	무관세 적용 시점
Cat 0	협정 발효일부터 무관세 적용	협정 발효일
Cat 3	관세를 3년차 1월 1일부터 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
Cat 5	관세를 5년차 1월 1일부터 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Cat 7	관세를 7년차 1월 1일부터 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
Cat 10	관세를 10년차 1월 1일부터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Cat 15	관세를 15년차 1월 1일부터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SL	기존관세율에서 최종관세율로 점진적 인하	물품 별 상이
EX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약속에서 배제	해당 없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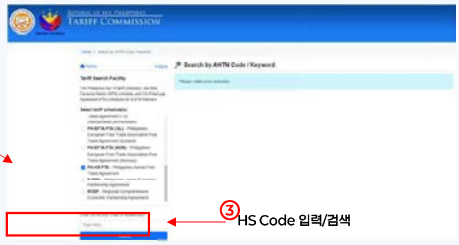
필리핀 수입 관세율 조회 방법

(3) 필리핀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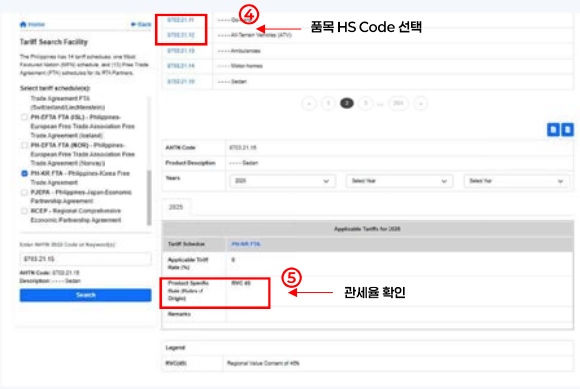
1. 필리핀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 https://finder.tariffcommission.gov.ph/ 접속 및 조회 탭 클릭



2. 협정명 선택 / HS Code 입력 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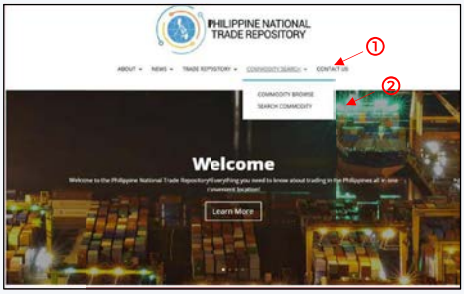
3. 품목 HS Code 선택 / 관세율, 원산지증명 조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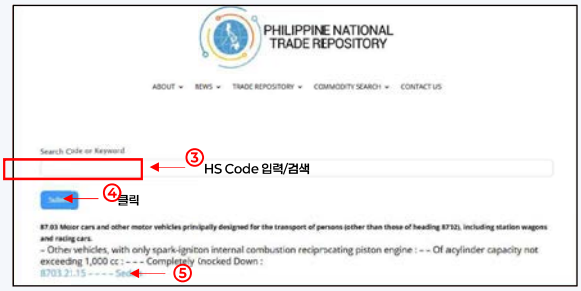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필리핀 수입 규제 절차 조회 방법

필리핀 국가무역정보포털(PNTR) 홈페이지 활용







209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통관 절차 및 행정 대응 준비

준비방법
◙ 수입국 관세청(FDA, BOC 등) 요구 양식·서류를 최신 기준으로 점검
◙ 온라인 포털(예: Tariff Finder, 관세청 FTA 포털)에서 관세율·서류 요구사항 사전 확인
◙ 현지 파트너/관세사와 협력 체계 구축하여 행정 지연 시 빠른 대응 가능
◙ 선적 전 단계에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운영(원산지증명서, 송장, 포장명세서, BL 등)

210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참고사항

KOTRA마닐라무역관 공용이메일

- manila@kotra.or.kr

KOTRA 마닐라무역관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KOTRAManilaSKore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참고사항

필리핀 관세위원회 : HS CODE별 적용관세 확인

- https://finder.tariffcommission.gov.ph/search-by-code

필리핀국가무역저장소 : 품목별 수출입 규제 확인

- https://www.pntr.gov.ph/search-commodity/

필리핀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규제관련 자료 및 행정명령 확인

- https://www.dti.gov.ph/negosyo/imports/trade-remedies/dti-orders/

필리핀 식품의약청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 등록 및 허가 절차, 관련규정, 지침, 행정명령 확인

- https://www.fda.gov.ph/

필리핀 농무부 : 농산물·축산물 수출입 관련 검역·위생(SPS) 규정, 농업정책, 수입제한 확인

- https://www.da.gov.ph/

필리핀 FTA 포털 : 필리핀이 체결한 FTA별 협정문, 양허표, 활용 가이드라인,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적용 절차 확인

https://philippineftas.dti.gov.ph/

감사합니다

마닐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
강병훈 대리 (benzkang@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캄보디아

프놈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전현호 대리
(chris.chun@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캄보디아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한국과의 수출입 동향 및 주요 수출입 품목

양국 간 교역액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5년 11억 9,600만 USD 기록

- ▸ 수 출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음료·승용차 등 소비재와 전선 등 산업재
- ▸ 수 입 편직제의류, 신발, 가방 등 봉제업 2억 달러 수입 기록



한국-캄보디아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22	2023	2024	2025
수출	642 (2.9)	575 (-10.4)	657 (14.2)	678.7 (3.3)
수입	409 (19.7)	477 (16.7)	506 (6.0)	518.0 (2.3)
교역	1,051 (8.8)	1,052 (0.2)	1,163 (10.5)	1,196.7 (2.9)

자료: KITA

'26년 1월~7월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입 상위 5대 품목(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증가율)	품목	금액(증가율)
1	화장품	65 (29.8)	편직제의류	84 (30.5)
2	승용차	37 (-6.0)	제어용케이블	64 (12.2)
3	음료	35 (11.0)	직물제의류	64 (25.5)
4	편직물	29 (5.2)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58 (736)
5	기타가죽	27 (-14.3)	신발	44 (3.9)

자료: KIT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캄보디아의 주요 FTA 체결 현황

아세안 기반 지역 협정과 중국·한국·UAE 양자 협정을 함께 활용



지역 협정

1999년 아세안 가입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ATIGA)
아세안-중국
아세안-한국
아세안-일본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아세안-홍콩
RCEP (2022년 발효)

양자 협정

캄보디아-중국
2022.1월 발효

캄보디아-한국
2022.12월 발효

캄보디아-UAE CEPA
2024.1월 발효

개정·신규 협상

2026년 공식 발표 기준

아세안-중국 3.0
2025.10. 개정의정서 서명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개정 협상 타결 발표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 재검토 협상

아세안-캐나다
신규 FTA 협상

자료: GDC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과의 FTA협정 현황

한-캄보디아 FTA로 확대된 시장 개방률

한국산 제품 수출 시 한-아세안 FTA · 한-캄보디아 FTA · RCEP 비교가능

캄보디아 관세 철폐율
93.8%
한-아세안·RCEP·한-캄 합산

한국 관세 철폐율
95.6%
한-아세안·RCEP·한-캄 합산

캄보디아의 다른 양자협정과 비교 (단위: %)



최종 관세 철폐율 — 품목 수 기준

한-캄 FTA 추가 개방 품목

구분	양허 유형	주요 품목
공산품	즉시 철폐	청소차, 레이더, 순면직물(표백), 남성셔츠 등
	5~20년 철폐	자동차부품(운전대 등), 건설중장비, 편직물, 화물자동차(덤프차 등) 등
농산물	즉시 철폐	딸기, 사과, 소시지, 쇠고기, 오리고기 등
	5~20년 철폐	고추, 포도, 소주, 기타과실(냉동), 당근, 우유 등
수산물	즉시 철폐	새우류(냉수성), 기타어류(잉어) 등
	5~20년 철폐	농어류, 조미김, 꽃게, 새우 등

※ 품목 수 기준, 단계적 철폐를 포함한 최종 비율. 모든 품목의 관세가 현재 철폐된 것은 아님

자료: KITA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현지 시장 주요 트렌드

01 캄·태 분쟁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

- '26년 상반기 對태국 수입액 약 37% 감소 및 의존도 축소
- 싱가포르,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 확대
- 품목별 공급선 전환 양상 상이
  (예시) 소비재: 중국, 한국 등 / 비료: 중국, 베트남 등

02 고부가가치 제조업 전환 추진

- 2029년 LDC(최빈개도국) 졸업에 대비해 국가 경쟁력 강화
- 자동차·전기전자 ·농식품가공 등 비봉제 제조업 육성
- 정부 주도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인력 양성 추진

03 대내외 충격에 따른 단기 소비 위축

- 공급망 교란, 중동발 에너지 충격으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와 부실채권 증가로 신용 공급 확대에 제약
- 해외근로자 귀환에 따른 송금 감소로 구매력 약화

04 외국인투자 지속·다변화

- 대외 불확실성에도 제조업, 인프라 투자 지속
- 전기전자 부품, 타이어, 가구 등 비봉제 제조업으로 투자 분야 확대
- 투자 인센티브 ·SEZ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수출기반 다변화

자료: GDCE, World Bank, KOTRA, 미국 국제무역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유망 품목 및 신규 수출 기회

품목별 수요에 맞춘 상품 구성 / 현지 유통 및 공급 전략

K-뷰티·화장품	가공식품·음료	유아용품·조제분유
프리미엄 스킨케어 등 한국산 화장품 수요	**라면·스낵·음료 등 K-푸드 소비 확대**	**분유·영유아 간식·스킨케어로 품목 확장**
전문점·마트·소셜커머스와 연결할 현지 유통 파트너 발굴	소용량 포장과 현지 구매력을 고려한 상품 기획	안정성과 브랜드 신뢰를 강조해 약국·전문점 공략
전력·에너지 설비	**농식품 가공·저장 설비**	**의료기기**
변압기·케이블·차단기 등 전력 기자재 수요	**건조·냉동·포장·저온저장 설비 수요**	**진단·영상·치료 장비 등 의료기관 현대화 수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에너지관리시스템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 제안	현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저장 설비 제안	설치·교육·유지보수를 포함한 공급 체계 구축

전담직원 인사이트: 소비재는 현지 유통망 진출이 핵심, 설비·장비는 판매이후 설치와 사후관리(A/S) 까지 고려한 전략 유도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농업용 자재의 품목 구분과 등록·수입허가

Q. 기업 문의 액상비료를 농약으로 판단해 통관이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문의 답변

- 비료임을 설명하는 성분표·사용 목적·제품 라벨을 제출해 농림수산부(MAFF)에 적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비료로 인정되더라도 비료에 필요한 등록·수입허가는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핵심 쟁점

? 비료 관리대상인가 농약 관리대상인가?
제품명보다 성분·사용 목적·표시된 효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관리체계 확인

? 추가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 등록정보와 실제 제품이 일치하는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 이유 확인

선적 전 확인

✓ 품목분류와 등록·허가는 별도
관세청의 HS Code 분류와 담당 기관의 제품등록·수입허가 요건을 구분해 선적 전 확인

✓ 제품명보다 실제 특성을 설명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성분·용도·기능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현지 수입자와 사전에 공유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농업용 자재의 품목 구분과 등록·수입허가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추가 서류 요구 사유 확인
추가서류를 요구한 기관·사유·요구 목록을 수입자·통관사를 통해 확보

▶

02
자료로 제품 구분 재확인
성분표·효능·라벨·시험자료 제출
농림수산부의 비료·농약 관리 대상 판단과 세관의 HS 분류를 각각 확인

▶

03
필요한 등록·허가와 신고내용 보완
신고내용·제품자료·허가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전담직원 인사이트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성분과 용도를 기준으로 HS Code와 등록·수입허가 요건을 함께 확인

가공식품의 동물성 원료 검역과 표시 요건

Q. 기업 문의 페퍼로니와 미트소스가 들어간 냉동피자는 어떤 검역서류가 필요한가요?

A. 문의 답변

- 육류가 포함된 냉동피자는 일반 통관서류 외에 검역 관련 허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료 구성과 제조공정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검역요건을 확인하고, 요구되는 경우 수출국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

?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가공식품, 검역 대상인가?
육류 등 동물성 원료의 종류와 가공 방식에 따라 검역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필요한 서류들과 증명서의 종류 · 발급기관, 그 안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선적 전 확인

✓ HS Code 외의 수입요건도 확인
HS Code와 관세율 외 검역· 수입허가· 현지어 표시 요건은 별도 확인

✓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도 확인
완제품에 포함된 원료와 가공방식에 따라 추가 요건이 적용되는지 제품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

227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가공식품의 동물성 원료 검역과 표시 요건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동물성 원료와 제조공정 확인
토핑과 소스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 원산지, 가열공정과 보관조건 정리

02
필요한 검역서류 확인
통관사를 통해 검역 대상 여부와 필요한 수입허가와 증명서 확인

03
현지어 식품 표시 검토
수출시 관세청에 제품명·원재료·보관법·유통기한 크메르어 표시사항 필요 검토

전담직원 인사이트
완제품 이름보다 포함된 동물성 원료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검역요건을 확인

228

피부과용 기기의 현지 등록과 수입 자격 요건

Q. 기업 문의 해외 인증서와 수출서류가 있으면 피부과용 레이저기기를 캄보디아로 수출할 수 있나요?

A. 문의 답변

- 해외 인증서만으로는 캄보디아 수입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의료기기에 해당하면 현지 수입자를 통해 보건부의 제품등록과 수입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피부과용 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가?
치료·미용 목적과 표시된 효능에 따라 현지에서 적용하는 관리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지 등록·허가가 필요한가?
해외 인증서의 현지 인정 범위와 별도 제품등록·수입허가 필요 여부

선적 전 확인

✓ 해외 인증의 현지 인정 여부
해외인증서·시험성적서를 보유해도 수입국에서 인정하는지, 추가 등록·시험이 필요한지 확인

✓ 제품 요건과 수입자 자격은 별도
제품의 등록·인증뿐 아니라 현지 수입자에게도 별도의 자격·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피부과용 기기의 현지 등록과 수입 자격 요건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제품의 용도와 기능 확인
치료·미용 목적과 작동 방식 정리 모델별 사양과 표시된 효능 확인

▶

02
현지 제품등록 요건 확인
보건부에 등록 대상 여부와 제출서류 확인, 해외 인증서의 인정 범위 및 추가 자료 확인

▶

03
수입허가·통관서류 준비
현지 수입자의 자격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 확인, 허가·등록 내용과 수출서류 내용 일치

전담직원 인사이트
해외 인증서가 있어도 수입국의 제품등록·수입허가·수입자 자격요건은 별도로 확인

전기용품의 품목 구분과 인증 대상 확인

Q. 기업 문의 전기용 구리 연선을 캄보디아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선적 전에 현지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문의 답변

- 전기용 구리 연선의 현지 인증 여부는 피복 유무·규격·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캄보디아 기술표준원(ISC)에 의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에 해당하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피복이 없는 구리선인가, 피복으로 감싼 전선인가?
전선을 감싼 피복의 유무와 사용 목적에 따라 품목 분류와 수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지 의무 인증 대상인가?
현지 인증이 필요한지, 해외에서 받은 제품 시험 결과와 인증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선적 전 확인

✓ 제품 이름보다 실제 특징 확인
같은 종류의 제품도 재질·구조·사용 목적에 따라 수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해외 시험 결과의 현지 인정 여부 확인
해외에서 시험을 받았더라도 현지에서 추가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전기용품의 품목 구분과 인증 대상 확인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제품 구조와 용도 확인
재질·구조·절연 피복 유무·용도를 정리

02
인증과 수입승인 필요 여부 확인
제품 설명자료와 예상 HS Code를 기술표준원(ISC)에 제출해 인증·수입승인 대상 여부 확인

03
인증에 필요한 서류와 시험 확인
인증이 필요하면 제출서류, 추가 시험, 모델별 신청 여부 확인

전담직원 인사이트
해외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도 현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 수출 전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요건 확인

가금류의 통관과 동물검역

Q. 기업 문의 번식용 병아리는 연간 수량 승인과 개별 수입허가 둘 다 필요한가요? 준비 순서는 무엇인가요?

A. 문의 답변

- 사전 수입허가와 동물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간 수량 승인이 개별 선적의 수입허가를 대신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할부처의 허가 조건에 맞춰 위생서류와 도착 검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연간 승인 외에 건별 수입허가도 필요한가?
연간 수량 승인이 실제 선적까지 허용하는지, 선적마다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가 불명확

? 수입 위생조건을 충족하는가?
수량 승인을 받았더라도 수출국의 질병 상황과 병아리 건강상태에 따른 수입 제한 가능성

선적 전 확인

✓ 승인·허가서의 적용 범위 확인
승인·허가를 받았어도 실제 수출입할 제품·수량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선적 시점의 수입조건 재확인
처음 승인받을 때와 선적 시점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 제한이나 추가 검사·서류 요구 여부를 다시 확인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가금류의 통관과 동물검역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수입허가 필요, 연간 승인은 별도 확인
번식용 병아리는 사전 수입허가와 검역 절차 필요, 연간 수량 승인 적용 여부는 농림수산부에 확인

02
수입허가 및 위생서류 준비
수입허가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확인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병아리 식별·원산지 자료 준비

03
도착 시 검역 후 통관 진행
도착 장소·일정과 검역절차를 사전에 협의 검역 결과와 허가조건에 따라 통관 진행

전담직원 인사이트
연간 수량 승인이 있어도 선적 건별 수입허가와 검역·위생조건을 각각 확인

산업용 화학제품의 수입허가와 안전정보

Q. 기업 문의 에폭시 수지를 수출하려고 합니다. 화학제품 수입허가나 별도의 제품 인증이 필요한가요?

A. 문의 답변

- 산업용 에폭시 수지는 화학제품 수입허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수출시 성분표와 안전자료(SDS)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허가를 신청하며, 별도 제품인증이 필요한지는 제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화학제품 수입허가 대상인가?
제품의 성분·혼합 여부·사용 목적에 따라 수입허가가 필요한지, 별도 인증 대상인지

? 함께 판매하는재료도 요건이 다른가
기본 재료인 수지와 이를 굳게 만드는 경화제 성분이 달라도 같은 수입요건이 적용되는지

선적 전 확인

✓ 수입허가와 제품인증은 별도 확인
수입허가와 제품인증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사 제품에 각각 필요한지 구분해 확인

✓ 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 및 운송 요건 확인
제품의 성분·위험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자료와 운송·포장·표시 요건을 선적 전에 확인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산업용 화학제품의 수입허가와 안전정보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제품의 성분·안전자료 준비
제품의 성분표와 위험성·취급방법을 담은 안전자료(SDS) 준비, 수지·경화제 세트는 각각의 자료 준비

02
수입허가·제품인증 필요 여부 확인
제품자료를 제출해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별도의 제품인증이 필요한지도 함께 문의

03
통관서류와 운송조건 준비
송장·포장명세서·사용 목적 자료 준비
위험물 해당 여부와 표시 요건 확인

전담직원 인사이트
제품명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성분자료를 바탕으로 수입허가·제품인증·운송요건을 각각 확인

수입식품의 현지어 표시와 판매 준비

Q. 기업 문의 한국산 포장식품을 한국어·영어 포장 그대로 판매할 수 있나요? 크메르어 라벨을 붙여야 하나요?

A. 문의 답변

- 한국어 포장만으로는 현지 판매 표시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제품명, 원료 등 필수 정보를 현지어로 표시하고 라벨 부착 시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

? 한국어 포장만으로 현지 판매가 가능한가?
기존 포장의 언어와 표시항목이 캄보디아 판매 기준에 맞는지, 크메르어 라벨을 추가해야 하는지

? 현지 도착 후 라벨을 붙여도 되는가?
크메르어 라벨을 선적 전에 부착해야 하는지, 현지에서 부착할 경우 통관 판매 단계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선적 전 확인

✓ 현지 표시 기준까지 수출 준비에 반영
제품의 허가·인증뿐 아니라 포장에 필요한 언어와 필수 표시항목도 선적 전에 점검

✓ 표시사항 보완 시점 구분
선적 전에 갖춰야 할 사항과 현지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통관·판매 지연 예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수입식품의 현지어 표시와 판매 준비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현지어 표시 필요 여부 확인
캄보디아 식품안전법상 판매용 포장식품의 필수 정보는 크메르어로 표시. 원래 포장이 외국어인 경우 크메르어 라벨 추가 가능

▶

02
필수 표시사항과 번역 검토
제품명·원재료·내용량·기한·보관방법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 원래 표시와 일치하도록 작성

▶

03
판매 전 크메르어 라벨 부착 완료
외국어 포장에는 크메르어 라벨을 추가해 판매 전 표시사항 완비. 통관 후 부착은 허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진행

전담직원 인사이트
통관을 마쳐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현지 판매에 필요한 포장·표시 기준까지 준비

중장비의 과세가격과 관세 산정 기준

Q. 기업 문의 중고 석재분쇄기 수입 시 세관이 안내한 관세 계산 기준이 예상과 다릅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A. 문의 답변

- 관세는 세관이 인정한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중량 기준 금액이 과세가격 산정에 사용됐다면 추가 관세가 아니므로, 신고가격과의 차이 및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신고한 구매가격과 세관의 과세가격이 다를 수 있는가?
중량 기준 금액이 물품 가격을 정하는 기준인지, 납부할 관세 금액인지

? 실제 구매가격과 다른 가격이 적용된 이유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와 세관이 적용한 가격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선적 전 확인

✓ 품목별 관세율과 과세 방식
품목별 다른 과세 방식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서류 준비

✓ 세금과 부대비용을 나눠 확인
같은 관세율이라도 적용되는 물품 가격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음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중장비의 과세가격과 관세 산정 기준

주요 확인사항 및 절차

01 관세 산정내역 확인
적용 관세율·과세가격·계산된 방식을 통관사와 확인

02 거래 가격 자료 제시
계약서·송금자료·장비연도·장비 상태 등 자료 확보

03 가격 조정과 대응 방법
관세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협의

전담직원 인사이트
관세율만으로 수입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까지 확인 필요.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참고] 캄보디아 수입·통관·인증 종합 체크사항

선적 전 품목별 수입 요건과 세금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통관서류와 현지 판매에 필요한 표시사항까지 준비

01 품목분류·세금 확인

품목 분류 기준
- 제품명보다 성분·구조·기능·용도를 기준으로 분류
- 품목 분류는 관세율과 수입허가·인증 적용에 영향
- 분류에 이견이 있으면 제품자료를 제출해 GDCE 사전심사 활용 검토

관세율·과세가격
- MFN·AKFTA·CKFTA·RCEP 세율과 원산지 요건 비교
- 관세는 적용 세율과 세관이 인정한 과세가격으로 계산
- 구매가격 외 운임·보험료 등 과세가격 반영
- 관세·특별세·VAT를 구분해 수입 비용 산정

반입 목적과 제품 상태
- 판매용·샘플·시험용은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음
- 무료 샘플도 허가·인증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중장비는 구매가격과 장비 상태를 설명할 자료 준비

02 인증·등록·허가 확인

수입자와 통관사의 역할
- 현지 수입자: 품목별 등록·허가 확보와 세금 납부
- 통관사: 위임받아 수입신고·서류 보완·검사 대응
- GDCE(세관): 품목 분류·가격·세금 심사와 반출 승인

품목별 담당기관과 승인
- MAFF: 비료·농약의 제품등록·수입허가
- GDAHP: 검역 대상 동물성 제품의 수입허가·검역
- DDF: 의료기기 제품등록·수입허가
- ISC: 규제 대상 화학물질 허가·전기제품 인증

해외 시험자료와 현지 표시
- 해외 인증서·시험성적서가 현지 인증을 대체하지는 않음
- 제품별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 추가 시험 필요 여부 판단
- 판매용 포장식품은 크메르어 필수 표시사항 준비
- 통관 후 라벨 부착은 허용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진행

03 서류 준비·수입통관

기본 서류와 품목별 증빙
- 기본: 송장·포장명세서·B/L 또는 AWB
-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위생·검역 증빙
- 허가서의 제품·수량·유효기간과 실제 선적 내용 일치

FTA 원산지증명서(C/O)
- 적용 협정에 맞는 C/O와 원산지·운송 요건 충족
- C/O와 송장·운송서류의 제품·거래정보 일치
- FTA 관세 혜택과 수입허가·인증·검역은 별도

신고·심사·검사·반출
- ASYCUDA로 수입신고서(SAD)와 증빙 제출
- 세관 심사 및 필요한 물품검사·검역 진행
- 세금 납부와 반출 승인 후 물품 수령
- 통관 완료 후에도 현지 판매 표시 요건 충족 필요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원산지증명서 원본 미인정 사례

▸ 원산지증명서 원본 인정 관련 통관 지연 사례

사례

한국산 물리치료기기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현지 세관에서 원본 인정 여부에 이견 발생

애로

협정세율 적용 보류·통관 지연
발급기관과 현지 세관 간 서류 해석 차이

대응 절차

1. **원본 인정 보류 사유 확인**
   제출 형태·인쇄 상태·서명·직인 등 세관이 문제 삼은 항목 파악
2. **발급기관의 확인자료 전달**
   발급내역과 증명서 확인자료를 수입자·통관사를 통해 현지 세관에 제출
3. **필요한 보완 방식 협의**
   원본 추가 제출, 인쇄 상태 보완, 정정·재발급 중 필요한 조치 협의
4. **C/O 재발급·제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제출 후 통관 완료

전담직원 인사이트: C/O 발급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님. 현지 제출 형태와 원본 인정 요건까지 준비

243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부품별 원산지증명 애로사례

▸ 현지 조립 전기이륜차의 원산지 판단 사례

사례

중국·한국·베트남산 부품을 사용해 캄보디아에서 조립한 전기이륜차 수출 시 FTA상 '캄보디아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애로

현지 조립만으로 원산지 판단 곤란
외국산 부품 사용 시 원산지 인정 기준이 불명확

대응 절차

1. **수출 대상국과 적용 가능한 협정 확인**
   제품 수출 국가와 캄보디아 간 협정 확인, 완제품 HS Code별 기본관세 또는 협정 세율 비교
2. **부품 원산지와 생산공정 정리**
   부품별 원산지·가격·HS Code와 캄보디아에서 수행한 조립·가공 자료 확보
3. **협정별 원산지 인정 기준 검토**
   품목별 기준과 조립 해당 여부 검토. 외국산 부품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비교
4. **품목별 원산지 기준 검토**
   기준을 충족한 협정의 방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을 준비하고, 수입자가 도착국에서 협정관세 신청

전담직원 인사이트: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같은 제품도 수출 대상국과 적용 협정에 따라 협정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244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캄 HS 코드 불일치 사례

▸ 양국의 HS 코드 차이에 따른 협정세율·원산지 기준 확인 및 C/O 보완 애로

기업 문의 (상담 예시)

한국산 산업용 기계를 수출하려는데,
한국 수출신고와 캄보디아 관세청이 안내한
HS Code가 다릅니다. 기존 C/O로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애로

협정세율·원산지 기준에 혼선
C/O와 수입신고의 코드 차이로
추가 설명·서류 보완 필요

대응·확인사항

1. **HS Code의 차이 범위 확인**
   앞 6자리가 다른지, 이후 국가별 세부번호만 다른지 구분하고 적용 HS 버전 비교
2. **현지 분류의 근거 확보**
   통관사 안내와 세관 판단을 구분하고 제품자료로 근거 확인
3. **기존 C/O 사용 가능 여부와 보완사항 판단**
   해당 협정의 C/O 기재 기준과 현지 분류의 원산지 기준을 검토해 정정 필요 여부 판단
4. **분류 이견이 남으면 선적 전 사전심사 검토**
   분류가 불명확하면 GDCE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검토

전담직원 인사이트: 양국 HS Code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FTA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차이의 원인과 C/O 기재 기준을 함께 검토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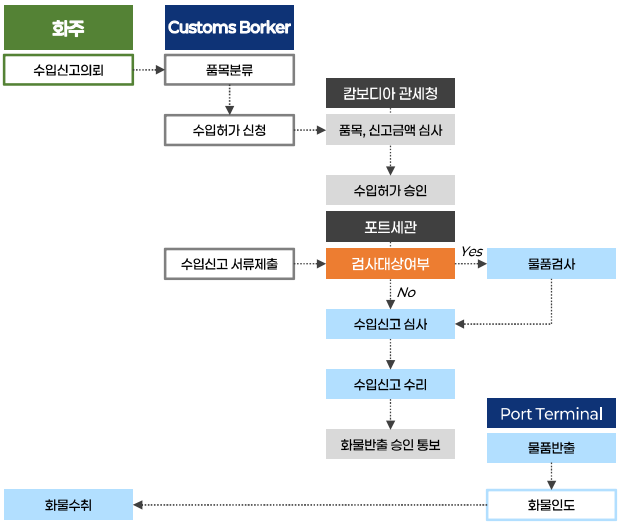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캄보디아 수입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FTA활용 체크리스트 1) 캄보디아 세관 수입 통관절차



HS CODE 불일치

- 캄보디아 세관의 HS CODE 판정과 제품 HS CODE 불일치로 추가 관세 및 비용 납부 발생 빈번
- 캄보디아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활용 가능

수입요건 구비

- 인증 취득 / 제품별 필수서류 등 수입요건 미충족 시 통관 불가
- 품목별 신청주체와 수입자 자격을 확인하고, 수출자는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원산지 증명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은 실제 통관 물품과 일치해야 함 (*시스템 상 호환되지 않는 특수문자 부여 등 주의)



<캄보디아 통관서류 샘플>

* 자료: GD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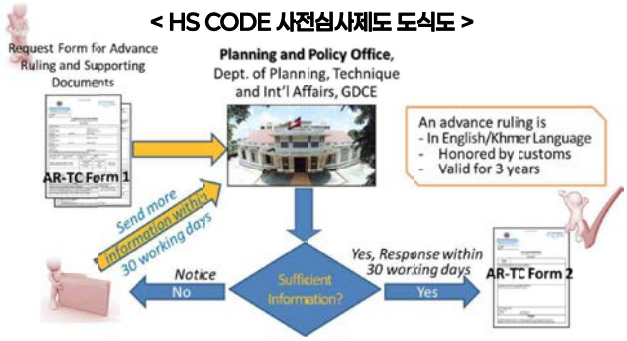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캄보디아 관세청 HS Code 사전심사제도

(FTA활용 체크리스트 2) 세관 HS CODE 사전심사제도

- 캄보디아 세관에서 판단하는 제품의 정확한 HS CODE 판정을 사전에 획득 가능한 제도
- 비용: 50 USD
- 소요기간: 접수일 기준 기관 업무일 30일 이내
- 심사를 통해 판정받은 결과는 통관 시 유효한 증빙자료가 됨 (*유효기간 3년)

< HS CODE 사전심사제도 도식도 >



신청 서류 목록

- VAT 증명서
- 현지법인증명서 (빠떵)
- 회사대표자 여권사본
- 제품 카탈로그, 성분상세서, 제조 공정도 등
- HS CODE사전심사 신청서 (AR-RC Form 1) (*세관 요청 시 제출 - 제품 샘플, 추가 서류 등)



<AR-TC Form 1>



* 자료: GDC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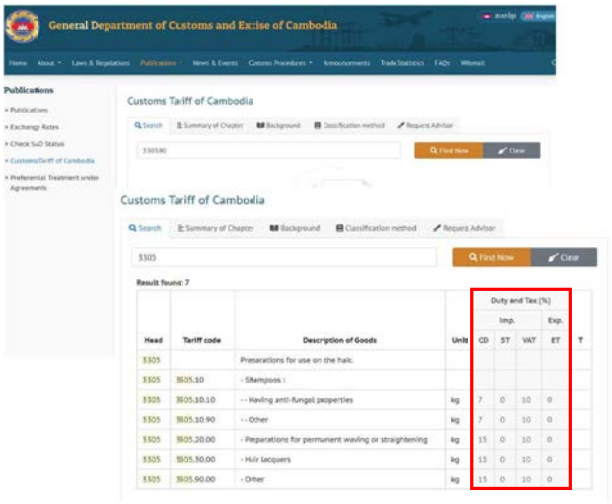
캄보디아 수입 관세율 조회

(FTA활용 체크리스트 3) 세관 수입관세율 조회

- 캄보디아 관세청 Customs Tariff of Cambodia 공식 웹사이트
  - 캄보디아 기준 HS CODE 및 관세 통계 등 확인 가능
  - 캄보디아 수입 관세율 조회
  - FTA 협정별 관세율표 및 협정문 조회 가능

AHTN 2017		Based Rate %	Cate-gories	AKFTA Tariff Rates(%)									Remark
HS Code	Description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3.04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10.00	- Lip make-up preparations	35	NT	5	5	0	0	0	0	0	0	0	
3304.20.00	- Eye make-up preparations	35	NT	5	5	0	0	0	0	0	0	0	
3304.30.00	- Manicure and pedicure preparations	35	NT	5	5	0	0	0	0	0	0	0	
	- Other:												
3304.91.00	-- Powders, whether or not compressed	35	NT	5	5	0	0	0	0	0	0	0	
3304.99	-- Other:												
3304.99.20	--- Anti-acne preparations	35	SL	35	35	35	35	20	20	20	20	5	
3304.99.30	--- Other face or skin creams and lotions	35	SL	35	35	35	35	20	20	20	20	5	
3304.99.90	--- Other	35	SL	35	35	35	35	20	20	20	20	5	
33.05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3305.10	- Shampoos:												
3305.10.10	-- Having anti-fungal properties	7	HSL B	7	7	7	7	7	1	7	7	5.6	
3305.10.90	-- Other	7	HSL B	7	7	7	7	7	1	7	7	5.6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 일정 조회>



<캄보디아 기준 HS CODE 조회 화면>

* 자료: GDCE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6 참고사항

캄보디아 현지 주요 기관 참고 링크

▌[참고사항 1] 현지 주요 기관 참고 링크

상무부
https://www.moc.gov.kh/en-US

상무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https://co.moc.gov.kh/About

관세청 세율 조회
https://customs.gov.kh/en/publications/14043-customs-tariff-of-cambodia-km-2022

관세청 통계 조회
https://stats.customs.gov.kh/en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https://customs.gov.kh/en/customs-procedures/831

보건부 의약식품국 (DDF) 제품 등록처
https://ddf.moh.gov.kh/

캄보디아 통계청
https://www.nis.gov.kh/index.php/km/

251

06 참고사항

KOTRA 프놈펜무역관 운영 소셜 네트워크

▌[참고사항 2] 프놈펜 FTA 센터 홍보 및 무역관 운영 소셜 네트워크 채널



<프놈펜 FTA 센터 홍보>



<프놈펜무역관 운영 텔레그램 채널>

@KOTRAPHNOMPENH

252

감사합니다

프놈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전현호 대리 (chris.chun@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

뉴델리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정희권 관세사
(hk.cca@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차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05 인도 FTA 활용 체크리스트

06 참고사항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1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인도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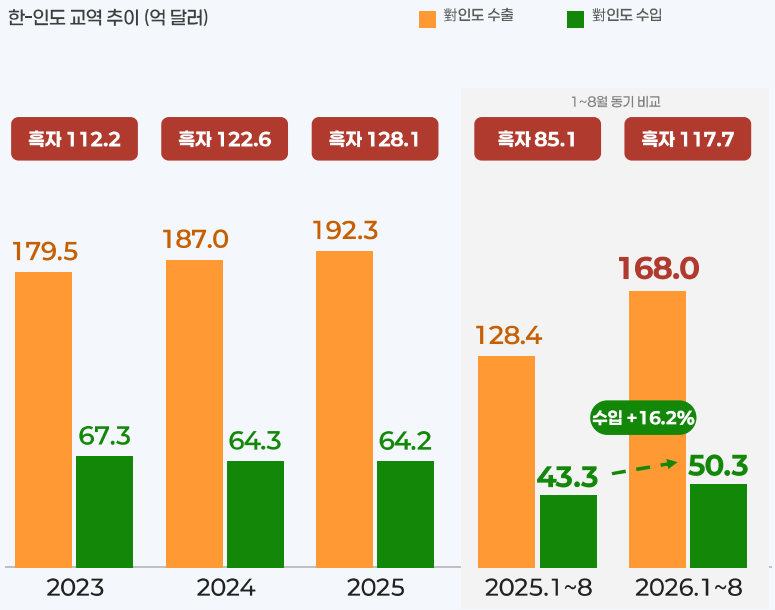
2026년 1~8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對인도 수출 — 수출
168.0억 달러 ▲ +30.9%
반도체가 증가 주도

對인도 수입 — 수입
50.3억 달러 ▲ +16.2%
물량(중량)은 -0.8%로 제자리 … 나프타·알루미늄·동 가격 상승 영향

무역흑자 — 흑자
117.7억 달러 ▲ +38.3%
수출이 수입의 약 3.3배 … 이 불균형은 개선협상에서 다루기로 양국 합의 (제12차, 2026.5)

한-인도 교역 추이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국가 수출입 총괄」(원자료: 관세청), 2026.9.27 조회 · 2026년은 1~8월 누계,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 인도 상공부 PIB(2026.5.28, 개선협상 제12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주요 수출입품목

2026년 1~8월 對인도 수출의 30.9%가 전자부품(반도체 등) … 수입은 석유제품(나프타)과 비철금속이 41.5%

▸ 연도별 상세 표 보기

對인도 수출 상위 5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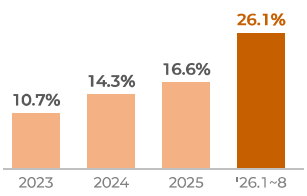
2026.1~8 비중 (MTI 기준)

1	전자부품	30.9%
2	석유화학제품	14.8%
3	철강제품	9.0%
4	비철금속제품	5.3%
5	산업용전자제품	5.0%

HSK 4단위 수출 1위

집적회로(8542)

4년 새 비중 2.4배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 주도



對인도 수입 상위 5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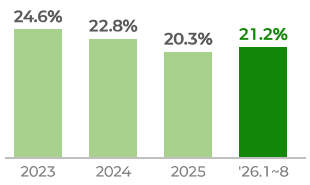
2026.1~8 비중 (MTI 기준)

1	광물성연료*	21.6%
2	비철금속제품	19.9%
3	정밀화학제품	8.5%
4	바이오헬스	8.0%
5	기타철강금속	5.0%

HSK 4단위 수입 1위

석유제품(2710)

대부분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2위는 알루미늄 괴(7601)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품목별 국가 수출입」(원자료: 관세청), 2026.10.3 조회 · 비중은 對인도 수출(수입) 총액 대비 · 막대: MTI(산업통상부 품목분류) 2단위, 오른쪽 박스: HSK 4단위 · *광물성연료: 나프타 등 석유제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EPA 개선협상 현황

"관세 품목이 몇 개 철폐되었느냐가 아니라, 이 협정이 어떤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는가" … 주인도 아이슬란드 대사, The Hindu 기고(2026.10.1)

2016	2026.4	2026.5	2026.8	2027 상반기
개선협상 개시	정상회담 계기 재개	제12차 (뉴델리)	제13차 (서울)	개선협상 타결 목표
양국 입장 차이로 잠정 중단	협상 가속화·조속 타결 합의	디지털·공급망·산업협력 분과 구성 합의	6개 분야 집중 논의	공동선언 (주한 인도대사관)

1 상품 시장개방
핵심 상품의 시장개방 관심 분야와 개방 가능성 타진
산업부 13차

2 서비스·투자
서비스 시장개방 관심 분야 타진, 서비스교역·투자 논의
산업부 13차 · PIB 12차

3 원산지
원산지 기준 관심 분야 타진, 원산지 규정·절차 논의
산업부 13차 · PIB 12차

4 TBT·SPS
기술규정·표준·인증(TBT) 협상 분야 포함, 위생·검역(SPS) 기준 논의
산업부 13차 · PIB 12차

5 공급망·산업협력 신규
공급망·전략적 산업협력 심도 논의, 산업협력위원회 운영·분과위 구성 협의
산업부 13차

6 디지털 무역 신규
디지털 무역·공급망·전략적 산업협력 분과(sub-group) 구성 합의
PIB 12차

7 무역 불균형 논의
인도의 대한 무역적자를 인정하고 CEPA 틀 안에서 다루기로 합의
PIB 12차

- 기존 협상 분야
- 신규 협력 분야
- 논의

자료: 산업부(13차, 2026.8.19) PIB(12차, 2026.5.28)

업계 건의 (보도)
- 한국식품산업협회(2026.8.19): 인도 CEPA 개선협상 사절단에 세번변경(CTH)과 부가가치(40%) 동시충족 기준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하도록 검토 요청
- 근거: 양허품목의 74%가 결합기준 (미국 FTA 1.4%, EU 3.6% — KIEP 2021)

산업통상부 평가 (2026.8.19)
- 25년 기준 한-인도 교역 규모 256억 달러, 향후 교역·투자 확대 여지가 매우 큰 시장
- 전통적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산업협력까지 포괄하는 경제협력 기반 마련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8.19, 13차 협상), 인도 상공부 PIB(2026.5.28, 12차 협상), 한-인도 공동성명(2026.4.20, 정상대), 주한 인도대사관 IK-CEPA 페이지(2027 상반기 목표), 이데일리·이투데이(2026.8.19~20, 식품산업협회) · The Hindu(2026.10.1, Benedikt Höskuldsson「The India-EFTA partnership, one plus one equals three」, 인용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제3국 간 FTA 체결현황

인도의 FTA 전략은 남아시아·아세안 등 역내 중심에서 호주·EFTA·영국·뉴질랜드·EU 등 선진경제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최근 주요 FTA

인도
- **호주 (ECTA) 2022 발효** — 인도-호주 경제협력무역협정
- **EFTA (TEPA) 2025.10 발효** — "TEPA와 EU-인도 FTA는 경쟁이 아닌 보완, 1+1=3" … 주인도 아이슬란드 대사(The Hindu 기고, 2026.10.1)
- **영국 (CETA) 2026.7.15 발효** — 인도 수출품 약 99% 무관세 · 자율 원산지신고
- **뉴질랜드 (FTA) 2026.10.20 발효** — 인증수출자 자율 원산지증명 허용
- **EU (FTA) 2026.1 타결** — 2027 발효 예상 · 2026.9 EU 집행위, 이사회에 서명 제안

인도·영국 CETA … 2026.7.15 발효
2025.5 타결 → 2025.7 서명 → 2026.7.15 발효

99%	영국은 인도 수출품의 약 99%에 무관세
자율 신고	기존 인도 FTA와 달리 수출자 자율 원산지신고 허용

인도·뉴질랜드 FTA … 2026.10.20 발효

100%	발효 첫날부터 인도 수출품 전체 무관세
자율 신고	인증수출자 자율 원산지신고 허용

제3국 수출 고려
- 인도산 완제품을 영국·EU·UAE·호주·EFTA로 수출하는 양방향 FTA 전략 검토 가능
- 단, 한국·중국산 핵심 부품 비중이 높으면 인도산 원산지 인정이 어려움 … 자재명세서(BOM) 기준 사전 원산지 시뮬레이션 필요
- 경쟁국의 인도 시장 접근 여건 개선 … CEPA 개선협상의 조기 타결이 중요

자료: 윤승현 관세사 (언스트앤영 India)「인도·영국 FTA로 본 인도의 달라진 통상전략」,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5호(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인도 상공부 PIB(오만 CEPA 2026.6.1 발효, 뉴질랜드 FTA 2026.10.20 발효 발표) · EU 집행위원회(EU FTA 2026.1.27 타결, 2026.9.11 이사회에 서명 제안) · The Hindu(2026.10.1, 주인도 아이슬란드 대사 Benedikt Höskuldsson 기고) · DD India(2026.9.21, 인도 상공부 인용)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NZ-India FTA National Interest Analysis」

02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유망 품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현지 시장 트렌드

거대 내수시장
14.6억 명

인구 세계 1위 · GDP 약 4조 달러('27년 세계 4위 경제 전망)

왜 기회인가
세계 최대 소비자층 … 한 번 진입하면 규모의 경제 확보, 소비재·중간재 수요가 함께 존재

젊은 인구
29세

중위연령 (한국보다 15년 이상 젊음)

왜 기회인가
일하는 인구와 소득이 오래 늘어나는 구조 … 소비 성장이 길게 이어지고 새 브랜드를 빠르게 수용

소비트렌드 변화
중산층 7.2억 명

4.3억(FY21) → 7.2억(2030 전망) · 민간소비 +7.7%(FY25-26)

왜 기회인가
품질·브랜드 중심 소비 … K-뷰티·K-푸드·프리미엄 가전 수요 확대, 구매력이 중소도시로 확산

수입의존 산업구조
부품·소재 수입

공장은 늘지만 핵심 부품·소재는 아직 수입
(전자부품·반도체·기계·철강 등)

왜 기회인가
완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부품·소재 수입도 증가 … 한국이 강한 중간재(반도체·철강·석유화학) 수출 기회

제조업 육성정책
연 10.9% 성장

제조업 부가가치(GVA, '22~'26) · PLI 14개 분야
반도체 미션 2.0 · MPMS · 산업단지 100곳(BHAVYA)

왜 기회인가
현지 공장 설립·증설로 설비·부품·소재 수요 … 자본재 생산 5년 새 약 2배, 현지 진출 기업은 인센티브 수혜

지정학적 요인
미-인도 무역협정 협상 중

2026.2 잠정 합의로 미국의 인도산 관세 18%로 인하
1단계 협정은 서명 직전 (10.1 장관 회담, 미서명)

왜 기회인가
서명되면 인도 공장 제품을 미국에 더 낮은 관세로 수출 가능 … 단, 서명 전까지 관세 조건은 미확정, 인도-중국 관계가 풀리며 값싼 중국 부품·투자가 다시 늘어 경쟁 심화

자료: Worldometer(인구 2026, 중위연령 29.2세), 산업통상부(GDP 4조 달러), IBEF 등(중산층 전망), 인도 통계부 MoSPI(민간소비 FY2025-26 잠정치, 2026.6.5), 인도 PIB('12 Years of Make in India', 2026.9.24, PLI·Semicon 2.0, 합경국 투자규제 완화 2026.3.10), 백악관·PIB 미-인도 공동성명(2026.2.7), The Tribune(미-인도 장관 회담 2026.10.1), CNBC·NBC(미-중 관세 휴전 연장 2026.9.24), 인도 총리실(모디-시진핑 정상회담 2026.9.12)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정책이 만드는 신규 수요: 탄소중립·인프라

탄소중립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전기차·신재생·친환경 소재·인프라 기자재 수요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전기차 부품

8.26%

전기차 판매 비중 (FY25-26, FY15-16 0.08%)

- 2030년 신차 30% 전기차·충전소 132만 기 목표
- 첨단 배터리(ACC) PLI 18,100 crore 루피 (50GWh)
- **유망:** 배터리팩·모터·인버터·BMS

탄소중립

신재생 발전 기자재

164.59GW

태양광 설치용량 (2026.7, 2014년 2.8GW)

- 비화석 발전 300.50GW, 전체의 54% 이상
- 수상 태양광+저장 신규 사업 5,070 crore 루피
- **유망:** 인버터·ESS·EMS·전력기기

탄소중립

친환경 플라스틱·대체재

2022.7~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수입·판매 금지

- 비닐봉지 120μm 미만 금지 (2022.12.31~)
- 플라스틱 포장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 **유망:** 생분해·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완제품·가공기계

인프라 투자

인프라 확장

12.2 lakh crore

2026-27 공공 자본지출 = 약 170조 원* (전년 대비 약 9%↑)

- 2014-15년(2 lakh crore, 약 28조 원)의 약 6배
- 철도 2.93 lakh crore(약 41조 원), 역대 최대
- **진출 방법:** 정부가 발주하는 철도·도로·발전 공사에 한국 기업이 함께 입찰하거나, 세계은행·ADB 등 국제기구 자금 사업, 민관 공동투자 사업(PPP)에 참여

자료: 인도 PIB「Roads Reimagined: The Rise of India's EV Ecosystem」(2026.8.5), PIB「India's Energy Journey」(2026.8.13), PIB「Ban on identified Single Use Plastic Items from 1st July 2022」, KOTRA「서남아 시장 주요 이슈」인도 PIB「Highlights of Union Budget 2026-27」「₹12.2 Lakh Crore Public Capex Proposed in FY2026-27」·철도 예산(2026.2) · *원화 환산: 1루피=13.94원(2026.10.4)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인도 진출 유망 품목

전략 1 · 산업재

국책 육성분야(AI·반도체·조선·EV) 기자재

유망품목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기자재
반도체 소부장 · 조선기자재
배터리 부품 · 제련 설비

AI: 데이터센터용 변압기·GIS·UPS·ESS, 액체냉각 … 데이터센터 1.5→8GW

반도체: 장납기 장비, 고순도 화학소재, 후공정 부자재

조선: 선박용 기자재, 친환경 추진 시스템

EV: 배터리 핵심부품, BMS·전장, 충전설비

핵심광물: 제련·정제 설비, 선광 기자재

2026.1~8 대인도 수출 (K-stat, HSK 4단위) · 1위
집적회로(8542) 43.8억 달러 (+105.7%)

진출 방식: 인증 선취득 → 현지 파트너 → 단계적 현지화

전략 2 · 중간재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추진에 대비

▸ 산업단지 자세히

유망품목

자동차부품 · 전기전자 부품 · 산업·공작기계

자동차부품: 인도 부품시장 FY25 700억 달러, 전동화로 현지 조달 확대

전기전자 부품: 휴대폰·가전용 회로기판(PCB)·커넥터·카메라모듈 … 인도에서 만들면 정부 보조금 대상(ECMS·MPMS)

산업·공작기계: 인프라 투자 확대, 외산 의존도 65% 수준

2026.1~8 대인도 수출 (K-stat, HSK 4단위) · 3위
자동차 부품(8708) 4.5억 달러 (+7.1%)

진출 방식: 조건 확정 전 요구 제기 → 집단 입주 → 중간재 현지화

전략 3 · 소비재

감세·한류 타고 프리미엄 K-소비재

유망품목

화장품 · 프리미엄 식품
소형가전 · 퍼스널케어

화장품: 인도 시장 275억 달러('25) → 540억 달러('33) 전망, 스킨케어·기능성 중심

식품: 라면·스낵·소스 (FSSAI 인증 필수)

소형가전·퍼스널케어: 1인 가구·도시 중산층 확대

배경: 소득세 감면·GST 간소화, 한국 호감도 84.5%(2위)

2026.1~8 대인도 수출 (K-stat, HSK 4단위) · 47위
화장품(3304) 6,738만 달러 (+18.5%)

진출 방식: 온라인 선진입 → 브랜드 구축 → 오프라인 확장

자료: K-stat 대인도 품목별 수출(2026.1~8, HSK 4단위 순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인도 진출 유망 산업: 제약·화학·원전

제약·바이오

1,300억 달러

시장 600억 → 1,300억 달러('30)

약 생산량 세계 3위, 전 세계 복제약(제네릭)의 약 20%를 공급하는 "세계의 약국"

근거: "India supplies 20% of global generic medicines" - 인도 PIB「India's Transformation into a Global Health Powerhouse」(2026.3.1)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일회용 장비·소모품, 무균 충전기, 자동 검사기, 저온 유통(콜드체인)
→ 장비만 팔기보다 설치·성능검증·유지보수까지 묶어서 제안

화학

3,000억 달러

시장 2,500억 → 3,000억 달러('28)

세계 6위 화학 생산국이지만, 석유화학 원료의 70%를 수입에 의존

우리 기업 협업 수요

고부가
특수화학(스페셜티케미컬)·전자재료·배터리 소재
→ 기술을 빌려주거나(라이선싱) 인도 기업과 합작 생산이 유리
→ 단, PVC 수지 최저수입가격·반덤핑 규제는 수시 확인

원전

22GW

원전 8.8GW(25기) → 22GW('32 목표)

2025년 원자력법(SHANTI법) 개정으로 민간·외국 기업 합작 참여 허용, 원전 기자재 관세면제 2035년까지 연장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단조품(쇠를 두들겨 만든 대형 부품)·펌프·밸브·계측제어 장비
→ 인도 기업이 지분 과반을 갖는 합작 법인 형태로 참여

03

비관세 장벽 및 통관·인증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증규제

BIS · FSSAI · CDSCO

인도의 인증형 비관세장벽은 품목군에 따라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소관: 소비자업무·식품·공공배급부
핵심법: BIS Act, 2016
대상: 각 부처가 QCO로 지정한 공산품
(철강·전기전자·화학 등)

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소관: 보건가족복지부
핵심법: FSS Act, 2006
대상: 식품 전반
(유제품·육류·유아식 등)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소관: 보건가족복지부
핵심법: D&C Act, 1940
대상: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BIS 인증

제도, 최신 동향, NOC

BIS 인증은 인도 표준(IS) 충족 증명이며, QCO로 지정되면 인증 없이는 수입·제조·판매가 금지됩니다(국내외 동일 적용).

BIS (인도 표준국)
표준(IS) 제정·인증 운영 … 인증 자체는 원래 자율

→

소관 부처 QCO
특정 품목에 BIS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

→

소관 부처 NOC
QCO 대상 아님을 확인(BIS 협의) → 통관 근거

인증 제도 (3가지)

- Scheme I (ISI·FMCS): 공장 심사 기반 라이선스 — 철강·시멘트·전기제품·자동차 부품 등. 해외 공장은 FMCS, 통상 4~9개월 소요*
- Scheme II (CRS): 전자·IT 제품 자가신고 등록 — 공장 심사 없이 BIS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등록 2년 유효
- 홀마킹: 금·은 등 귀금속

주요 대상과 최신 동향

- 강제인증 대상: **187개 QCO·769개 제품** (2025.3)
- 철강: 151개 표준 — 2025.6부터 원재료(열연·냉연 코일 등)도 BIS 필요. 일관제철소 라이선스 202건은 면제 (한국 50건 이상)
- 2025.10 QCO 적용 범위 조정 방침 → 2025.11 원자재 QCO 14개 철회
- 2026.6.1 모든 신청 Manak Online 일원화 / 2026.6 DPIIT「전환지원 QCO」고시
- 2026.1 기계·전기장비 OTR(Scheme X) 명령 철회 / 2026.10.1 가전 안전 QCO 시행 — 250V 이하 가전 전반(예시 90개 품목)

NOC (No Objection Certificate)

- 수입품이 강제인증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거나, 인증 없이 수입해야 할 사유(연구개발·수출용 원자재 등)가 있을 때 소관 부처가 발급
- 해결사례(2026 상반기): 인도에 진출한 국내 케이블 기업 — 무역관이 DPIIT 면담을 주선해 원재료 동관 NOC 발급 지원

시행 예정 QCO는 미리 확인 → bis.gov.in/upcoming-qcos-notified-and-due-for-implementation

* KOTRA 해외시장뉴스(물바이무역관)「인도 BIS 인증제도 개편 본격화, 2026년 한국 제조업체가 주목해야 할 변화」(2026.8.21) · 자료: BIS 누리집(bis.gov.in), 인도 PIB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BIS 인증 절차

인증 방식에 따라 공장 실사 여부 차이. 공장 실사가 있는 방식은 해외 제조사의 경우 상당기간 소요 불가피.

Scheme I
ISI 마크 (제품인증)
공장 실사 O · 샘플 시험 O

인증 신청 → 서류 검토 → **공장 실사** → 샘플 시험 → 최종 검토 → 라이선스 발급

Scheme II
등록제 (CRS, 전자-IT 등)
공장 실사 X

온라인 계정 생성 → BIS 지정 시험소 샘플 시험 → 시험성적서로 등록 신청 → 등록(라이선스) 발급

※ **인도 대리인(AIR):** 인도에 지점·연락사무소가 없는 해외 제조사는 지정 필수 … AIR은 공증한 진술서 겸 서약서로 BIS 법령 준수 책임을 지고, 시험소와 관련 없음을 선언

Scheme IV
적합성인증서 (CoC)
공장 실사 O · 시험(외부·자체)

인증 신청 → 서류 검토 → **공장 실사** → 최종 검토 → 인증서(CoC) 발급

■ 공장 실사 단계 … 해외 제조사는 실사 일정 때문에 상당 기간 소요 (Scheme II는 실사 없이 시험성적서로 등록)

인증 대상·현황 조회

- 강제인증 품목: bis.gov.in (메뉴 Products under Compulsory Certification)
- 규격·라이선스 검색: services.bis.gov.in (메뉴 Know your standards)
- 전자-IT 등록제: crsbis.in

자료: BIS「Grant of Licence Guidelines」(Scheme I)·「Grant of CoC Guidelines」(Scheme IV), BIS(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 BIS「Guidelines for Nomination of 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for Foreign Applicants」(2015.12.30, crsbis.in)·How to apply, KOTRA 뉴델리무역관「인도의 BIS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FSSAI

위생증명서 애로와 포장 앞면 경고표시

식품 수출기업은 FSSAI(식품안전기준청) 규제를 통관 서류와 포장 표시 두 측면에서 모두 챙겨야 합니다. (근거: FSS Act 2006, FSS 수입규정 2017)

① 인도가 정한 양식의 위생증명서 … 축산물·수산물·유제품 — 서류·통관

- **무엇:** 인도가 정한 양식의 위생증명서를 따로 내라는 요구 (2022.8 처음 발표)
- **유제품:** 이미 시행 중 … 2024.10.31 이후 선적분부터 인도 양식 통합 수의위생증명서(VHC)가 없으면 통관 불가
- **돼지고기·수산물:** 2023.2부터 시행 보류(날짜 미정) … 단, 2026.2 돼지고기용 새 양식 초안 공개로 다시 추진될 수 있음
- **실제 피해:** 인도 양식 증명서를 못 내 통관이 막혀 약 2천만 원어치 물품을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인 사례 발생

유제품 수출 전: 한국 식약처가 인도 양식 증명서(VHC)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

② 포장 앞면 경고표시(FoPL) … 도입 예정 — 신규 규제

- **무엇:** 포장 식품 앞면에 소금·설탕·기름이 많다는 경고 표시를 의무로 붙이는 제도
- **기준:** 소금·첨가당·첨가지방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경고 (2026.9 FSSAI가 대법원에 낸 계획)
- **모양:** 포장 앞면 왼쪽 위, 흰 네모 안 빨간 육각형에 기준을 넘은 성분 이름
- **대상:** 가공 정도와 상관없이 성분 양으로만 판단 … 일반 과자·음료도 해당
- **감미료:** 열량 없는 감미료가 들어가면 앞면에 함유 사실 표시
- **일정:** 규정안 확정(약 4개월) → 의견수렴 60일 → 고시 → 1년 준비기간
- **기준 수치:** 아직 미공개 (인도인 식이지침 2024 바탕)

→ 설탕·기름·소금을 넣은 한국 가공식품(과자·음료·소스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 포장 디자인 변경 대비 필요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인도 식품 위생증명서 추가 제출 규정 — 최신 동향 및 법적 근거」(FSSAI F.No.1829, TIC-20012/2/2021, DAHD OM L-11/1/2019-Trade), Business Standard(2026.9.23, FoPL)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통관 체크리스트 (2026.9 시행)

인도 관세청(CBIC)은 2026.9.3 회람으로, CDSCO가 정한 7종 체크리스트를 세관이 통관 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필요 서류를 인도 세관 전자문서시스템(e-SANCHIT)에 미리 올려두면 통관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크리스트 7종

I 화장품
II 의약품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III 의약품 — 개인용, 공공병원의 신약 소량 수입
IV 의약품 — 검사·시험·분석용
V 의료기기 (체외진단기기 포함)
VI 의료기기 수입
VII 의료기기 제조용 원자재·부품

서류에 의문이 있거나 신규 화장품(COS-3)이면 CDSCO 항만사무소로 회부

체크리스트 I — 화장품 (10개 항목)

1. CDSCO 등록증 사본 — 신규 COS-2 / 후속 COS-4A
2. 인보이스 — 품명·포장단위가 등록증과 일치
3. 패킹리스트
4. 원산지증명서
5. 라벨 — 품명, 등록번호·등록증 보유자, 제조사·실제 제조장소, 배치번호, 사용기한
6. 허가받은 보관시설 증빙
7. 배치별 분석증명서(COA) 또는 출하증명서
8. 헥사클로로펜 미함유 선언
9. 제조사의 동물실험 미실시 선언
10. 포장 무손상·내용물 무변질 확약(수입자)

특히 인보이스(2번)와 라벨(5번)은 등록증(1번)과 품명·포장단위·등록번호 등이 일치해야 … 불일치나 의문이 있으면 CDSCO 항만사무소로 회부

자료: 인도 관세청(CBIC) Circular No.40/2026-Customs(2026.9.3) 및 부속서 A — taxinformation.cbic.gov.in

e-SANCHIT 사전 등록

항만 체류·체선료 부담 완화

앞 장의 체크리스트 서류를 인도 세관 전자문서시스템(e-SANCHIT)에 미리 올려 두면 서류 보완·질의로 인한 대기가 줄어, 우리 기업의 항만 체류기간과 체선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① e-SANCHIT이란

- 인도 관세청(CBIC)의 통관 증빙서류 전자 제출 시스템
- 수입신고서와 함께 인보이스·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전자서명해 ICEGATE에 업로드** — 종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음
- 도입 목적: 세관·관계기관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고 수입화물 통관 속도를 높이기 위함
- 세관 공고: "**수입 통관 시간을 크게 단축**"

② 인도 정부 측정 결과

국가 통관시간 조사(NTRS 2025, 인도 재무부)

51.76%

해상항 수입화물 중 48시간 내 반출 비율

- **단축 요인**: 사전 신고(advance filing), 위험관리 기반 간소화, AEO 인증 등
- **지연 요인**: 관세 납부, **수정·질의 대응, 관계기관(PGA) 개입**, 통관 후 물류
- 해상항 수입 평균 반출시간은 2023→2025년 약 6시간 단축

③ 2026.9 체크리스트와 연결

- CBIC Circular No.40/2026: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는 CDSCO 체크리스트 서류를 **e-SANCHIT에 올려 신속 통관**을 지원
- 세관은 반출 승인(Out of Charge) 시점에 서류를 확인하고, 불일치·의문이 있으면 CDSCO 항만사무소로 회부
- 업계 평가(PTI·Business Standard, 2026.9.7): **항만 체류기간**을 크게 줄이고 **체선료 부담**을 덜어 줄 것

선적 전 CDSCO 등록증·인보이스·라벨을 일치시켜 확정하고, 현지 관세사(CHA)에 입항 전 사전 신고와 e-SANCHIT 업로드를 요청

자료: 인도 JNCH(나바셰바) 세관 공고 No.162/2017(CBEC Circular No.40/2017-Customs 인내), 인도 PIB「National Time Release Study 2025」(2025.6.20), CBIC Circular No.40/2026-Customs(2026.9.3), Business Standard/PTI(202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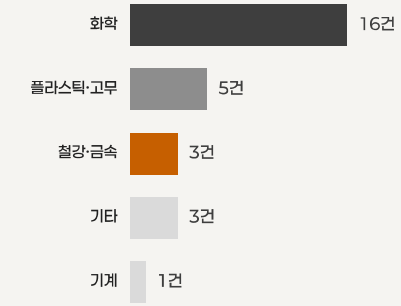
무역구제

인도의 대한국 수입규제 28건

인도는 대한 수입규제 28건으로 미국(54건)에 이어 2위이며, 올해 상반기 신규 조사는 6건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집중돼 있습니다.
(KOTRA「202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2026.6.30 기준)

품목군별 건수

반덤핑 25건 · 세이프가드 3건 / 규제중 17 · 조사중 11 (무역관 집계, 7.23 기준)



화학·플라스틱 계열이 전체의 75% (21건)

구분	주요 조치 (진행상황)
철강	비합금·합금강 평판 세이프가드(규제중) · 전기아연도금강판 반덤핑(규제중) · 방향성 전기강판(CRGO) 반덤핑(조사중) ※ CRGO는 반덤핑 조사와 동시에 특수강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2025.11 3차) 지원 대상 — 수입은 견제하고 국산화는 지원
화학	페놀·아세톤·특정 산화방지제 반덤핑(조사중, 신규) · 소다회 세이프가드(조사중, 신규) · TDI·에피클로로히드린·무수프탈산 반덤핑(규제중)
플라스틱·고무	PVC 페이스트 레진·CPVC·액상 에폭시 수지 반덤핑(규제중) · ESBR·태양광 봉지재 반덤핑(조사중)

대응: DGTR 조사가 시작되면 질의서에 30일 안에 성실히 답변 … 답변하지 않으면 DGTR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판정해 불리한 높은 세율이 매겨질 수 있음 (인도 반덤핑 규칙 제6조). 수입규제가 잦은 품목은 현지 생산 전환도 검토

DRI 품목분류 조사: 과거 사례와 2026 최신 사례

인도 세입정보국(DRI): 기업이 신고한 HS코드보다 세율 높은 코드를 주장하며 과거 수입분까지 세금 차액을 추징해 온 전례 있음 … 2026.9 OLED TV 부품 조사 시작

과거 사례 (2023년 기준) … 8708 = "자동차 부분품"으로 묶는 코드

기업	품목	DRI가 주장한 코드 (세율)	기업이 신고한 코드 (세율)
A사	통신 기지국 장비(RU)	8517.62 (20%)	8517.70 (0%)
B사	차량용 AV·내비게이션	8527.29 (10%)	8526.91 (0%)
C·D·E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8708** (15%)	9032 (0%)
F사	와이퍼 모터·윈도 모터	8512.40 / **8708.99** (15%)	8501.10 / 8503.00 (7.5%)
G사	차량용 시트	**8708.99** (15%)	9401 (7.5%)
H사	베어링	**8708.99** (15%)	8708.50 (5%)
I사	자동차용 모터	**8708.94** (15%)	8501.51 (10%)

2026.9 최신 사례: OLED TV 부품 (삼성·LG)

5→15% 세율 차이 10%p
못 낸 세금의 최대 100%까지 가산금

쟁점: 인도는 LCD·LED TV 화면 부품(오픈셀)에 관세 5% 우대 … DRI는 "OLED는 해당 안 됨, 15%", 업계는 "OLED도 LED의 발전형이라 5%"

업계 건의: 인도 가전·전자 업계 단체가 2026.8 정부에 OLED 부품도 5%에 넣어 달라고 요청

조사: 삼성은 인도 본사 현장조사, LG는 서면 답변 후 추가 관세에 대비해 돈을 미리 맡김(예치금)

영향: LG가 인도 OLED TV 시장의 약 59% … 다른 신기술 부품으로도 번질 수 있음

시사점: 인도 세관 분류가 국제기준(WCO 결정)과 다르거나 새 기술 제품이 관세표에 없을 때 분쟁이 생기고, 추징되면 가산금까지 … 부품마다 HS 근거자료(기능·용도·WCO 의견)를 미리 준비하고, 애매한 품목은 사전품목분류(CAAR)로 미리 확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인도 무역관 화상회의 자료(한-인도 CEPA 관련, 2023년 기준), 기업명 익명 처리 · Reuters(2026.9.23, OLED TV 부품 조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 품질관리명령(QCO) 시행 안내

- 2026년 10월 시행 품목 -

□ 개요

- 인도 정부는 BIS 법(2016)에 따른 품질관리명령(QCO)으로 대상 제품의 BI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도 내·해외 제조사 모두 인도 공급 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2026. 10. 1.(목)** 아래 3개 품목에 대한 QCO 시행

□ 시행 품목

연번	품목	인도 표준	주관 부처	시행일
1	가정용·상업용 전기기기	IS 302 (Part 1):2024	DPIIT(산업무역진흥청)	2026. 10. 1.
2	알루미늄 식기류 *	IS 1660:2024	DPIIT(산업무역진흥청)	
3	음료용 알루미늄 캔	IS 14407:2023	DCPC(화학·석유화학부)	

전기기기 대상 범위: 정격전압 단상 250V 이하, 그 외 480V 이하인 가정용·상업용 및 유사 용도 전기기기 전반 (직류 전원·배터리 구동 기기 포함)
* Wrought Aluminium Utensils

□ 전기기기 해당 품목 예시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s and Water Suction Cleaning Appliances	**원심 탈수기** Spin Extractors	**레인지·쿡탑·오븐** Cooking Ranges, Hobs, Ovens and Similar Appliances
전기면도기·이발기 Electrical Shavers, Hair Clippers and Similar Appliances	**회전식(텀블) 건조기** Tumbler Dryers	**보온 플레이트** Warming Plates and Similar Appliances
프라이팬·튀김기 Frying Pans, Deep Fat Fryers and Similar Appliances	**마사지기** Massage Appliances	**전기 가열 공구** Electric Heating Tools
전기 스팀쿠커 Electric Steam Cookers	**식기세척기** Dishwashers	**공기청정기** Air-Cleaning Appliances
가습기 Humidifiers	**배터리식 청소기·면도기** DC/Battery-operated Vacuum Cleaners, Shavers	**전동칫솔 등** DC/Battery-operated Toothbrushes and Oral Hygiene Appliances

자료: BIS Manak Samachar 2026년 10월호, BIS 시행 예정 QCO 목록(2026. 10. 12. 갱신)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 전환촉진 품질관리명령(TFQCO) 주요 내용

□ 개요

- 인도 QCO 10개 품목군에 한해 공장 심사(Scheme-I) 없이 제품 시험 중심의 **Scheme-II로 BIS 인증(ISI 마크)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경로**(interim Scheme-II route)
- **인도 법인이 DPIIT 허가(Permission)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공급하는 제조사가 BIS Scheme-II 라이선스를 취득
- **인도 표준(IS) 준수 의무의 면제가 아니며**, 공장 심사(Scheme-I)를 거치지 않는 경로. 인도 내 투자·설계·R&D 등 **현지 역량 구축 약속과 연동**된 업체별 허가로서, 해당 업체의 현지 전환(역량 구축) 이행 약속과 밀접하게 연계(BIS 뉴스레터 10월호)

□ 주요 사항

신청 접수 기한	시행일로부터 24개월
존속 기간	원칙 5년 (연장 시 관보 고시)
적용 대상	QCO 10종 한정

□ 추진 절차

1단계 DPIIT 허가 (Permission)	**주체** 인도 법인 (Companies Act 2013) **내용** DPIIT에 신청 → Implementation Committee 위험평가 → 상공부 장관 승인 → 조건이 명시된 허가서(Permission Letter) 발급
2단계 BIS 인증	**주체** 허가받은 업체에 공급하는 제조사 **내용** Scheme-II 온라인 포털로 BIS에 별도 신청. 라이선스는 허가받은 업체에 공급하는 용도로만 발급

□ 적용 대상 QCO

No.	품목 (QCO)	시행일
1	장난감	2021.1.1
2	PPE 신발	2022.1.1
3	에어컨·관련 부품·밀폐형 압축기·온도 센싱 컨트롤	2023.10.1
4	고무·폴리머 신발 및 부품	2024.8.1
5	가죽 등 소재 신발	2024.8.1
6	가정용 온수 전기기기	2025.3.1
7	가정용 세탁 전기기기	2025.4.1
8	경첩	2025.7.1
9	가구	2026.2.13
10	가정용·상업용 및 유사 전기기기 안전	2026.10.1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 자격 요건: 다음 3개 중 1개 해당 시
  ① 인도 내 자체 공급망 구축 약속
  ② 인도 위탁생산 계약을 통한 구축 약속
  ③ 해당 QCO 3년 연속 무위반 준수 실적
- 제출 서류: 법인식별번호(CIN), 수출입자 코드(IEC), GST 등록증, 서명권자 위임장·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인증(attested) 필요
- 본사·그룹사 간 신청 시 추가 서류: 최근 3개 회계연도 감사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설계·제조 통제 증빙, 이사회 선언서
- 접수 방법: 전자 창구(NSWS). 미개설 시 DPIIT에 서면 제출

□ 주요 사항

인도 법인 의무	
허가 조건 준수	허가서에 정해진 조건(대상 품목, 수량 한도, 유효기간, 제조사, 이행 목표) 준수
정기 보고	DPIIT에 연 1회 이행보고서(공인회계사 인증,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분기별 선적 내역 및 BIS 라이선스 취득 신고
시장 감시 협조	BIS의 시장 감시(제품의 인도 표준 적합 여부 확인)에 협조
정책 준수	허가 물품의 공급은 현행 수출입 정책,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에 따름
심사·관리	
공장 실사	허가 심사 시 **공장 실사 불요**
검토·감사	연 1회 검토(표준 준수, 감시 결과, 이행 목표), 필요 시 제3자 감사기관의 사후 감사 실시
정지·취소 사유	**중대한 허위 진술, 인도 표준(IS) 부적합, 시장 감시 결과 부적합, 제출 계획상 약속 미이행** (청문 기회 부여 후 처분)

자료: ① 전환촉진(품질관리)명령 2026 원문 (The Gazette of India, S.O. 3417(E), 2026.6.25.) ② DPIIT, Guidelines for TFQCO 2026 ③ BIS, Manak Samachar 2026.10월호 p.4-5

04

우리 기업이 자주 겪는 FTA 활용 애로사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자주 겪는 애로 3가지와 대응

무역관에 접수되는 우리 기업 애로는 크게 품목분류, 서류·통관 지연, 인증 요구 세 가지로 나뉩니다.

품목분류
HS 재분류로 CEPA 혜택 배제

애로

세관이 수입 물품을 다른 HS코드로 재분류해 CEPA 협정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DRI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동차 부품을 고세율 코드·CEPA 미양허 품목으로 분류해 차액을 소급 추징

대응

- 수출 전 양측 HS코드 8단위 일치 확인
- 분류가 불확실하면 인도 사전품목분류(CAAR)로 서면 판정
- 분쟁 시 관세청-인도 관세당국 협력채널 활용

관련: IV 대응 수단(관세당국 협력) · V CAAR

서류·통관 지연
같은 서류 반복 요구

애로

과도한 서류 반복 제출 요구와 통관 지연이 상시 애로로 제기되며, 관세 인하 효과를 깎아 먹습니다.

예: 원산지 입증정보(Form-I) 추가 요구, 증명서 종이 품질·인쇄 상태 지적, 철강·비철금속·반도체·종이는 수입 전 사전등록(DGFT) 미이행 시 통관 보류

대응

- 바이어와 필요 서류 목록을 미리 맞추고 한 번에 준비
- 원산지증명서 등 CEPA 서류를 선적 전에 확보
-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는 CBIC 체크리스트 서류를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전 등록

관련: IV 해결사례 ①·③ · III 통관 체크리스트

인증 요구
BIS 등 강제인증

애로

신규 인증 취득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며, 강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세관이 BIS 인증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BIS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원재료(통관)에 인증 여부가 문제돼, 인도 상공부 확인서(NOC)로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②)

대응

- BIS 강제인증(QCO) 대상인지 공식 목록에서 먼저 확인
- 대상이 아니면 당국 유권해석·NOC로 서면 소명
- 대상이면 발주 전에 미리 취득

관련: IV 해결사례 ② (BIS NOC)

자료: KOTRA「서남아 시장 주요 이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원산지·EODES 활용 애로

① EODES 현장 애로 (2023.12.22 정식 운영)

한국 관세청과 인도 CBIC가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 교환 … 종이 원본 없이 실시간 CEPA 적용 (원본 대기 최대 6일 해소) … 관세청 발표(2023.12)

1. **종이 원본 요구:** EODES를 모르는 일부 인도 세관이 원본 제출 요구
2. **수신·시스템 오류:** 인도 전자통관(ICEGATE) 오류로 신고 지연
3. **혜택 포기·가산금:** 오류 탓에 신고 지연 가산금을 내거나 CEPA 혜택 포기

② 원산지 때문에 CEPA 혜택을 포기하는 이유

엄격한 기준: 양허품목의 74%가 세번변경+부가가치 동시 충족(결합기준) … 미국 FTA 1.4%, EU 3.6%

추가 서류(Form-I): 바이어에게 원가 정보를 넘겨야 하는 부담

양허품목 수입규제: 귀금속 장신구는 CEPA 협정세율 0%여도 인도 정부(DGFT) 수입허가 필요 … DGFT 고시 No.02/2026-27(2026.4.1)

대응: 수입자에게 EODES 적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원본 요구 시 관세청 전자 전송 기록으로 소명 … 생산공정·원재료 원산지 자료를 BOM 단위로 보관해 Form-I 요청에 즉시 대응 … 제3국 경유·가공품은 원산지 리스크 사전 점검 … 결합기준 완화는 개선협상 건의 과제

자료: 한국 관세청·인도 CBIC「Summary of EODES Meeting」(2024.1.19), 관세청 발표(2023.12, EODES 정식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인도 무역관 화상회의 자료(2023년 기준), KIEP(2021, 결합기준 비중), CBIC Circular No.43/2026-Customs(2026.9.24), DGFT Notification No.02/2026-27(2026.4.1)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애로 해결사례 ① EODES 오류로 막힌 수입신고 해소

기업개요 휴대폰 케이스 제조사

수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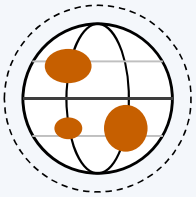
1.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도입 직후, 발급 오류로 수량과 중량이 뒤바뀌어 기재
2. 인도 전자통관(ICEGATE)에서 **수량 불일치 오류(코드 881)** → 디스플레이 공장용 핵심 부품 **수입신고 불가·납기 위기**

CEP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센터가 한국 관세청 FTA집행과와 오류 원인 확인
» 원산지증명서를 정정·재발급 받아 CEPA 0%로 통관
» 신고 지연 가산세(9.5만 루피)는 대사관과 인도 관세청(CBIC)에 구제 요청

성과



CEPA 0% 적용

통관 정상화

» 기본세율 15% → CEPA 0%로 통관
» 양국 관세청 협조로 EODES 오류 대응 절차 확인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2024년 상반기 우수사례」(뉴델리-5, 2024.1) · 기업명 익명 처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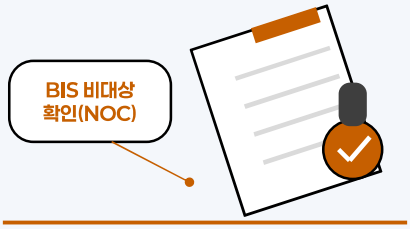
애로 해결사례 ② BIS 인증 대상 여부, NOC로 확인

기업개요 케이블 제조 기업

수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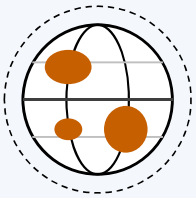
1. 케이블 원재료 동관(91톤) 수입 시 BIS 강제인증 대상인지 불분명
2. 개정 표준(IS 10773:2025)
   → **2026.5.28부터 시행 … 인증 대상 가능**
   → 그 전에 인증 없이 통관할 수 있는지
   공식 확인이 필요

CEP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무역관이 인도 상공부(DPIIT) 면담 주선
» 2026.5.27 "현행 IS 10773:1995 대상 아님" 회신(NOC)
» 6.2 제품 용도(통신 케이블용 OFC 튜브)를 소명하며 통합 NOC 추가 요청

성과



» 인증 없이 원재료 동관 통관 근거 확보
» 단, 확인서는 이번 수입 물량에만, 5.27까지만 유효
→ 다음 수입분은 새 표준 대상인지 재확인

자료: 인도 상공부(DPIIT) 회신문 F.No. P-29014/189/2024-LEI(2026.5.27), 기업 메일(2026.6.2) · 기업명·담당자 정보 가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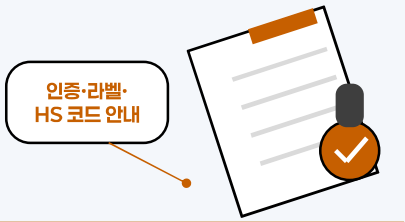
애로 해결사례 ③ 식품인증(FSSAI) 지원으로 첫 수출

기업개요 식품 제조 중소기업

수출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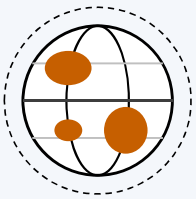
1. 인도 첫 수출 … FSSAI 인증 경험이 없어 샘플·분석증명서·HS 코드·원산지증명서 준비가 막막
2. 2023년 라벨 규정 강화로
   → **스티커 라벨은 통관 거부 위험**
   → 포장 인쇄 비용 부담,
   소량 주문은 대응 어려움

CEPA센터를 통한 애로해소



» 시험 샘플(약 500g × 5개)·제출 서류·라벨 규정 안내
»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안내
» 인도 수입자와 직접 연락해 HS 1901.90으로 확정

성과



» 2024.3 컵 떡볶이 인도 첫 수출 성공
» 기본세율 30% → CEPA 5%, 통관 지연 없이 수입

자료: KOTRA 뉴델리무역관 CEPA 활용지원센터 「2024년 상반기 우수사례」(뉴델리-2) · 기업명 익명 처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현장 애로와 대응 수단

한국무역협회
2025년 10월 인도·동남아 해상운송 지원사업

현장 애로별 대응

구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물류	항구가 붐비고 내륙 운송 트럭·철도가 부족해 배송이 늦어짐	납기를 넉넉히 잡아 계약 · 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서류를 전자 등록(e-SANCHIT) · 무역협회 해상운송 지원사업 활용
인증(BIS)	공장 실사·시험에 몇 달이 걸리고, 비용이 수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음	인증을 미리 받아 두기 … 늦으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반출이 지연되어 적기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서류	세관이 서류 보완을 자주 요구	인도 세관 체크리스트(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맞춰 선적 전에 서류를 한 번에 준비
공공조달	인도 정부 입찰은 인도산 비중 50% 이상인 업체를 우대(PPO)	인도 기업과 협력·합작해 인도산 비중을 높이기 (VI장 PPO 참고)
대금결제	바이어가 돈을 안 내거나 늦게 낼 위험, 진출 초기 자금 부담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 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등 활용
법률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 불분명	계약서에 중재 조항 삽입 · 대한상사중재원과 무역보험공사 대금 회수 지원 연계(2026.8 협약)

* 현지 진출기업 인터뷰(발표자 청취) · 자료: 인도 DPIIT「Public Procurement (Preference to Make in India) Order, 2017」, 한국무역보험공사「단기수출보험」, 한국수출입은행「수출팩토링」, 한국무역협회「2026년 인도·동남아 해상운송 지원사업」, 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2026.8.19, 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수출 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수출 전 7가지를 "수출 준비 → 서류·선적 → 사후 관리" 순서로 점검하세요.

STEP 1 수출 준비

품목·세율·원산지 확인

☑ 1. HS코드

내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도 바이어와 같은 코드를 쓰는지 맞추기
애매하면 인도 사전품목분류(CAAR)로 미리 판정

☑ 2. 세율 비교

인도 기본 관세율과 CEPA 세율을 비교해
CEPA를 쓰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

☑ 3. 원산지 기준

내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원재료 목록(BOM)·원가자료로 미리 확인

STEP 2 서류·선적

증명서·운송·인증 서류

☑ 4. 원산지증명서

선적 전에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 6. 직접운송

제3국에서 환적하면 경로가 적힌 B/L과
경유국 세관 서류를 받아 두기
(인도 세관 요구 시 제출, 협정 제3.15조·제4.8조)

☑ 7. 인증·선적서류

BIS·FSSAI 등 필요한 인증은 선적 전에 받기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의 품명·수량·
HS코드를 똑같이 맞추기

STEP 3 사후 관리

원산지 근거자료 보관

☑ 5. CAROTAR

인도 바이어는 원산지 근거를
5년간 보관하고, 세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함(Form-I)

→ 바이어가 요청하면 바로 줄 수 있게
원재료·생산공정 자료를 정리해 두기

자료: 한-인도 CEPA 협정문(제3장 원산지, 제3.15조 직접운송), 관세청 FTA 포털(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인도 CBIC 고시 제81/2020-Customs(N.T.)(CAROTAR 2020)·제14/2025(개정), Circular No.43/2026-Customs(2026.9.24)

05 FTA 활용 체크리스트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EPA 세율·BIS 인증 대상

CEPA 세율 확인

1 한국산 협정세율 (한국 사이트) — customs.go.kr/ftaportalkor

HS코드 입력 → 인도 기본세율·CEPA 세율 함께 표시
출처: 관세청 FTA 포털「1국 다협정 해외관세율」(인도 탭)

2 HS코드·세율 비교 (한국 사이트) — unipass.customs.go.kr/clip

세계HS → HS비교 → 한국·인도 관세율표를 HS코드별로 비교 (참고용)
출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세계HS – HS비교」

3 원산지결정기준 (한국 사이트) — customs.go.kr/ftaportalkor

인도 선택 → HS코드 6단위(HS 2007 기준) 입력 → 품목별 기준
출처: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4 인도 사이트로 교차 확인 — indiantradeportal.in

HS코드 입력 → South Korea 선택 → CEPA 적용 여부·세율 (영문)
출처: Indian Trade Portal (인도 상공부 산하 수출단체 FIEO 운영)

BIS 인증 대상 확인

1 강제인증(QCO) 대상 — bis.gov.in

시행 중인 QCO 품목·적용 표준(IS 번호)·고시
출처: BIS「Scheme-I (Mark Scheme)」

2 시행 예정 QCO — bis.gov.in

품목별 시행일 (예: 알루미늄 봉·판재 등 2026.12.1)
출처: Upcoming QCOs

3 전자·IT 등록제(CRS) — bis.gov.in

Scheme II 등록 대상 품목 목록
출처: BIS「Scheme-II (Registration Scheme)」

4 인증 신청 — manakonline.in

2026.6.1부터 모든 신청 온라인 전용(FMCS 포함)
출처: BIS Manak Online

자료: 관세청 FTA 포털(1국 다협정 해외관세율,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세계HS), Indian Trade Portal, BIS 누리집(Scheme-I, Upcoming QCOs, Scheme-II), KOTRA 해외시장뉴스(2026.8.21., Manak Onlin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 사전품목분류(CAAR) 제도

CAAR(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은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품목분류 등에 대해 서면 판정을 미리 받는 인도 관세당국의 제도입니다. 판정은 신청인과 관할 세관을 구속합니다. (관세법 제28E조·제28J조)

무엇을 판정받을 수 있나 (제28H조)

- 물품의 품목분류
- 관세율에 영향을 주는 고시(면세 등)의 적용 여부
- 과세가격 결정 원칙
- 관세·세금 관련 고시의 적용 여부
- 원산지 결정 (협정 원산지 규정 포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28E조)

① 인도 수출입자 코드(IEC) 보유자
②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는 자
③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CAAR이 인정하는 자
→ 한국 수출기업도 ②에 따라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판단

신청 절차

1 신청	2 수리 여부 결정	3 판정	4 효력	5 불복
Form CAAR-1 제출 수수료 1만 루피 (약 14만 원) (CAAR 규정 2021)	계류 중·기결정 사안은 신청 불가 (제28-I조)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 (제28-I조)	5년간 유효 기존 판정도 신청 시 연장 (제28J조, Finance Act 2026)	판정 통지 후 60일 내 고등법원 항소 (제28KA조)

유의사항

- 같은 쟁점이 이미 세관·심판원·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 신청 불가 (제28-I조)
- 판정은 신청인과 관할 세관에만 구속력 (제28J조)
- 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바뀌면 판정 효력 없음 (제28J조)
- 사기·은폐·허위 진술로 받은 판정은 무효 (제28K조)

관세청 지원: 인도 관세당국 협력

품목분류 분쟁 14건·약 1조 177억 원(2021~2025) … 타결 5건·진행 9건
2025.9 WCO 무관세 결정(기지국 부품 약 8천억 원 추정 해소)
2026.3 민·관 합동 대응팀 / 2026.5 인도 CAAR와 협력채널 구축
2026.8 관세청-CBIC 위원장 면담, 공동설명회에 인도 당국 첫 참여

관세청: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

자료: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 제28E·28H·28-I·28J·28K·28KA조, CAAR 규정(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Regulations, 2021), 인도 Finance Act 2026(2026.3.30 재가, 유효기간 5년 연장), 관세청 보도자료(2026.3.19·5.6·8.12·8.14), 관세평가분류원(2026.5.6) · 원화 환산: 2026.10.5 기준 1루피≈14원

06 참고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인도 주요 기관과 정보 채널

인도 규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아래 공식 채널에서 최신 고시와 목록을 직접 확인하세요.

인도 정부 기관

기관	확인할 내용	누리집
CBIC (간접세·관세청)	관세율, 관세·통관 고시(Notification·Circular)	cbic.gov.in / taxinformation.cbic.gov.in
DGTR (무역구제총국)	반덤핑·세이프가드·우회수입 조사	dgtr.gov.in
DGFT (대외무역총국)	수출입 정책, 수입제한·허가 품목	dgft.gov.in
BIS (인도표준국)	강제인증(QCO) 품목, 시행 예정 QCO	bis.gov.in
FSSAI (식품안전기준청)	식품 수입·표시 기준	fssai.gov.in
CDSCO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록	cdsco.gov.in
DAHD (축산낙농부)	유제품·축산물 수입 위생증명서(VHC)	dahd.gov.in

한국 기관

기관	확인할 내용	누리집
관세청 YES FTA	협정세율·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안내	customs.go.kr/ftaportalkor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 시장·규제 동향(한국어)	dream.kotra.or.kr
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국가별 관세·비관세장벽	tradenavi.or.kr
관세청 UNI-PASS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세계HS 비교(CLIP)	unipass.customs.go.kr

2027 인도 주요 전시회 일정

2027.2
- **Aero India** (항공우주·방산) 2.8~12, 벵갈루루
- **인도 재생에너지 박람회** 2.11~13, 첸나이
- **SOURCE India** (전자부품·공급망) 2.17~19, 첸나이

2027.5
- **Global Food Pro** (식품) 5.13~15, 카르나타카
- **ACMEE** (공작기계·자동화, KOTRA 한국관) 5.27~31, 첸나이

2027.6
- **GITEX AI India** (인공지능) 6.2~4, 카르나타카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참고) 주요 수출입품목 상세 (MTI·HSK 기준)

對인도 5대 수출품목 (MTI 기준)

순위	2023	2024	2025	2026.1~8
1	석유화학제품 18.3%	전자부품 19.4%	전자부품 21.5%	전자부품 30.9%
2	전자부품 16.0%	석유화학제품 17.8%	석유화학제품 16.1%	석유화학제품 14.8%
3	철강제품 13.8%	철강제품 13.0%	철강제품 12.5%	철강제품 9.0%
4	수송기계 7.3%	산업용전자제품 5.3%	비철금속제품 5.8%	비철금속제품 5.3%
5	비철금속제품 5.7%	비철금속제품 5.2%	산업용전자제품 5.5%	산업용전자제품 5.0%
합계	61.0%	60.7%	61.4%	64.9%

對인도 5대 수입품목 (MTI 기준)

◂ 주요 수출입품목으로

순위	2023	2024	2025	2026.1~8
1	광물성연료* 24.6%	광물성연료* 22.8%	광물성연료* 20.3%	광물성연료* 21.6%
2	비철금속제품 18.7%	비철금속제품 15.3%	비철금속제품 17.2%	비철금속제품 19.9%
3	바이오헬스 8.9%	바이오헬스 9.0%	바이오헬스 9.1%	정밀화학제품 8.5%
4	농산물 7.4%	정밀화학제품 7.9%	정밀화학제품 8.8%	바이오헬스 8.0%
5	정밀화학제품 6.3%	농산물 7.2%	농산물 6.3%	기타철강금속제품 5.0%
합계	65.9%	62.2%	61.8%	63.0%

對인도 5대 수출품목 (HSK 4단위 기준)

순위	2023	2024	2025	2026.1~8
1	집적회로(8542) 10.7%	집적회로(8542) 14.3%	집적회로(8542) 16.6%	집적회로(8542) 26.1%
2	자동차부품(8708) 5.2%	석유제품(2710) 5.1%	석유제품(2710) 5.4%	석유제품(2710) 4.9%
3	석유제품(2710) 4.9%	열연강판(7208) 5.0%	열연강판(7208) 3.9%	자동차부품(8708) 2.7%
4	열연강판(7208) 4.7%	자동차부품(8708) 3.6%	자동차부품(8708) 3.2%	도금강판(7210) 2.6%
5	도금강판(7210) 2.9%	도금강판(7210) 3.1%	도금강판(7210) 2.9%	아연 괴(7901) 2.3%
합계	28.2%	31.1%	32.1%	38.6%

對인도 5대 수입품목 (HSK 4단위 기준)

순위	2023	2024	2025	2026.1~8
1	석유제품(2710) 24.6%	석유제품(2710) 22.8%	석유제품(2710) 20.3%	석유제품(2710) 21.2%
2	알루미늄괴(7601) 12.9%	알루미늄괴(7601) 9.3%	알루미늄괴(7601) 8.6%	알루미늄괴(7601) 10.0%
3	납 괴(7801) 3.7%	합금철(7202) 4.5%	납 괴(7801) 4.6%	합금철(7202) 4.6%
4	합금철(7202) 3.7%	납 괴(7801) 3.6%	합금철(7202) 4.5%	납 괴(7801) 3.5%
5	헤테로고리(2933) 2.8%	헤테로고리(2933) 2.8%	핵산·염(2934) 2.8%	정제 구리(7403) 2.9%
합계	47.6%	43.1%	40.8%	42.3%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품목별 국가 수출입」(원자료: 관세청), 2026.10.3 조회 · 비중은 對인도 수출(수입) 총액 대비, 2026년은 1~8월 누계 · 위: MTI(산업통상부 품목분류) 2단위, 아래: HSK 4단위 · *광물성연료: 니프타 등 석유제품(2026.1~8 광물성연료 수입의 약 98%)

(참고) 사후심사

통관 후 몇 년 뒤 날아오는 추징

인도는 수입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기신고제(2011~)를 운영합니다. 통관은 빨라졌지만, 문제는 통관 후 사후심사에서 드러납니다.

1. 사후심사 착수 — 관세법 제99A조·관세심사규정(2018)
2. 서류 제출·실사 — 거래 단위 또는 사업장 단위 심사
3. 부과고지 사전통지 — SCN(Show Cause Notice) 발부, 소명 기회
4. 부과 결정 — 세관장 원처분 (Order-in-Original)
5. 불복 — 항소위원 → CESTAT → 고등법원·대법원

추징 기간과 부담

- 일반: 2년 이내 (관세법 제28조)
- 고의·은폐 판단 시: 5년까지 소급
- 이자(제28AA조) + 가산금 최대 100%(제114A조)
- SCN 발부 전 자진 납부 시 가산금 감경 가능

실제 사례

- 우리 기업 기지국 부품(RU): 인도 측 약 8천억 원 추징 시도 → 2025.9 관세청이 WCO에 상정,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결정 (관세청)
- 삼성·LG OLED TV 부품(2026.9): 인도 관세정보국(DRI) 조사 착수 — LG는 서면질의 답변과 함께 자발적 예치금 납부 (Reuters)

기업 대응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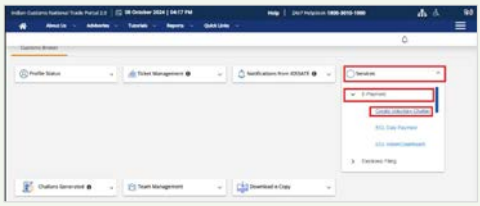
- 품목분류·과세가격 근거자료 5년 이상 보관
- 특수관계 거래는 SVB(과세가격 특별조사) 대상 여부 사전 점검
- 쟁점 품목은 CAAR 사전판정으로 선제 확정 (다음 장)

(참고) 과세통지(SCN)를 받았다면: 인정납부 또는 불복

사후심사나 DRI 조사 끝에 과세통지(SCN, Show Cause Notice)가 발부되면 기업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인정납부

- 추징세액을 인정하고 ICEGATE e-Payment로 자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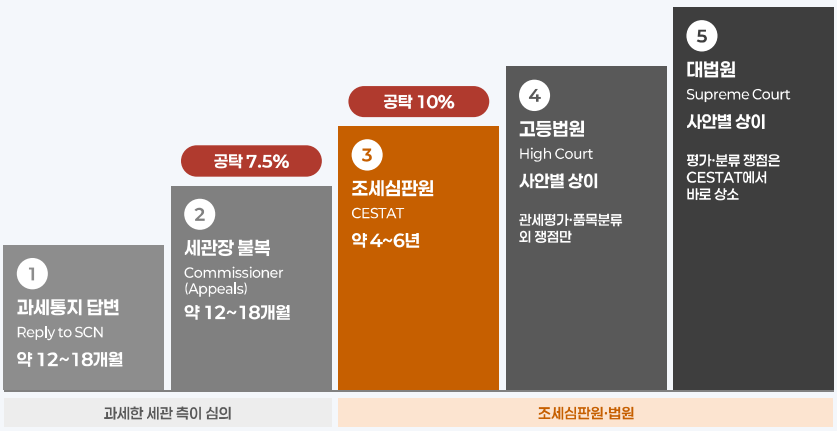


경로: ICEGATE → Services → E-Payment → Create Voluntary Challan

② 불복진행

- 먼저 과세통지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답변 기한: SCN 수령일로부터 30일
-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관할 세관에 공문으로 기한 연장 신청 검토
- 1~2단계는 과세한 세관 측이 심의, 3단계 조세심판원(CESTAT)부터 비교적 중립성 확보

관세 불복 절차 (5단계)



자료: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 제129E조(불복 시 사전 공탁 7.5%·10%), 제130조·제130E조(고등법원·대법원 상소) · 화면: CBIC ICEGATE 2.0「Voluntary Payment User Manual」v1.01

06 참고사항

(참고)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추진 중)

중소기업 진출 기회

2026.4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한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 산업타운(Korean Industrial Township)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용 산업단지로 중소기업의 인허가·인프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026.4 정상회담	2026.5 국내 후속 논의	2026.6 현장 방문	2026 연내 첫 회의
모디 총리 "한국 산업타운 조성" 발표 · 장관급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합의	산업부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5.11) …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중간재 현지화 필요성 제기	산업부·대사관·KOTRA 대표단 YEIDA(그레이터 노이다) 방문 … 약 900에이커 '코리안 시티' 계획 검토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양국 산업장관 대화체) 연내 첫 회의 개최 합의

왜 중요한가

진출 구조: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74%가 제조업이지만 대부분 현대·기아·삼성·LG 등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의 벽: 용지·전력·인허가에서 좌초 — 단지가 이를 일괄 제공하는 plug-and-play 구조

1차 수요: 자동차부품·전기전자·기계 등 기존 공급망 연계 업종, 델리 수도권(전자)·푸네(자동차) 집적지와 연계

시사점

골든타임: 부지·인센티브·입주자격이 미확정인 지금이 우리 기업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시점

유의점: '중간재 수입→현지 가공→내수 판매' 구조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 … 중간재 현지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2026.5 전문가 간담회)

채널: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등에 애로 제기

◂ 유망 품목으로 돌아가기

자료: 인도 총리실·DD News(2026.4.20,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공동전략비전), 이투데이·전자신문(2026.5.11, 한-인도 경제협력 전문가 간담회), The Pioneer(2026.6.26, YEIDA 한국 대표단 방문)

06 참고사항

(참고) 현지 생산도 함께 검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인도는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등으로 "인도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수출만으로 한계가 있는 품목은 현지 생산을 함께 검토하되, 현지에서 만든 제품도 인도 인증·표시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PLI(생산연계 인센티브)란

방식: 인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매출 증가분(기준연도 대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2020년 도입

규모: 14개 분야, 인센티브 예산 1.91 lakh crore 루피(약 27조 원), 836건 승인

성과: 누적 투자 2.6 lakh crore(약 36조 원), 매출 23.8 lakh crore(약 333조 원), 수출 15.5 lakh crore 루피(약 217조 원) (2026.6 기준)

분야: 전자·IT하드웨어, 의약품·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통신, 식품가공, 에어컨·LED, 섬유, 태양광 모듈 등

한국 기업: 한국에서 직수출하는 물량은 대상 아님 … 인도 현지법인 생산 또는 PLI 기업 공급망 참여로 연결

현지 생산 검토 체크포인트

① 내 품목이 PLI 대상 분야인지, 소관 부처 지침(투자·매출 증가 기준 등) 확인

② 현지 생산 제품도 FSSAI·BIS 등 인증과 라벨을 생산 단계부터 반영 … 라벨 오류는 시정명령·재포장으로 이어짐

③ 계속 수출할 품목은 CEPA 세율·원산지 요건과 현지 생산 비용을 비교해 결정

자료: 인도 PIB(PLI 보도자료 2026.2.20, 「12 Years of Make in India」 2026.9.24) · 원화 환산: 2026.10.5 기준 1루피≈14원, 1 lakh crore = 1조 루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참고) 인도 공공조달 현지화 우대 제도(PPO)

◂ 현장 애로와 대응 수단으로 돌아가기

PPO(Public Procurement (Preference to Make in India) Order, 2017)는 인도 정부·공기업이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현지 부가가치(로컬 콘텐츠)가 높은 공급자를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인도 상공부 산업국내교역진흥국(DPIIT) 소관입니다.

① 공급자를 현지 부가가치 비율로 3등급 구분

Class-I	50% 이상	모든 입찰 참여 · 구매 우대 대상
Class-II	20~50%	입찰 참여 가능 · 구매 우대 없음
Non-local	20% 미만	글로벌 입찰(GTE)에서만 참여

※ 소관 부처가 품목별로 더 높은 비율 지정 가능(2020.9 개정) — 예: 철도 화차·궤도 부품 50% 초과, 반데바라트 열차 전장품 75%, EMU·MEMU 전장품 60%

② 입찰·낙찰 규칙

입찰 자격: 글로벌 입찰(GTE)이 아니면 Class-I·II만 참여 가능. 200크로르 루피 이하 GTE는 별도 승인이 있어야 발주

현지 역량 충분 품목: 금액과 관계없이 Class-I만 입찰

구매 우대: 최저가가 Class-I이 아니면 물량 50%만 배정, 나머지 50%는 가격 차이 20% 이내 Class-I이 최저가에 맞추면 배정

상호주의: 인도 기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막는 나라의 기업은 참여 제한 · 입찰서의 외국 인증 요구는 차별 관행으로 규정

③ 우리 기업 시사점

적용 범위: 중앙부처·산하기관·자치기구·공기업 조달 — 철도·전력·통신 등 인프라 입찰에 직접 영향

완제품 직수출로는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적 → 현지 생산·합작으로 현지화율 확보, 또는 Class-I 현지 기업의 부품·소재 협력사로 참여

입찰 공고(GeM·CPPP)의 품목별 최소 현지화율과 증빙 요건을 사전에 확인

자료: 인도 PIB「Vocal for Local」(2021.2.11, 상공부 국회 서면답변), PIB「Amendments in PPP-MII Order, 2017」(2020.9.18), DPIIT「Public Procurement (Preference to Make in India) Order, 2017」(개정본)

07

Q&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감사합니다

뉴델리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정희권 관세사 (hk.cca@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글로벌 통상 이슈
내 손으로 빠른 배송

카카오톡에서 **"KOTRA 세계이슈톡톡"** 채널을 추가하고

세계 주요 통상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미국 관세조치와 중동 이슈 등 최신 통상이슈 팩트 중심 수시 전파

-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
- 워싱턴·브뤼셀·베이징·도쿄 경통거점 정기 뉴스레터 및 이슈 보고서
- 세계 경제 및 통상 동향을 전하는 주간 뉴스레터
- 지역·산업 트렌드 심층·특화 보고서
- KOTRA 보고서 기반 유튜브 콘텐츠 영상

Ch KOTRA세계이슈톡톡 +

http://pf.kakao.com/_xbQCRn/friend

KOTRA 지역통상조사실

윤리경영 · 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 · 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첫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 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클린신고센터(부패신고채널)
전화 : 02-3460-7109 e-mail : clean@kotra.or.kr
우편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

설명회자료 26-010

2026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설명회

발 행 인 ❙ 강 경 성
발 행 처 ❙ KOTRA 통상협력팀
발 행 일 ❙ 2026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통상협력팀
(02-3460-7507)
ISBN ❙ 979-11-402-1841-7 (95320)

Copyright ⓒ 202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